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 반려동물 맞이 준비와 건강관리

2023년 6월

황원경 | 이신애

 KB금융지주 | 경영연구소



Executive Summary 1

2017년 이후 4번째로 발간되는 『2023년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는 ①한국 반려동물 양육 현황, ②반려가구의 반려동물 양육 행태, ③반려가구의 반려동물 생애 지출로 구성되었으며, 최근 반려동물을 ‘또 하나의 가족’으로 여겨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높은 책임감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여, ④반려동물 원격의료상담과 진료, ⑤반려동물 맞이 준비, ⑥반려묘 양육 스트레스 관리 이슈를 담고 있다.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가구’는 2022년 말 기준 약 552만 가구로 2020년 말 536만 가구 대비 약 2.8% 증가하였으며, 반려가구는 반려동물의 입양에서부터 양육, 장례에 이르기까지 가족에 준하는 책임감을 갖고 관리함으로써 반려동물 양육 문화를 성숙시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맞이 과정】

반려동물을 처음 맞이하는 경로를 묻는 질문에는 ‘친구나 지인을 통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33.6%로 가장 많았다. 특히 20~30대에서는 ‘동물보호센터를 통해서 맞이했다’와 ‘유기동물을 직접 구조했다’라고 답변한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 세대를 중심으로 ‘유기동물 입양 문화’가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려동물을 맞이하기로 결정하는데 ‘1개월 이상’ 생각했다는 응답 비중은 전체 반려가구의 34.5%였으며, 1개월 이상이 소요된 이유에는 ‘책임지고 잘 키울 수 있는지 고민’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1.0%로 가장 높았다.

또한 반려가구 중 67.3%는 반려동물을 기르면서 ‘만족한다’고 생각하였으나 타인에게 반려동물 양육을 ‘추천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오히려 감소(2021년 46.5%→2023년 41.9%)하였는데, 이는 반려가구가 가족의 일원인 반려동물을 기르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반려가구 중 반려동물 입양 준비가 ‘충분했다’라고 생각한 경우는 28.4%에 불과하였으며, 반려동물 입양 준비를 돋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반려인 자격시험의 국내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49.2%에 이르렀다.

【양육 과정】

반려동물 양육과 관련하여 반려가구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반려동물 건강 관리’(55.0%)였으며, 반려동물 식사나 거주환경 등 ‘반려동물 양육’(38.8%)과 ‘반려동물 외출’(27.0%)이 그 뒤를 이었다. ‘반려동물 건강 관리’와 관련해서는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방법’(68.6%)과 ‘질병 진단 후 케어 방법’(55.7%)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

Executive Summary 2

또한 지난 2년간 반려동물을 위해 치료비(사고나 상해,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와 약값의 합계)를 지출한 경험이 있는 ‘반려가구’는 전체 ‘반려가구’의 73.4%였다. 이들은 연 평균 78만 7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정기검진이나 X-Ray, CT, MRI 등 장비를 사용한 ‘정기/장비검진’에 대한 지출이 가장 많았다.

이와 더불어 반려동물의 전문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온라인상에서 수의사와 1대 1 채팅을 통해 상담할 수 있는 ‘원격의료상담’과 수의사와의 온라인 화상상담 및 진료를 통해 약 처방까지 받을 수 있는 ‘원격진단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려가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이 분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원격의료상담 서비스 ‘필요하다’ 41.5%, 원격진료 서비스 ‘필요하다’ 44.1%)

반려동물의 양육비, 치료비 등 생애비용 지출은 늘어나는 추세이나 이에 대한 준비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려동물 양육을 위해 별도로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 반려가구의 21.5%에 불과했다. 또한 반려가구의 89%가 ‘반려동물보험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실제로가입’한 반려가구는 11.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주된 이유로는 ‘월보험료가 부담된다’(48.4%), ‘보장범위가 좁다’(44.2%)는 점을 가장 많이 꼽았다.

【장례 과정】

마지막으로 반려동물의 장례와 관련해서는, 과거에는 키우던 반려동물이 죽음을 맞이하면 ‘직접 땅에 매장’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팻로스(Loss)를 경험한 가구 중 58.7%) 이번 조사 결과 반려가구의 상당수(64.5%)는 화장 후 수목장, 메모리얼스톤, 봉안당 안치 등 화장 후 장묘시설 이용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대한민국의 반려동물 양육 문화도 함께 발전하며 성숙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물 유기 확산 방지를 위해 2030세대를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는 유기동물 입양 문화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반려동물의 전문적인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원격의료상담 서비스’, ‘원격진단 서비스’ 실시 등 제도적인 변화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된다.



CONTENTS

2023 한국 반려동물보고서

Infographic

06

Key Issues

10

한국 반려동물 양육 현황

16

- ▶ New Findings Top 4
 - 01. 한국 반려가구 현황
 - 02. 선호 품종과 입양처
 - 03. 사회적·제도적 인식

17

18

20

24

반려가구의 반려동물 양육 행태

28

- ▶ New Findings Top 5
 - 01. 반려동물의 실내외 생활
 - 02. 반려가구의 양육 만족도
 - 03. 반려가구의 양육 관심사

29

30

36

40

반려가구의 반려동물 생애 지출

44

- ▶ New Findings Top 5
 - 01. 반려동물 입양비
 - 02. 반려동물 양육비
 - 03. 반려동물 장례비
 - 04. 반려동물 양육 자금
 - 05. 반려동물 전용 보험

45

46

48

52

54

56

IV [이슈1]

반려동물 원격 의료 서비스

60

▶ New Findings Top 3

61

- 01.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이용 현황
- 02. 원격 의료 상담 서비스 니즈
- 03. 원격 진료 서비스 니즈

62

64

68

V [이슈2]

반려동물 맞이 준비

74

▶ New Findings Top 6

75

- 01. 반려동물 맞이 시기
- 02. 맞이 준비의 충분 정도

76

80

VI [이슈3]

반려묘 양육 스트레스 관리

88

▶ New Findings Top 3

89

- 01. 반려묘 양육 정보
- 02. 반려묘 스트레스 요인과 관리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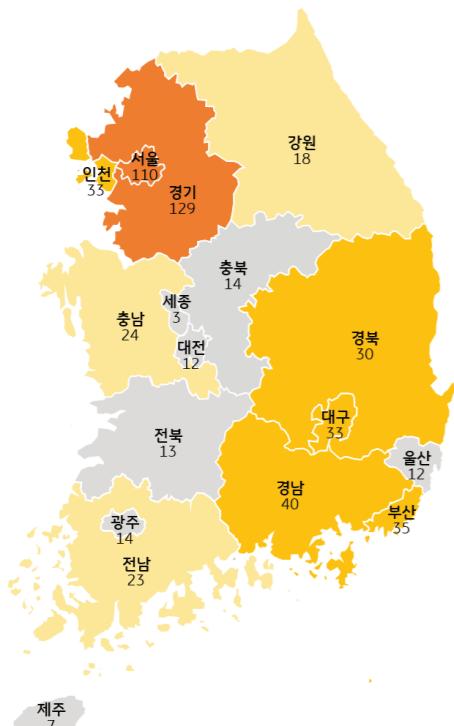
92

참고

97

국내 552만 가구, 1,262만 명이
반려동물 양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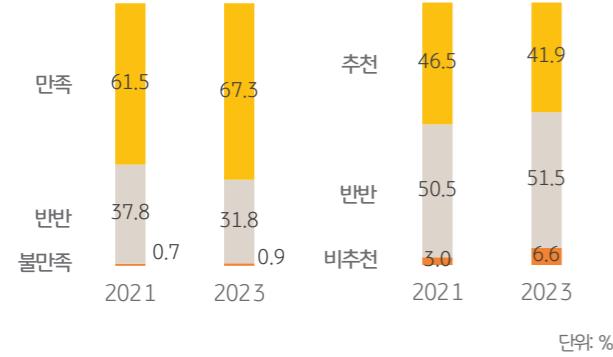
- 100만 가구 이상
- 25만 가구 이상
- 15만 가구 이상
- 15만 가구 미만

반려가구
552만 가구반려인
1,262만 명

단위: 만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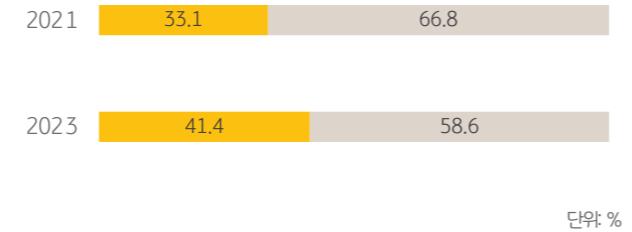
반려가구의 반려동물 양육 만족도는 증가,
양육 추천 의향은 감소

- 반려동물 양육 만족도
- 반려동물 타인추천의향



‘반려동물 양육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인지도는 과거 대비 하락

- 전혀 모르거나 잘 모르지만 들어봄
- 잘 알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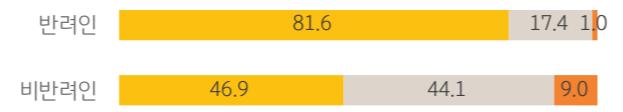


단위: %

반려가구와 비반려가구 간 반려동물에 대한
큰 인식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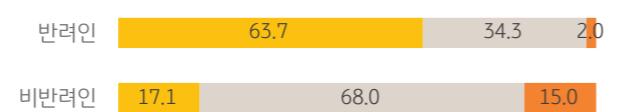
- 동의한다
- 반반이다
- 동의하지 않는다

• ‘반려동물은 가족의 일원이다’



단위: %

• ‘주변에서 펫티켓을 잘 지킨다’



단위: %

반려가구는 지난 2년간 평균 78만 7천 원을
반려동물 치료비로 지출

- 0원
- 10만원 미만
- 20만원 미만
- 30만원 미만
- 50만원 미만
- 70만원 미만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2021 29.0 11.5 16.6 10.9 9.2 9.5 2.5 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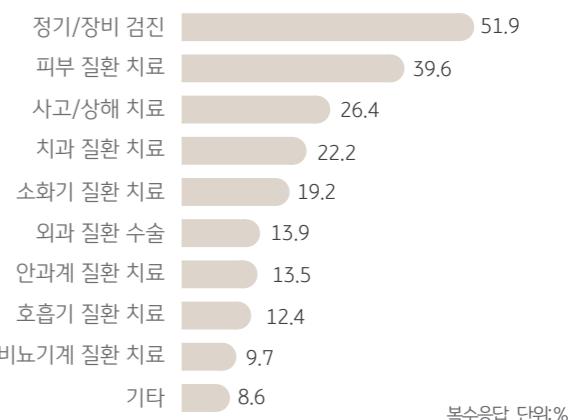
평균 총치료비 : 46만 8천 원

2023 26.6 8.8 9.9 8.0 13.3 10.9 3.7 18.8

평균 총치료비 : 78만 7천 원

단위: %

치료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정기/장비 검진(51.9%) 관련 비용



복수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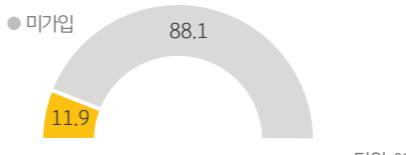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인지도는 크게 상승,
실제 가입률은 11.9%로 매우 저조

- 보험이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다
- 상품 종류, 특징까지 알고 있다
- 들어본 적 없다

• 인지도 2021 39.1 23.9 37.0

2023 65.9 23.1 11.0

• 가입률 ● 가입 ● 미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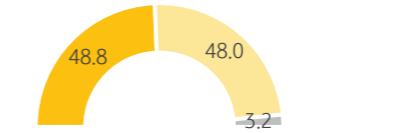
단위: %

반려가구 48.8%는
반려동물 원격 의료 상담 이용 의향 있음

※ 반려동물 원격의료상담 서비스: 반려동물 건강에 대해 온라인 1:1 텍스트 채팅으로 수의사와 상담할 수 있는 서비스

- 이용하겠다
- 반반이다
- 이용하지 않겠다

• 이용의향



• 이용 희망 이유

- 병원 내원 필요 여부 판단에 도움
- 병원 내원 불가 상황에 유용
- 응급 상황에 유용

1+2+3순위, 단위: %

반려가구 43.2%는 반려동물 원격진료
서비스 이용 의사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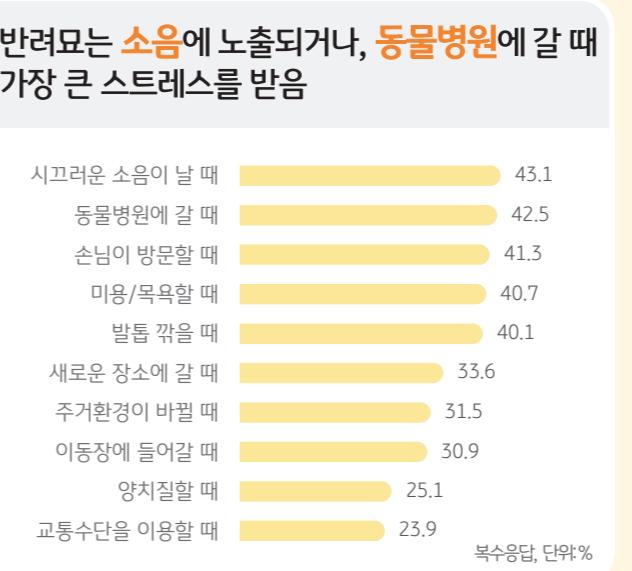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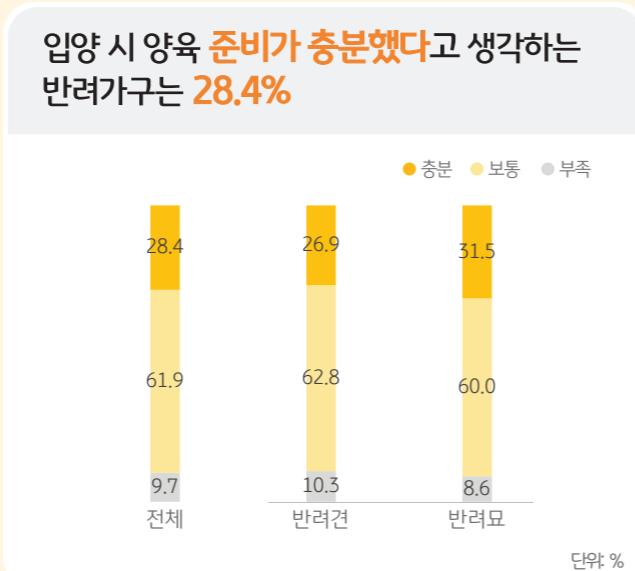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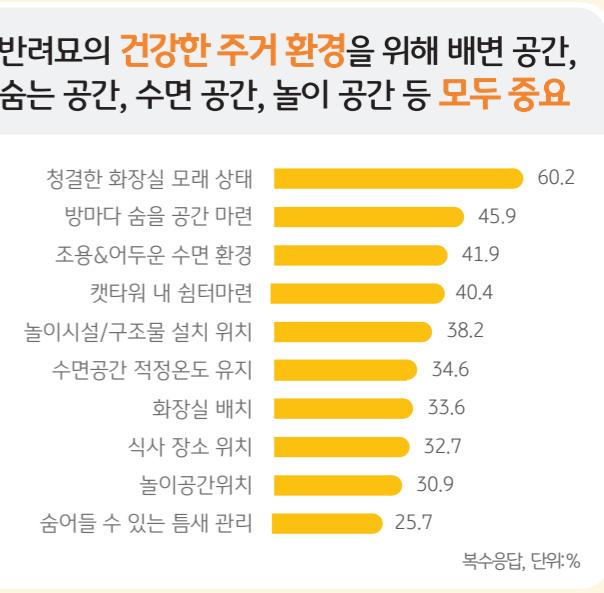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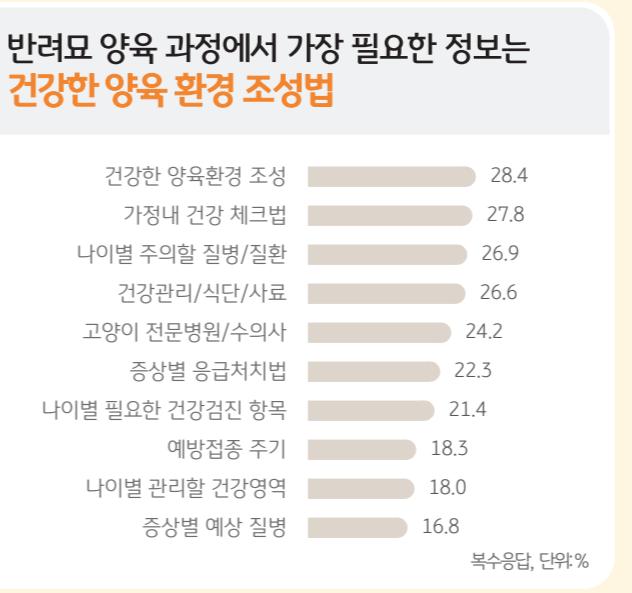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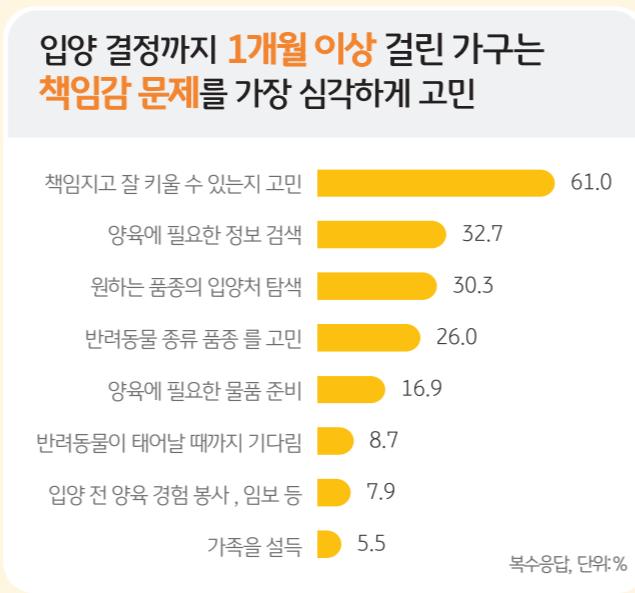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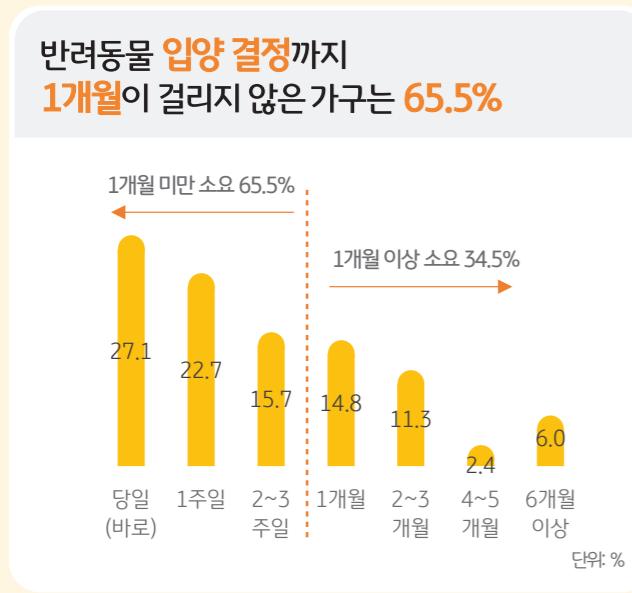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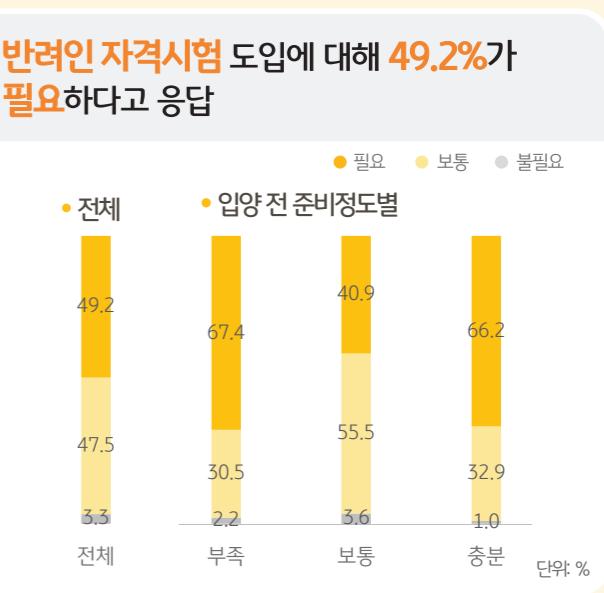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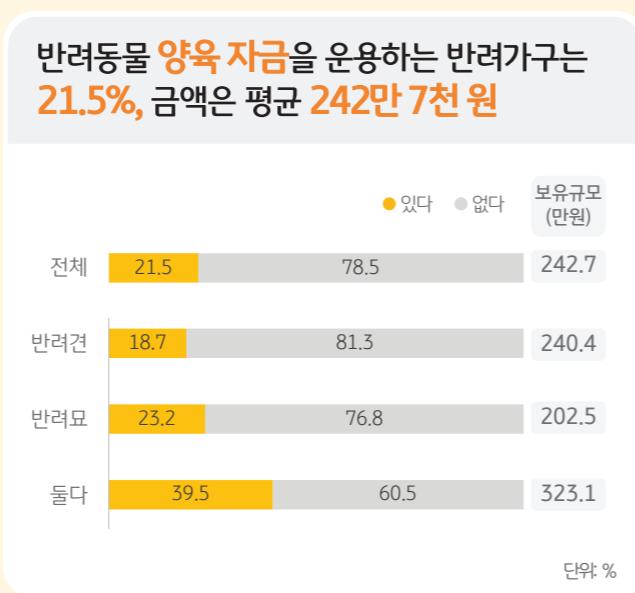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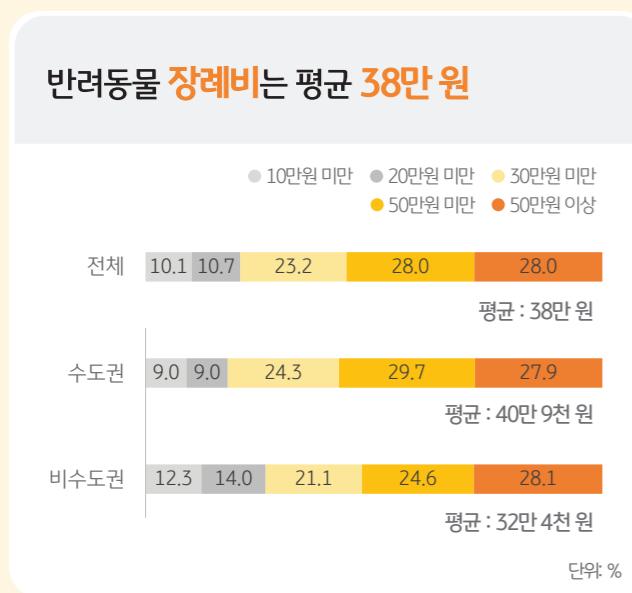
※ 반려동물 원격진료 서비스: 수의사와의 화상상담을 통해 반려동물의 질병/건강상태를 진단하는 서비스로 약 처방과 약 배달까지 가능
현재 국내에서는 수의사업에 의해 불가, 법 개정 시 가능

- 이용하겠다
- 반반이다
- 이용하지 않겠다

무료 43.2 54.0 2.8

유료 36.4 61.1 2.5

단위: %



Key Issues 1

반려동물, 쟁길 게 많아요!

[반려동물 양육 행태]



“반려동물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그럴 때 반려동물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비반려인



반려인

“하루에 잠시라도 반려동물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하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는 TV나 조명을 켜 놓고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주변에 보면 위탁시설을 이용하는 반려인도 최근 크게 늘었어요. 반려동물 유치원이나 호텔, 동물병원 같은 위탁 돌봄 시설이 늘어나면서 이용 기회가 많아진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어요.”

✓ 매일 집에 혼자 있는 반려동물을 위해 위탁시설을 이용하는 반려인이 33.5% 증가



“그럼 반려동물 양육과 관련해 가장 관심이 많은 사항은 무엇인가요? 관련 정보는 주로 어디서 얻으세요?”

비반려인



반려인

“가장 큰 관심사는 **반려동물 건강관리**이고, 반려동물 식사나 거주 환경 같은 양육과 관련된 사항에도 관심이 많아요. 건강관리와 관련해서는 건강검진 같은 건강관리 방법이나 질병 진단 후 케어 방법이 주된 관심사예요. 양육과 관련해서는 펫푸드, 펫유치원, 펫시터 등에 관심이 많아요. 관련 정보는 주로 **포털사이트, 카페, 블로그, 커뮤니티, 유튜브**에서 많이 얻어요”

✓ 반려동물 관련 주된 관심사는 건강관리와 식사나 거주 환경 등의 양육 관련 이슈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에 얼마나 만족하나요? 타인에게도 추천하고 싶나요?”

비반려인



반려인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에는 만족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추천은... 여행 가기 힘들다(37.4%)는 점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고, 건강 이상이 생겼을 때 대처가 힘들다(34.4%)는 점도 있어요. 이런 애로사항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기 어려워요.”

✓ 반려가구 67.3%는 반려동물 양육에 만족하나 타인에게 추천할 의향은 41.9% 수준

Key issues 2

반려동물 양육비용, 적지 않아요!

[반려동물 생애 지출]



비반려인

“반려동물을 데리고 오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나요?”



반려인

“주변에 보면 분양비는 평균 28만 2천 원 정도 들었어요. 전문 브리더, 반려동물 복합매장, 일반 애견센터를 통해서 입양할 때 더 비싸다고 하더라구요.”

✓ 전문 브리더, 반려동물 복합매장, 일반 애견센터의를 통한 입양 비용 증가로 평균 분양비 상승



비반려인

“그럼 매월 양육비는 얼마나 드나요? 반려동물보험료도 나가나요?”



반려인

“주변 반려가구를 보면 양육비는 평균적으로 월 15만 4천 원 정도 드는데 그 중 절반 이상이 식비 관련 지출이에요. 반려동물보험료는 양육비 3.0% 정도 돼요.”

✓ 월평균 양육비는 15만 4천 원이며 ‘사료비’와 ‘간식비’가 50.8%, 반려동물보험료 비중은 소폭 증가



비반려인

“치료비도 꽤 나간다고 들었는데 어디가 아플 때 비용이 가장 많이 드나요?”



반려인

“지난 2년간 치료비는 평균 78만 7천 원 정도 지출했어요. 정기/장비 검진(51.9%)에 가장 많이 들었고 피부 질환 치료(39.6%), 사고/상해 치료(26.4%)에도 많이 나갔어요.”

✓ 지난 2년 반려동물 치료비로 평균 78만 7천 원 지출, 2021년 대비 31만 9천 원 증가



비반려인

“그럼 반려동물을 기르는데 필요한 전용 자금을 마련해두고 있나요?”



반려인

“네, 아이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쓰려고 전용 자금으로 242만 원 정도 마련해두었고, 지금도 매월 저축하고 있어요. 주변에 보면 5명 중 1명 정도 전용 자금을 마련해두고 있는 것 같아요.”

✓ 반려가구 21.5%만이 반려동물 양육을 위한 전용 자금을 운용 중

Key issues 3

반려묘 키우기, 쉽지 않아요!

[반려묘 양육 스트레스 관리]



“고양이는 집 안에만 있어서 산책이나 운동을 시킬 필요도 없고, 사람 손을 적게 타서 기르기 편하다고 하던데 정말 그래요?”

반려견 양육자



반려묘 양육자

“실내에서 주로 생활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주거 환경에 더 신경 써야 해요. 화장실도 그렇고 식사 공간, 숨는 공간, 자는 공간, 놀이 공간 등 적절히 나눠서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는 **화장실인데, 모래를 깨끗하게 유지해주지 않으면 낭비의 건강을 해칠 수 있어 각별히 신경 써야 해요.** 최근 단독주택에 살다가 아파트로 이사해서 이것저것 신경 쓸 데가 더 많아요.”

✓ 집 안에서 생활하는 반려묘를 건강하게 기르기 위해서는 적절한 공간 분리와 쾌적한 환경 조성이 중요



“강아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헐떡이거나 떨거나 숨으려 해요... 심하게 짖기도 하고, 물건을 씹기도 하고, 공격적 행동을 보이기도 하죠. 고양이도 스트레스를 받나요?”

반려견 양육자



반려묘 양육자

“고양이는 예민한 아이라 **소음이나 목욕, 발톱 깎기, 외출 등 다양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저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체크하려고 식사량, 배변 횟수/배변량, 활동량, 몸 무게 등의 변화를 항상 살피고 있죠.”

✓ 반려묘의 식사량, 배변 횟수/배변량, 활동량 변화 등의 스트레스를 진단할 수 있는 체크포인트 필요



“고양이는 숨는 걸 좋아하고 야행성이라 낮에 잘 안 움직이고 어두운 곳에 숨어 있다가 밤에 활동하고, 사람 눈에 잘 안 띠어 아픈 걸 잘 모른다고 하던데?”

반려견 양육자



반려묘 양육자

“우리 낭이가 아픈 상황에서 **동물병원에 가야 할지, 안 가도 될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주변에 물어봐도 대다수 반려인(65.8%)이 진단하고 병원을 갈지, 집에서 처치할지를 결정하고 있어요. 아프다고 그때마다 병원에 데려가기 어려운 이유는 **반려묘들은 병원에 데려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수 있거든요.** 집에서 반려묘의 건강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 반려묘 스트레스를 잘 파악하는 가구는 28.5%, 반려묘 건강 상태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정보 필요

Key issues 4

반려동물 맞이, 좀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요!

[반려동물 맞이 준비]



“제가 요즘 외로워서 강아지를 입양받으려고 **원하는 품종이나 훈련 방법, 먹이랑 간식, 텀 빠짐 같은 정보를 알아봤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요?”

예비 반려인



생애 최초 입양 2년차

“제가 제일 후회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저도 **굉장히 일반적인 정보만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사람마다 성격이 다른 것처럼 반려견도 특성과 성향이 달라서 내가 데리고 오고 싶은 강아지가 어떤 알레르기가 있는지, 다른 강아지들보다 소리에 민감한지, 공격성이 높은지 등 그 **아이만의 성향에 대해서 알고 데리고 와야 덜 힘들 거예요.**”

✓ 반려가구의 73.1%가 입양 전 정보 탐색, 반려동물의 개별적인 특성이나 성향 등의 정보 수집 부족



“그래요? 그런데 강아지 키우면 짖는 거, 텀 날리는 거, 산책시켜 줘야 되는 거 이런 게 제일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어요.”

예비 반려인



생애 최초 입양 2년차

“아이 짖음이 심해서 훈련사님한테 교육까지 받아도 해결 안되는 경우도 있고, 사료가 안 맞아서 사료 성분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먹여도 알레르기 해결이 안 되기도 한데.. 그리고 자기 배변을 자기가 먹어버리거나 산책하다가 아무거나 주워 먹기도 하고... 문제는 이런 어려움이 강아지 개별 특성이라서 해결책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 반려인은 반려동물의 성향, 건강 상태 등 개별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힘들어함



“그렇군요. 그런 정보까지 알아보려면 입양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네요. 안 그랬 다간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하고 싸움이 날 수도 있겠어요.”

예비 반려인



생애 최초 입양 2년차

“네. 저는 6개월 이상 공부하고 고민하고 입양했는데 사실 최근 2년 이내 입양한 반려가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절반 이상이(65.5%) 입양 전 1개월 정도 고민하고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입양 전 준비가 충분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10명 중 3명 밖에 안 돼요. 또 많은(49.2%) 반려인이 입양 전 반려인으로서 자격을 검증하는 반려인 자격시험에 필요하다고 느껴요. 실제 반려동물을 키워보니 충분치 못한 준비로 반려인 스스로 자격이 부족하다고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 반려동물 입양 전 충분한 공부와 고민을 통해 반려인으로서 자격을 갖춘 후 입양하는 자세가 필요

Key issues 5

반려동물 원격 진료, 우리나라 필요해요!

[반려동물 원격 상담·진료]



“지난번에 우리 아이 피부가 빨개져서 **반려동물 원격상담 서비스** 채팅창에 남겼더니 전문가가 어떤 질환인지 답변해 주셔서 정말 유용했어요. 써 본 적 있으세요?”

반려인

- “그런 서비스가 있어요? **반려동물의 건강에 대해 사진하고 글을 채팅창에 남기면 수의사나 훈련사 같은 전문가가 답변해준다고요?** 우리나라에 그런 상담 서비스가 있는지 몰랐어요..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갑자기 아이가 아플 때 부모님, 친구 등 여기저기 전화해서 물어보는 어려움은 줄었을 것 같아요. 상담이 가능하다면 **평소에 아이의 이상 행동이나 식습관 등 건강과 관련해서 문의해도 되겠네요.** 아무래도 병원보다는 저렴하겠지요?”



1인가구&
반려묘 양육자

✓ 반려동물 건강관리나 질병/질환에 대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상담을 받고자 하는 니즈 존재



“싱가포르나 미국 일부 주에서 **수의사가 화상으로 반려동물의 질병이나 건강 상태를 진단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던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반려인

- “**화상으로 가능하다고요? 전혀 몰랐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서비스가 필요할 거 같아요(한국 수의사법에는 수의사의 직접 진료만 가능하여 원격 진료는 불가능함). 저는 낭비하고 둘이 사는데, 갑자기 낭비가 아파서 병원에 갈지 말지 고민될 때 화상으로 진단받을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또 밤이나 새벽시간에 갑자기 아이가 아플 때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아요.”



1인가구&
반려묘 양육자

✓ 1인가구나 반려묘를 기르는 가구에서 원격 진료 서비스에 대한 이용 의향이 높게 나타남



“만약 이런 **원격 진료 서비스가 유료**라고 해도 이용할 건가요? 저는 돈을 내야 한다면 이용할지 말지 약간 고민되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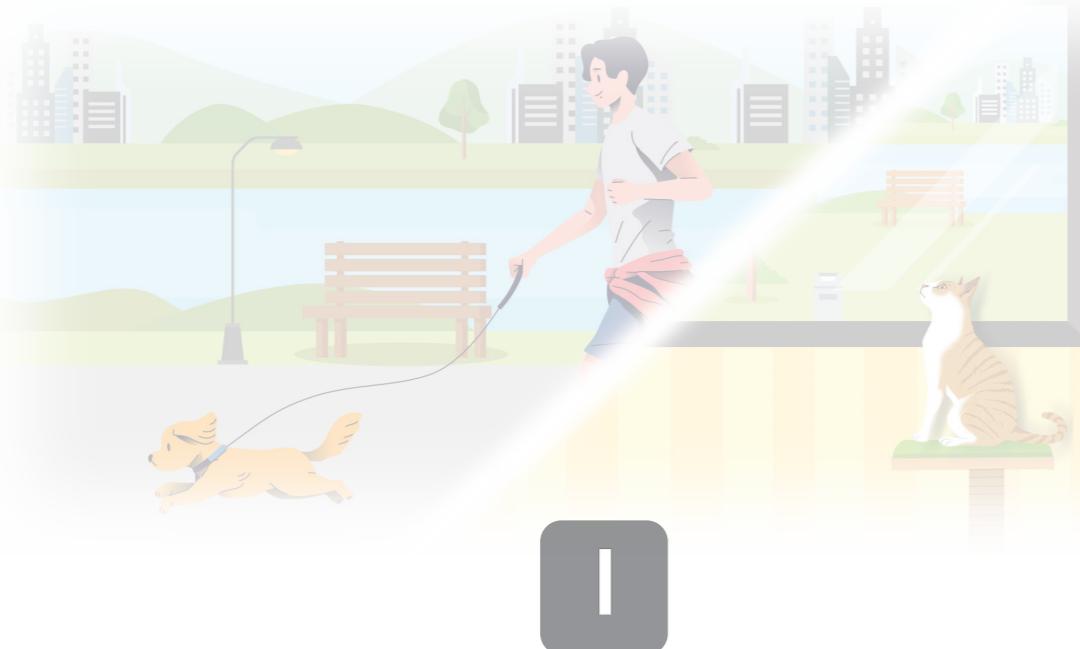
반려인

- “저는 **유료라고 해도 이용할 거 같아요**. 아주 많이 비싸면 이용하기 어렵겠지만 **1회 진료를 받는데 7만 원 정도로 가능하다면** 이용할 거 같아요. 낭비는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기 위해 집밖으로 나가는 것 조차도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화상으로 진료가 되고 약 처방이 가능하다면 기꺼이 사용할 거예요. **수의사 선생님이 화상으로 진료도 해주고, 약도 처방해주고, 약을 배달까지 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1인가구&
반려묘 양육자

✓ 반려가구 3분의 1 정도는 원격 진료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할 경우에도 이용할 의향이 있음



한국 반려동물 양육 현황

01 | 한국 반려가구 현황

02 | 선호 품종과 입양처

03 | 사회적·제도적 인식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면서 반려동물 동반 전세기부터 발 마사지기, 자동 이발기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이색적인 제품과 서비스가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한국의 반려가구 수는 과연 얼마나 될까?

KB경영연구소는 자체 설문조사와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를 기반으로 한국 반려가구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일차로 전국 20세 이상 69세 이하 남녀 2천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를 참고하여 핵심 변수를 기준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전체 가구 분포와 일치할 수 있도록 레이킹비율접근법(Raking Ratio Method)을 적용해 가구별 가중값을 산출했다. 최종적으로 가구별 가중값을 반영해 반려동물 양육 현황과 관련된 수치를 재산출함으로써 한국 전체 분포와 근접한 추정값을 도출했다.

본 장에서는 한국의 반려가구 수와 지역별 분포 현황, 선호하는 품종과 입양처, 반려동물 관련 사회적·제도적 인식, 그리고 비반려가구와의 인식 차이 등을 살펴본다.

New Findings Top 4



2022년 말 기준 한국 반려가구는 552만 가구로 2020년 말 대비 2.8% 증가했다.

- ◎ 2022년 말 기준 반려가구는 552만 가구로 2020년 말 536만 가구 대비 2.8% 증가
- ◎ 반려가구는 전체 가구의 25.7%를 차지하고, 반려인은 1,262만 명 수준
- ◎ 반려견가구는 71.4%로 2020년 대비 3.2%p 감소한 반면 반려묘가구는 27.1%로 2020년 대비 1.9%p 증가. 한국 전체 반려견 수는 473만 마리이고, 반려묘는 239만 마리



반려묘가구와 1인가구를 중심으로 전 연령대에서 유기동물 입양이 늘었다.

- ◎ 지인을 통해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입양한 경우가 가장 많고(33.6%), 유기동물을 입양한 경우도 20~30대에서 2위, 40대 이상에서 3위를 차지
- ◎ 반려견가구는 지인을 통한 입양(36.1%), 반려묘가구는 유기묘 입양(37.3%)이 가장 많음
- ◎ 1인가구는 유기동물 입양이 28.2%, 부부가구·부모자녀가구·기타가구는 지인을 통한 입양이 각각 30% 이상으로 가장 많음



반려가구의 반려동물 양육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과거에 비해 하락했다.

- ◎ 반려동물 양육 관련 법과 제도를 들어봤으나 잘 알지 못하거나 전혀 모른다는 반려가구가 41.4%로 2020년 말(33.1%) 대비 8.3%p 증가
- ◎ 특히 반려묘가구 52.9%가 관련 법과 제도를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른다고 응답해 반려견가구(38.3%)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보임
- ◎ 비반려가구와의 갈등을 예방하고 반려동물과 상생하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종류와 무관하게 반려인이라면 누구나 관련 법과 제도의 숙지가 필요



반려가구와 비반려가구의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여전히 커졌다.

- ◎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반려가구는 81.6%인 반면 비반려가구는 46.9%에 불과
- ◎ 반려가구가 '펫티켓'을 잘 지킨다는 응답은 반려가구 63.7%, 비반려가구 17.1%
- ◎ 비반려가구와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서는 반려가구의 반려동물 양육 관련 법과 제도의 숙지와 준수 노력이 필요하며, 비반려가구의 경우에도 포용의 자세가 요구
- ◎ 관련 기관의 경우 반려동물 보호와 반려가구와 비반려가구 간 갈등 최소화를 위해 반려동물에 대한 정보 표시 제도 도입 등의 관련 법과 제도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

01 한국 반려가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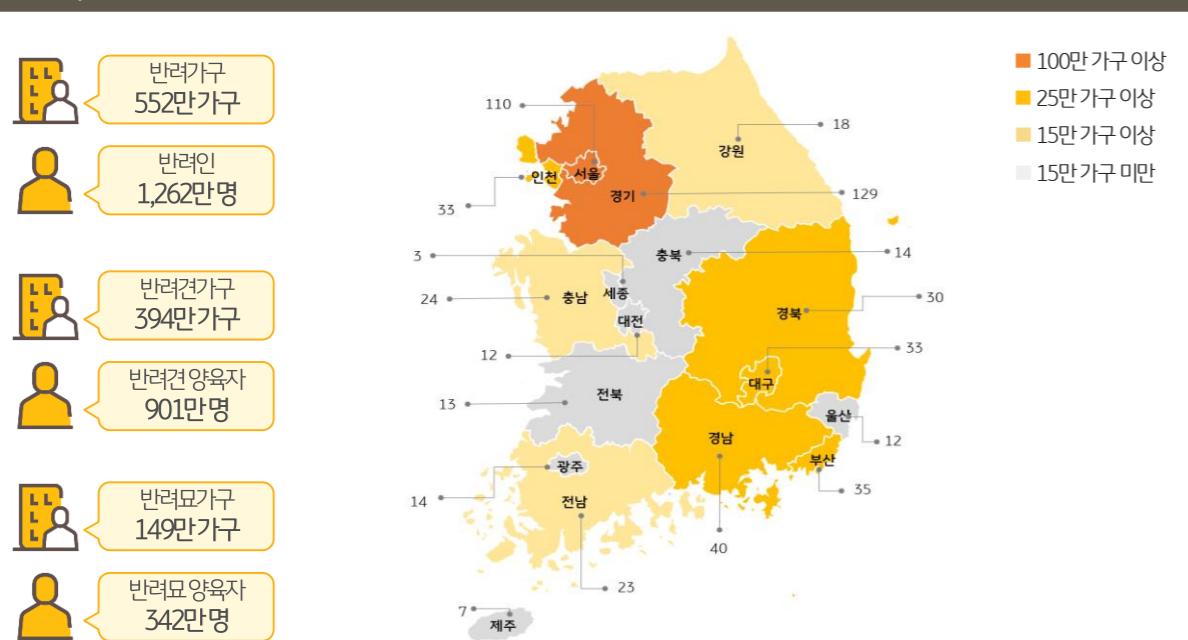
“

**2022년 말 기준 한국 반려가구는 552만 가구로
2020년 말 대비 2.8% 증가했다**

2022년 말 기준 한국에서 개, 고양이, 금붕어, 거북이 등과 같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가구’는 552만 가구로 지난 2020년 말의 536만 가구 대비 2.8% 증가했다. 반려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7%로 지난 조사의 26.3% 대비 0.6%p 감소했다. 이는 한국 전체 가구 증가율(5.4%) 대비 반려가구 증가율(2.8%)이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로 보인다.

반려인은 1,262만 명으로 2020년 말 1,282만 명 대비 20만 명이 감소했다. 반려인 수는 반려가구 수에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를 곱해서 추정했는데, 1인가구 증가로 반려가구 수는 늘어난 반면 가구당 가구원 수는 줄어 전체 반려인 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I-1 | 한국의 지역별 반려가구 현황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110만 가구, 경기 129만 가구, 인천 33만 가구로 전체 반려가구의 절반 정도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었다. 수도권의 경우 전체 가구 중 반려가구가 25.9%를 차지해 비수도권(11.5%)에 비해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한국 반려가구는 개를 기르는 ‘반려견가구’가 71.4%로 가장 많았고, 고양이를 기르는 ‘반려묘가구’가 27.1%로 두 번째로 많았다. 흥미로운 점은 반려견가구는 지난 조사(74.6%) 대비 3.2%p 감소한 반면 반려묘가구(25.2%)는 1.9%p 증가해, 반려동물로 고양이를 선호하는 가구가 늘었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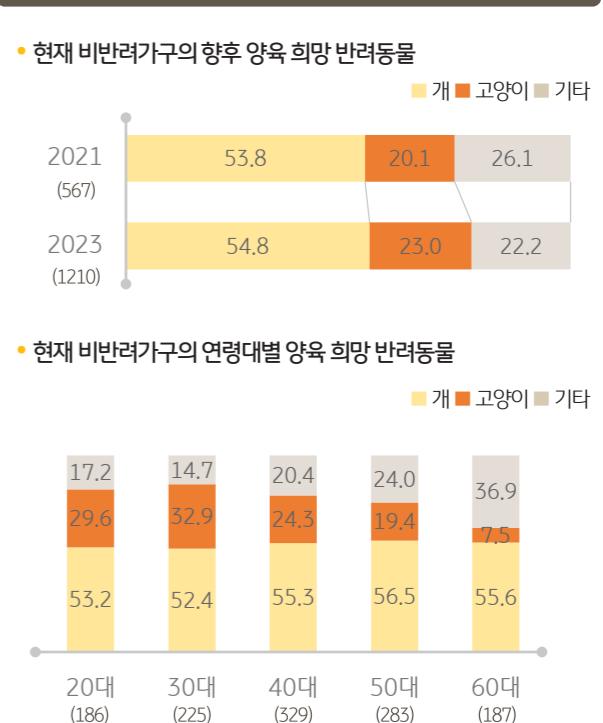
반려견가구는 가구당 평균 1.2마리, 반려묘가구는 가구당 평균 1.5마리를 기르고 있었다. 이 같은 반려가구의 반려동물 평균 개체수를 반영하여 추산하면 한국 전체 반려견 수는 473만 마리, 전체 반려묘 수는 239만 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 외 금붕어, 햄스터, 거북이 등도 반려동물로 기르고 있었다.

현재 비반려가구 중 향후 반려동물 양육 의향이 있는 가구는 얼마나 될까? 비반려가구의 78.7%가 향후 개, 고양이, 금붕어, 거북이와 같은 반려동물을 기르고 싶다고 응답했다. 이 중 절반 정도(54.8%)는 반려견을 기르고 싶다고 응답해 지난 조사 대비 소폭(1.0%p) 증가했다. 향후 반려묘를 기르고 싶다고 밝힌 가구도 23.0%로 지난 조사 대비 2.9%p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전 연령대에서 반려견을 기르고 싶다고 밝힌 응답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반려묘를 기르고 싶다는 응답은 30대(32.9%)에서 가장 높았고 60대(7.5%)에서 가장 낮았다.

그림 I-2 | 반려동물 종류별 양육 비율 (복수응답, 단위%)



그림 I-3 | 향후 양육 희망 반려동물 (단위%)



CHAPTER

02 선호 품종과 입양처

“

**가장 선호하는 견종은 ‘몰티즈’, ‘푸들’, ‘믹스견’,
묘종은 ‘코리안숏헤어’, ‘페르시안’, ‘러시안블루’였다**

반려견가구가 가장 선호하는 견종은 몰티즈(25.9%)였고 뒤이어 푸들(21.4%), 믹스견(20.3%), 포메라니안(10.3%), 진돗개(5.6%) 순으로 나타났다. 반려견가구의 품종 선호도 변화를 살펴보면 2018년 3위를 차지한 시추의 양육 비율은 2023년 6위로 하락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꾸준히 5위를 차지한 치와와, 7위를 차지한 골든리트리버는 2023년 7위 밖으로 밀려났다.

반면 믹스견은 2018년 6위에서 2021년 4위, 2023년 3위로 상승했고, 양육 비율도 2018년 8.4%, 2021년 10.7%, 2023년 20.3%로 증가했다. 믹스견에는 어떤 품종들이 교배되었는지 모르는 경우와 의도적으로 서로 다른 품종을 교배한 ‘몰티푸’(몰티즈 + 푸들), ‘코카푸’(코커스파니얼 + 푸들), ‘폼피즈’(포메라니안 + 스피츠) 등이 있었다. 비숑 프리제는 2018년 1.9%(14위)에서 2020년 2.9%(11위), 2023년 4.5%(7위)로 꾸준한 선호도 증가세를 보였다.

반려묘의 경우 코리안숏헤어가 2021년 45.2% 대비 16.9%p 증가한 62.1%를 기록하며 1위를 유지했다. 코리안숏헤어 양육 가구의 절반 이상인 57.7%는 유기묘를 입양한 것으로 나타나, 코리안숏헤어의 양육 비율 증가에는 유기동물 입양 문화 확산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다음으로 페르시안(15.0%), 러시안블루(11.9%)를 많이 기르고 있었다.

그림 I-4 | 양육 중인 반려견 품종 변화

순위	2018	2021	2023
1	몰티즈 (23.9)	몰티즈 (23.7)	몰티즈 (25.9)
2	푸들 (16.9)	푸들 (19.0)	푸들 (21.4)
3	시추 (10.3)	포메라니안 (11.0)	믹스견 (20.3)
4	포메라니안 (9.3)	믹스견 (10.7)	포메라니안 (10.3)
5	치와와 (8.4)	치와와 (10.1)	진돗개 (5.6)
6	믹스견 (8.4)	시추 (8.2)	시추 (5.6)
7	골든리트리버 (8.1)	골든리트리버 (7.5)	비숑 프리제 (4.5)

주) 2018년 반려견가구 n= 581, 2021년 반려견가구 n= 830, 2023년 반려견가구 n= 754

그림 I-5 | 양육 중인 반려묘 품종 변화

순위	2018	2021	2023
1	코리안숏헤어 (45.2)	코리안숏헤어 (45.2)	코리안숏헤어 (62.1)
2	러시안블루 (18.4)	러시안블루 (19.0)	페르시안 (15.0)
3	페르시안 (18.4)	페르시안 (18.7)	잘 모르겠다 (12.5)
4	삼 (16.6)	잘 모르겠다 (16.8)	러시안블루 (11.9)
5	잘 모르겠다 (15.7)	삼 (11.0)	삼 (9.8)
6	터키쉬양고라 (8.3)	터키쉬양고라 (5.8)	터키쉬양고라 (8.3)
7	스코티쉬폴드 (6.0)	스코티쉬폴드 (4.5)	스코티쉬폴드 (6.4)

주) 2018년 반려묘가구 n= 217, 2021년 반려묘가구 n= 310, 2023년 반려묘가구 n= 327

지인을 통한 입양이 가장 많았고, 20~30대 사이에서 유기동물 입양이 늘었다

반려동물 입양 채널은 ‘친구/지인’(33.6%)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애견센터/반려동물 복합매장’(23.1%), ‘동물보호센터/유기동물 직접 구조’(19.9%)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와 달라진 점은 이번에는 연령대별로 입양 채널의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2021년에는 전 연령대에서 친구/지인을 통한 입양이 가장 많았고, 40대를 제외한 연령대에서는 애견센터/반려동물 복합매장이 그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20~30대의 경우 동물보호센터/유기동물 직접 구조가 2위로 나타났다. 20대는 지난 조사 (19.7%) 대비 3.7%p 많은 23.4%, 30대(19.0%)는 4.3%p 많은 23.3%가 유기동물을 기른다고 응답해, 20~30대 사이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0대 이상에서는 애견센터/반려동물 복합매장에서 입양한 경우가 2위를 차지했다. 유기동물을 입양한 경우는 3위를 차지했는데, 지난 조사 대비 입양 비율이 40대(1.8%p), 50대(6.2%p), 60대(5.8%p)에서 모두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었다.

반려견가구와 반려묘가구 간에도 입양처 차이를 보였다. 반려견가구의 경우 친구/지인을 통한 입양이 36.1%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애견센터/반려동물 복합매장(29.0%), 동물보호센터/유기동물 직접 구조(11.4%) 순이었다. 반면 반려묘가구의 경우 ‘유기묘’를 입양하여 기르는 경우가 37.3%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친구/지인(28.4%)을 통하거나, ‘인터넷 개인 간 거래’(12.5%)로 입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반려인과의 교감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반려견의 경우 유기 경험으로 문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인다.

가구 유형별 입양처를 살펴보면 1인가구의 경우 유기동물 입양이 28.2%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지인을 통한 입양(25.8%)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부부가구, 부모자녀가구, 기타가구(비친족가구, 조부모와 손자녀가구 등을 포함)는 ‘친구/지인’을 통한 입양이 각각 30%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부부가구와 기타가구의 경우 유기동물을 입양한 경우가 많은 반면, 부모자녀가구의 경우 애견센터/반려동물 복합매장을 통한 경우가 많았다.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도 문제 행동이 우려되어 유기동물 입양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I-6 | 반려동물 입양처와 반려인 연령대별 선호 입양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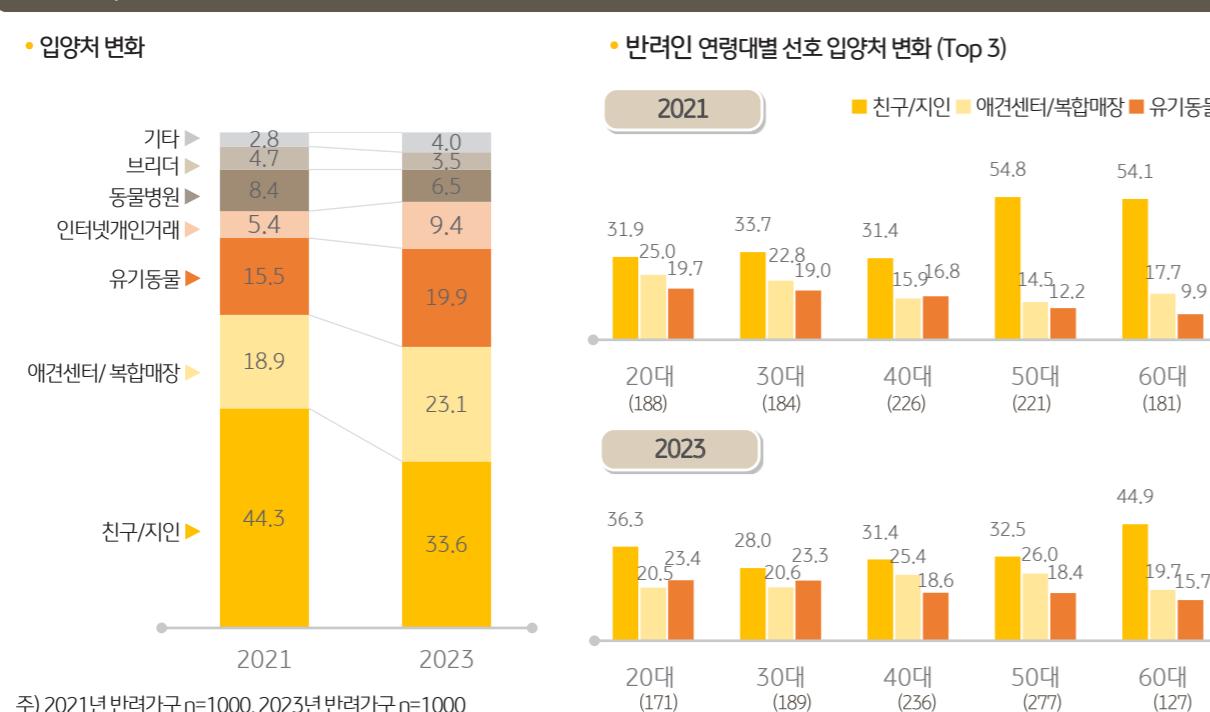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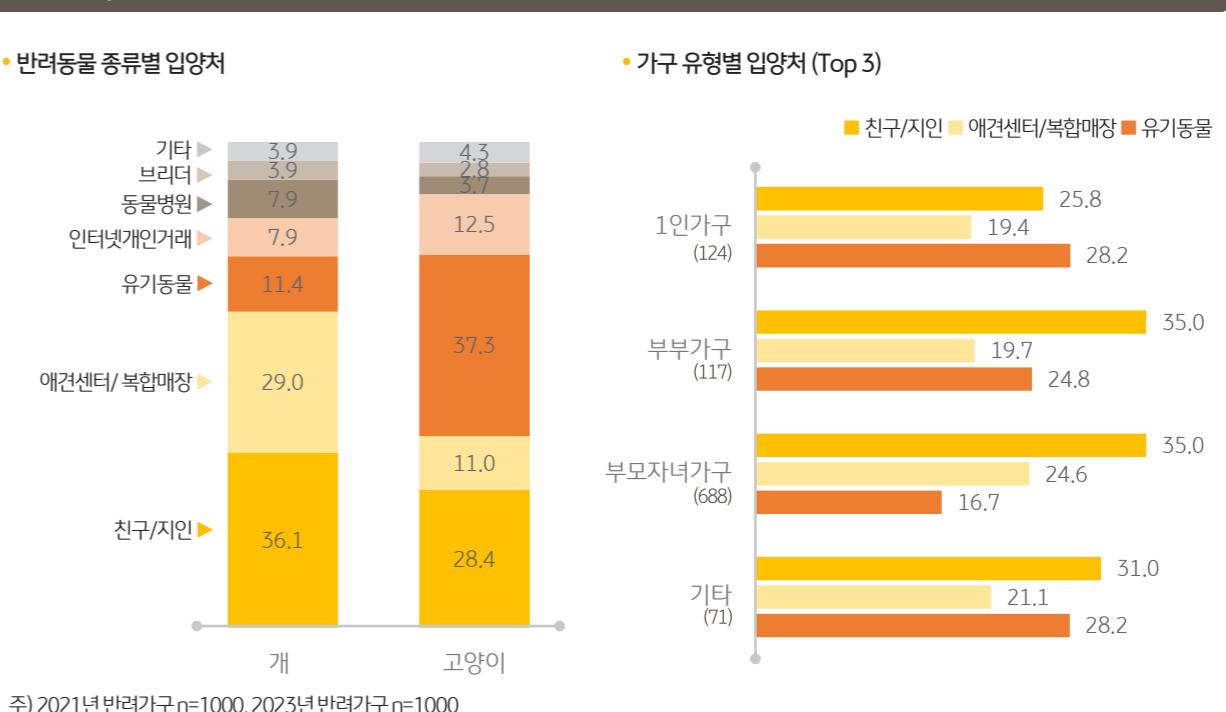


그림 I-7 | 반려동물 종류와 가구 유형별 입양처



CHAPTER

03 사회적·제도적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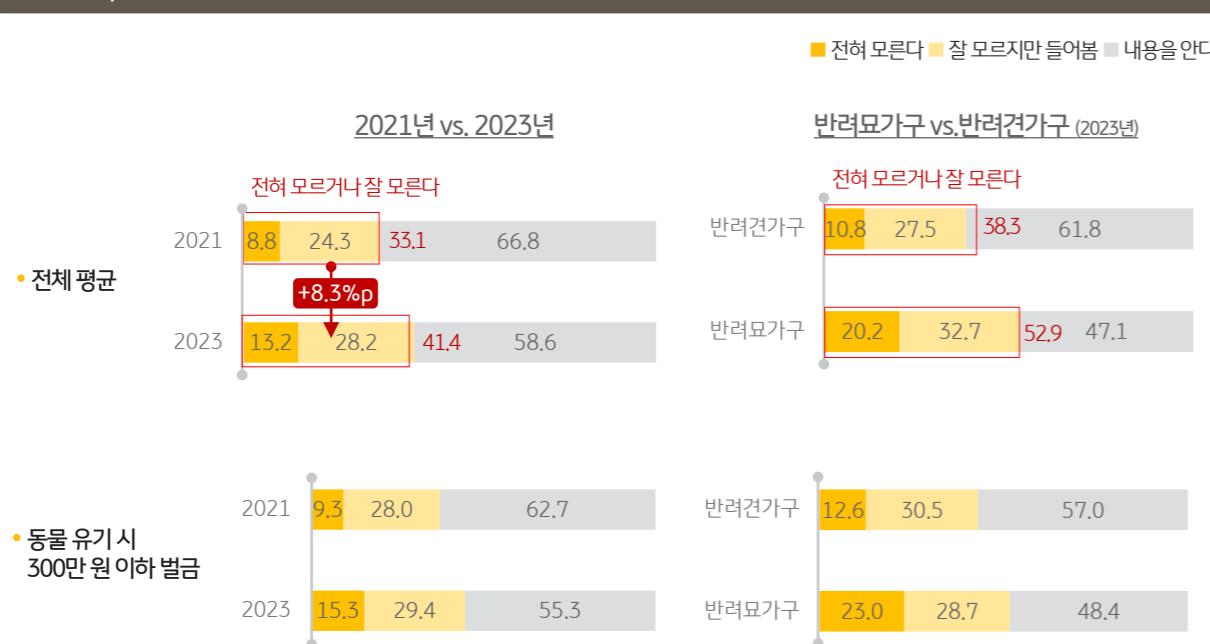
“

반려동물 양육 법과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과거에 비해 하락했다

반려가구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양육과 관련된 법과 제도의 인지도를 알아본 결과, 내용을 잘 알지 못하거나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41.4%로 지난 조사(33.1%) 대비 8.3%p 증가했다.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응답도 58.6%로 2020년(66.8%)에 비해 감소했다. 내용을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른다는 응답은 반려묘가구(52.9%)가 반려견가구(38.3%)에 비해 많아서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보였다.

반려동물 양육 관련 법과 제도는 크게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것’과 ‘타인 보호를 위한 것’으로 나누어진다.

그림 I-8 | 반려동물 양육 관련 법·제도 인지 여부 (1)



주) 2021년 반려가구 n=279, 2023년 반려가구 n=463, 2023년 반려견가구 n=302, 2023년 반려묘가구 n=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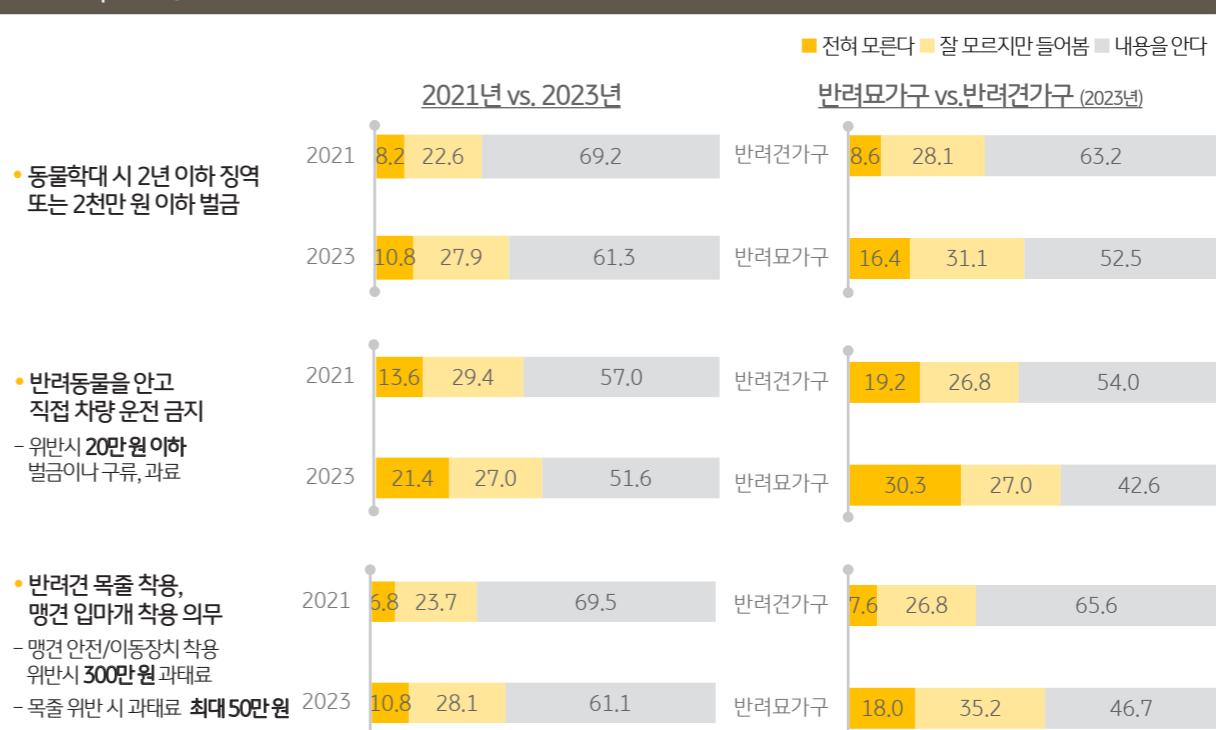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부터 살펴보면, 반려동물을 기를 수 없다고 버리는 행위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금지되며, 유기 시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 제1호). 해당 법령에 대한 반려가구의 인지도는 지난 조사(62.7%) 대비 7.4%p 하락한 55.3%를 기록했다. 내용을 전혀 모른다는 가구는 반려묘가구(23.0%)가 반려견가구(12.6%)보다 10.4%p 많았다.

구타, 방임을 비롯해 혹서, 혹한에 방치하는 행위 등 동물을 학대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내지 제3항). 해당 법령에 대해 알고 있다는 반려가구는 61.3%로 지난 조사(69.2%) 대비 7.9%p 줄었다. 이 법령 역시 내용을 전혀 모른다는 응답은 반려묘가구(16.4%)가 반려견가구(8.6%)보다 많았다.

타인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의 경우 반려동물을 안고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는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 시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한다(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 해당 법령에 대해 알고 있다는 반려가구는 51.6%로 2021년(57.0%) 대비 5.4%p 줄었다. 이 법령에 대해서도 반려묘가구와 반려견가구의 인지율 차이가 컸는데 반려묘가구는 30.3%, 반려견가구는 19.2%가 내용을 전혀 모른다고 응답했다.

반려견과 동반 외출할 경우 의무적으로 목줄이나 가슴줄 또는 이동 장치를 사용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50만 원, 맹견의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동물보호법 제13조, 제13조의 2). 해당 법령에 대한 반려가구의 인지율은 61.1%로 지난 조사(69.5%) 대비 8.4%p 하락했다.

그림 I-9 | 반려동물 양육 관련 법·제도 인지 여부 (2)



주) 2021년 반려가구 n=279, 2023년 반려가구 n=463, 2023년 반려견가구 n=302, 2023년 반려묘가구 n=122

반려가구와 비반려가구의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여전히 커다

반려가구와 비반려가구의 반려동물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 ‘반려동물은 가족의 일원이다’는 설문에 반려가구 81.6%가 동의한 반면 비반려가구는 46.9%만이 동의했다. ‘주변에서 펫티켓을 잘 지킨다’는 설문에는 반려가구 63.7%가 동의한 반면 비반려가구는 17.1%에 불과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비반려가구가 야외/여행지에서 반려동물과 접촉 시 불편하거나 우려하는 점은 무엇일까? 가장 큰 우려 사항은 ‘공공장소에 미수거/방치된 배변물’이었다. 그다음으로 ‘공격당할까 봐 걱정됨’, ‘물거나 달려들어 옷이나 물건 등을 훼손할까 봐 걱정됨’, ‘짖는 소리가 신경 쓰임’, ‘예방접종을 마쳤는지 걱정됨’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30대 대비 40세 이상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우려 정도가 높았다. 비반려가구가 우려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 양육과 관련된 법과 제도가 마련되었지만, 반려인의 인지율이 과거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10 | 반려가구와 비반려가구 인식 차이 (단위%)

■ 동의한다 ■ 반반이다 ■ 동의하지 않는다

‘반려동물은 가족의 일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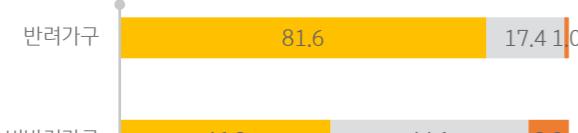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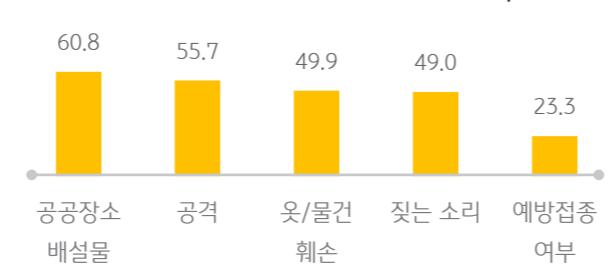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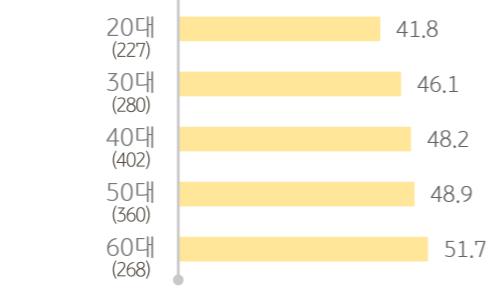


그림 I-11 | 비반려가구의 우려사항 (복수응답, 단위%)

● 아외/여행지에서 반려동물 접촉 시 불편/우려사항 (Top 5)



• 연령대별 Top 5 응답률 평균



주) 반려가구 n=463, 비반려가구 n=1481

주) 비반려가구 n=1537

비반려가구의 가장 큰 불편 사항인 배설물 방치와 관련해서는 반려동물과 외출하여 배설물 발생 시 수거하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부과되며(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 반려견에 한해 5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동물보호법 제47조 제3항 제4호). 해당 법령에 대한 반려가구의 인지율은 지난 조사(75.6%) 대비 10.6%p 하락한 65.0%로 나타났다.

비반려가구가 우려하는 반려동물의 공격으로 인한 상해 시 반려인에게 과실치상죄가 적용되어 5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가 부과된다(형법 제266조). 반려동물 점유자는 동물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민사상 책임을 물게 된다(민법 제759조). 해당 법령에 대한 반려가구의 인지율은 지난 조사(67.0%) 대비 10.0%p 하락한 57.0%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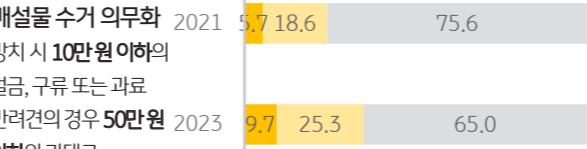
비반려가구와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서는 반려가구의 반려동물 양육 관련 법과 제도의 숙지와 준수 노력이 필요하다. 비반려가구의 경우에도 반려동물과 반려가구에 대한 포용의 자세가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비반려가구가 반려동물에 대해 경계심을 갖는 큰 이유는 공격성도 있지만 예방접종 여부 등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마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보를 누구나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 반려동물의 몸에 걸어준다면 비반려가구의 경계심을 늦추는데 도움 될 것이다.

실제 비반려가구의 35.7%가 이러한 방법으로 반려동물 정보를 알 수 있다면 안심될 것 같다고 응답했고, 반려가구의 36.1%도 표시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반려동물 정보 표시 제도의 도입은 반려동물 양육 관련 법과 제도 인지도 제고와 더불어 반려가구와 비반려가구가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기관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조치로 보인다.

그림 I-12 | 반려동물 양육 관련 법·제도 인지 (3)

(단위%)

• 반려동물과 외출 시 배설물 수거 의무화



• 반려견의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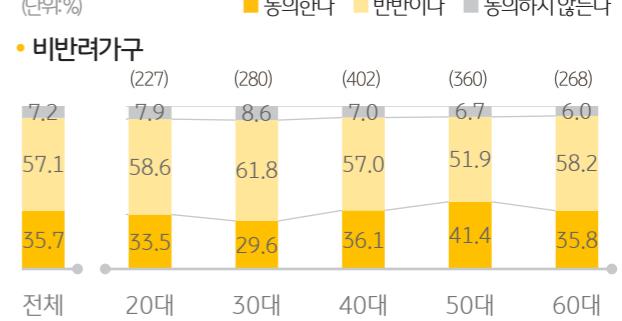
• 반려동물이 상해를 입힐 시 과실치상죄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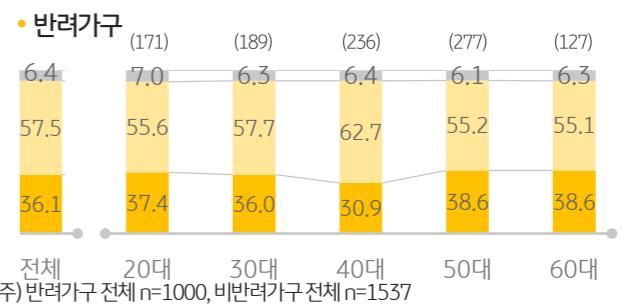
그림 I-13 | 반려동물 정보 표시 필요성과 표시 의향

(단위%)

• 비반려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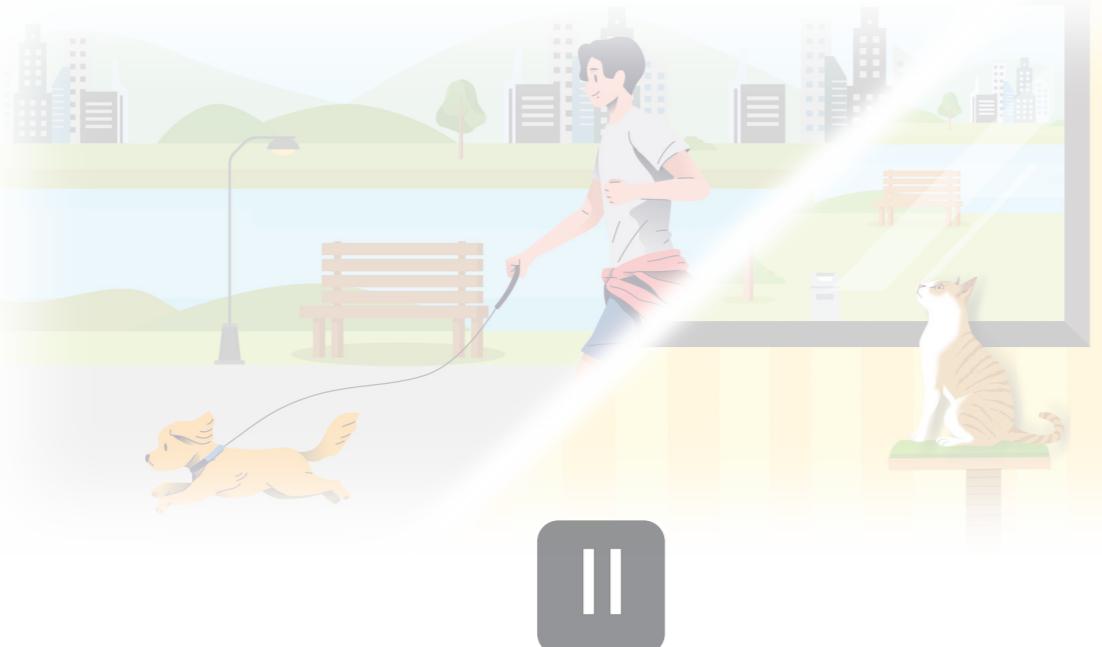


• 반려가구



주) 2021년 반려가구 n=279, 2023년 반려가구 n=463

주) 반려가구 전체 n=1000, 비반려가구 전체 n=1537



반려가구의 반려동물 양육 행태

01 | 반려동물의 실내외 생활

02 | 반려가구의 양육 만족도

03 | 반려가구의 양육 관심사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접어들어 언택트 문화 확산과 재택근무 확대 등으로 사람들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많아졌다.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재택근무 축소 등이 진행된 2022년부터 올해 초까지 반려 문화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1장에서는 반려동물 양육 현황을 살펴보고 반려가구와 비반려가구의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비교했다. 이후에는 반려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반려가구의 양육 행태와 반려 문화의 변화상을 분석했다.

본 장에서는 반려동물의 실내외 생활, 반려가구의 양육 관심사와 필요한 정보 등 반려가구의 반려동물 양육 행태에 대해 살펴본다.

New Findings Top 5



반려가구 80%는 혼자 있는 반려동물을 위해 TV를 켜 두거나 위탁시설을 이용했다.

- ◎ 반려동물이 반려인과 떨어져 있는 시간은 하루 평균 5시간 17분으로 2021년 5시간 40분, 2018년 6시간 3분에 비해 감소
- ◎ 집을 비울 때 반려동물을 위해 취하는 조치는 'TV나 조명 켜 놓기'(34.1%), '자동 먹이 공급 장치 설치하기'(27.6%), '냉난방 시설 가동 예약하기'(26.0%) 등이 있으며, 특히 '반려동물 위탁시설 이용하기'(33.5%)는 2021년(11.4%)에 비해 22.1%p 증가



반려가구 40.8%는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

- ◎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는 반려견가구나 집합주택에서 사는 가구에서 이용률이 높음
- ◎ 방문이나 위탁, 산책 돌봄 서비스 중 '위탁 돌봄' 서비스 이용률이 가장 높음
- ◎ 반려동물 유치원, 호텔, 동물병원 등 위탁 돌봄 서비스 시설이 늘면서 이용률이 상승



반려가구 67.3%는 반려동물 양육에 만족하나, 41.9%만이 타인에게 추천할 의향 있다.

- ◎ 반려가구의 반려동물 양육 만족도는 67.3%로 2021년 대비 5.8%p 상승했으며, 반려묘가구(1.0%p)보다 반려견가구(6.6%p)에서 큰 폭으로 만족도가 상승
- ◎ 반려동물을 계속 기르겠다는 반려가구는 62.8%로 2021년(61.6%)에 비해 소폭 증가
- ◎ 반려동물 양육을 타인에게 추천할 의향은 41.9%로 2021년(46.5%)에 비해 감소
- ◎ 양육 추천 의향은 부모자녀가구(1.7%p)보다 1인가구(13.3%p)와 부부가구(8.5%p)에서 더 크게 감소



반려가구의 반려동물 관련 최대 관심사는 '건강관리'와 '양육'이다.

- ◎ 반려가구 최대 관심사는 '건강관리'와 '양육'이고 그 외 여행이나 외출, 장례 등에도 관심
- ◎ 건강관리와 관련해 가장 큰 관심사는 '건강검진 등 관리 방법'과 '질병 진단 후 케어 방법'이고 그 외 '이상 행동 시 케어 방법', '비만 케어 방법' 등에도 관심
- ◎ 양육과 관련해 가장 큰 관심사는 '펫푸드'이고 뒤이어 '펫유치원/펫시터', '반려동물 거주 가능 집', '산책 메이트' 순으로 나타남



양육 정보는 '포털', '커뮤니티' 등 다양한 채널에서 수집하고 '동물병원'을 가장 신뢰했다.

- ◎ 반려동물 관련 정보를 얻는 주요 채널은 '포털사이트', '카페/블로그/커뮤니티', '유튜브'
- ◎ 과거에 비해 '가족/친구/지인', '동물병원', 'TV/라디오', '신문/잡지' 이용률은 감소
- ◎ 가장 신뢰하는 정보 채널은 '동물병원'이나 이용률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고, 그 외 '포털사이트', '유튜브'의 순으로 신뢰

01 반려동물의 실내외 생활

“

반려동물 80%는 매일 집에 혼자 있으며

반려인은 TV를 켜 놓거나 위탁시설에 맡겼다

반려가구 80%는 하루 중 잠시라도 반려동물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하고, 그때마다 집 안에 반려동물을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위탁시설을 이용하고 있었다. 반려동물이 집에 혼자 있는 경우는 팬데믹 이전인 2018년 84.3%에서 팬데믹 시기인 2021년 75.3%로 감소했다가 올 초 다시 80.3%로 증가했다. 하지만 반려동물이 혼자 있는 시간은 하루 평균 5시간 17분으로 2021년 5시간 40분, 2018년 6시간 3분에 비해 감소했다. 반려동물 유형별로는 반려묘가구, 반려견과 반려묘 둘 다 기르는 가구, 가구 유형별로는 1인가구와 부부가구,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맞벌이가구에서 반려동물이 혼자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림 II-1 | 반려동물이 혼자 있는지 여부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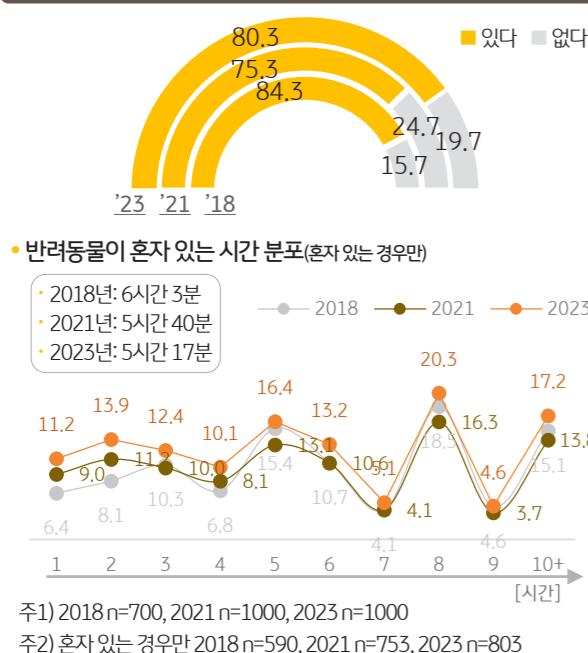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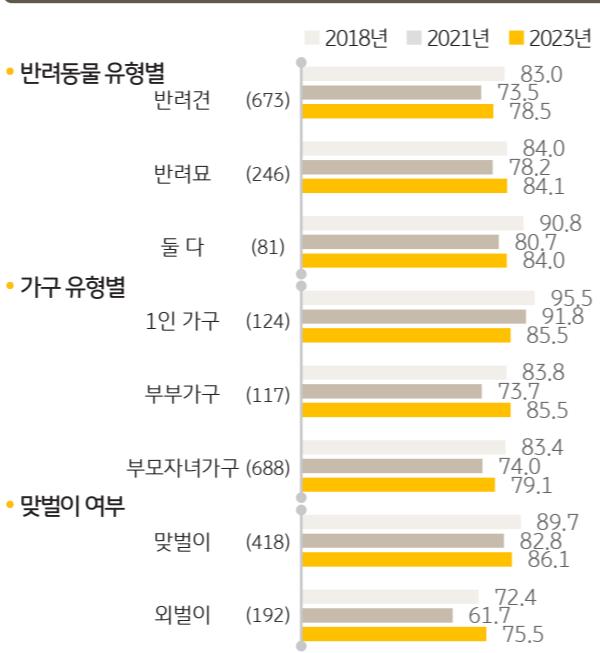


그림 II-2 | 반려 유형별 반려동물 혼자 있는 비중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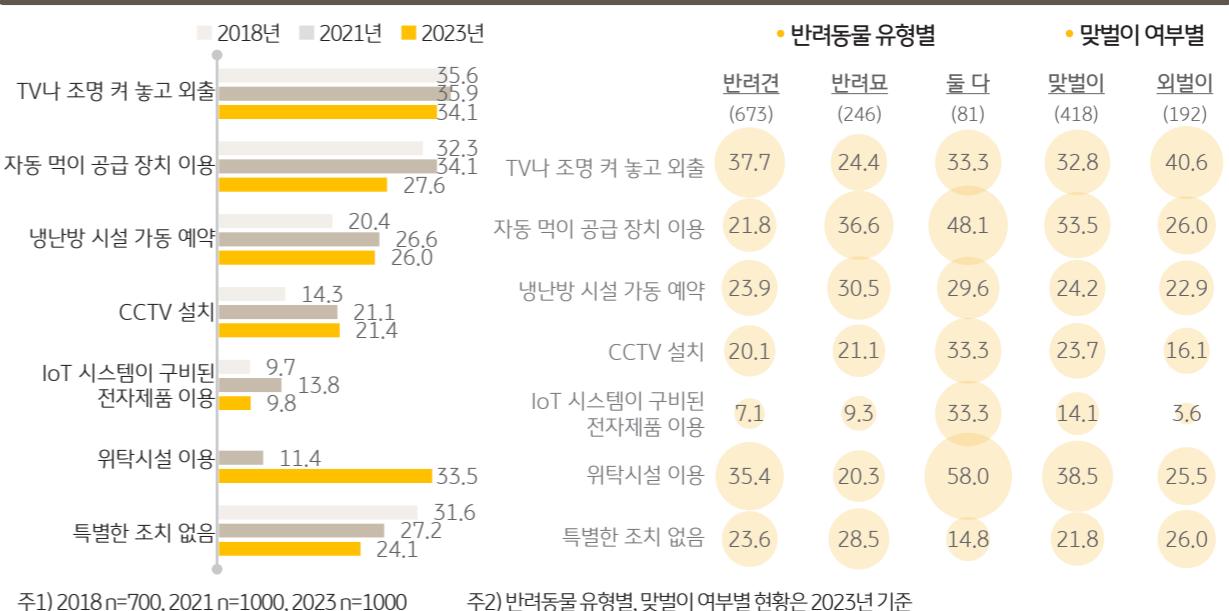
집에 혼자 있는 반려동물을 위해 반려인 75.9%는 전용 전자제품을 활용하거나, 위탁시설에 맡기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반려인이 조치를 취한 비율은 2018년 68.4%, 2021년 72.8%로 점차 증가했다. 반려인이 취하는 조치로는 ‘TV나 조명 켜 놓기’, ‘자동 먹이 공급 장치 설치하기’, ‘냉난방 시설 가동 예약하기’가 각각 34.1%, 27.6%, 26.0%로 높게 나타났다. 그 외 ‘CCTV 설치하기’(21.4%), ‘사물인터넷(IoT) 기반 가전제품 이용하기’(9.8%)도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2021년 새로 추가된 항목인 ‘반려동물 위탁시설 이용하기’가 33.5%로 2021년 11.4%에 비해 22.1%p 증가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TV나 조명 켜 놓기’는 반려가구에서 가장 많이 취하는 조치로 2018년 이후 35% 수준을 유지했다. ‘CCTV 설치하기’, ‘냉난방 시설 가동 예약하기’는 2021년과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자동 먹이 공급 장치 설치하기’는 27.6%로 2018년(32.3%)과 2021년(34.1%) 대비 4.7%p, 6.5%p 감소했다. 이는 위탁시설 이용이 늘면서 급식에 대한 부담이 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려동물 유형별로는 반려견과 반려묘 둘 다 기르는 가구(85.2%)가 조치를 취하는 비율이 높았다. 취하는 조치는 반려견을 ‘위탁시설’에 맡기는 경우가 58.0%로 가장 많았고, ‘자동 먹이 공급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도 48.1%도 많았다. 반려견과 반려묘 둘 다 기르는 가구에서는 두 동물의 양육 특성을 모두 반영하느라 다른 가구에 비해 취하는 조치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상대적으로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은 맞벌이가구에서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 특히 ‘반려동물 위탁시설 이용하기’는 맞벌이가구 38.5%로 외벌이가구(25.5%)에 비해 13.0%p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그림 II-3 | 집에 혼자 있는 반려동물을 위한 조치 (복수응답, 단위%)



“반려가구 53.3%는 반려동물을 혼자 두는 것을 걱정했고,
47.8%는 여행을 포기한 적도 있다”

반려동물이 집에 혼자 있을 때 ‘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반려인은 46.7%(7점 리커트 척도에서 ‘매우 잘 있음을 것이다’ 7점과 ‘어느 정도 잘 있을 것이다’ 6점 합계)에 그쳤고, 절반 이상인 53.3%는 반려동물이 집에 혼자 있는 것에 대해 걱정했다. 특히 반려견만 기르는 가구는 ‘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이 42.5%로 안심하고 외출하는 경우가 적었다. 거주하는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보다 집합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서 반려동물이 혼자 있는 것을 걱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행은 더욱 힘들어했다. 최근 2년 이내 여행을 포기한 경우가 있는지 묻는 문항에 반려가구 47.8%가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가구 유형별로는 반려견가구에서 여행을 포기한 경우가 많았다. 반려견 1마리를 기르는 가구 50.3%, 반려견과 반려묘를 각각 1마리를 기르는 가구 53.7%가 여행을 포기한 경험이 있었다. 이들은 반려견만 2마리 이상 기르는 가구(49.1%)에 비해 여행을 포기한 경험이 많았다.

혼자 생활이 가능하다고 알려진 반려묘를 기르는 가구, 특히 반려묘가 2마리 이상인 경우 서로 의지할 거라는 생각에서 여행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었다.

“반려가구 41%는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를 이용했고,
주로 반려동물 유치원, 호텔 등의 위탁시설에 맡겼다”

반려가구 40.8%가 반려동물을 기르면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 돌봄, 위탁 돌봄, 산책 돌봄 등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은 반려견가구가 반려묘가구에 비해 높았다. 반려동물 유형별로는 반려견만 기르는 가구는 41%, 반려견과 반려묘 둘 다 기르는 가구는 4분의 3 이상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었다. 반려견가구의 경우 반려견 수가 많을수록 돌봄 서비스 이용률이 높았다. 거주 주택 유형별로는 집합주택에 사는 가구가 단독주택에 사는 가구에 비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많았다.

반려가구가 이용한 돌봄 서비스는 ‘위탁 돌봄’ 서비스가 가장 많았다. 이는 반려동물 유치원, 호텔, 동물병원 등 위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늘면서 이용률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위탁 돌봄 서비스 이용률이 가장 높은 경우는 반려견과 반려묘 둘 다 기르는 가구이고, 반려견과 반려묘 각각 1마리를 기르는 가구의 76.9%, 3마리 이상 기르는 가구의 79.6%도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방문 돌봄’ 서비스의 경우 반려묘가구에서 이용률이 높았다. ‘반려묘 1마리’를 기르는 가구의 9.6%, ‘반려견과 반려묘 둘 다’ 기르는 가구의 24.1%, ‘3마리 이상’ 기르는 가구의 33.3%가 방문 돌봄 서비스를 이용했다. 반려견을 위한 서비스인 ‘산책 돌봄’ 서비스는 ‘반려견과 반려묘 둘 다’ 기르는 가구에서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그림 II-4 | 집에 혼자 잘 있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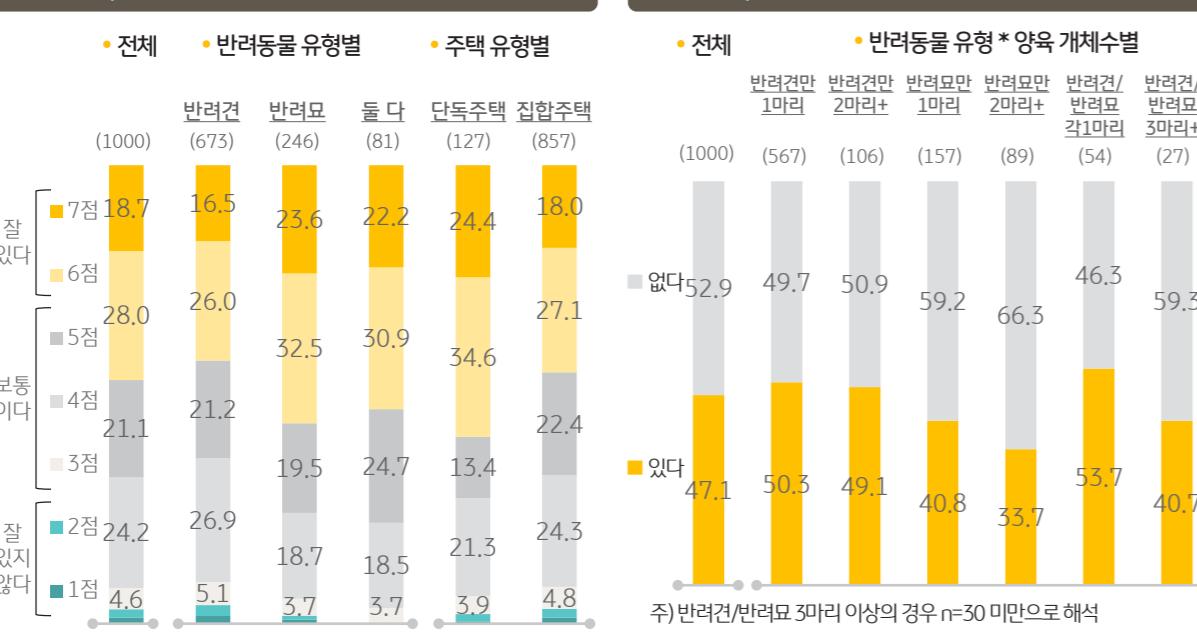


그림 II-5 | 반려동물 때문에 여행을 포기한 경험(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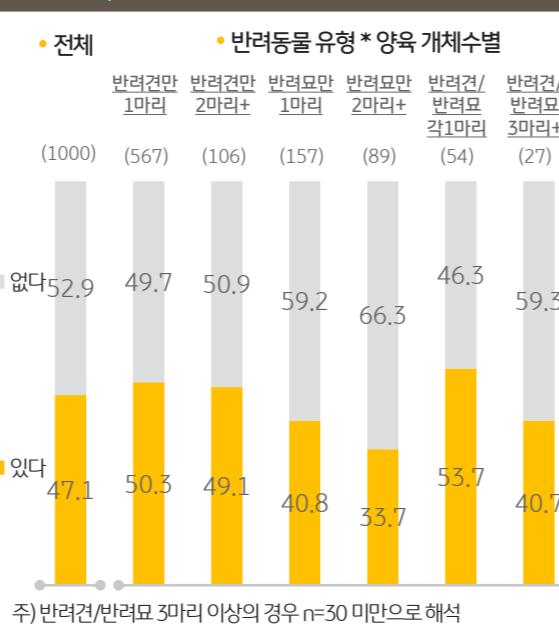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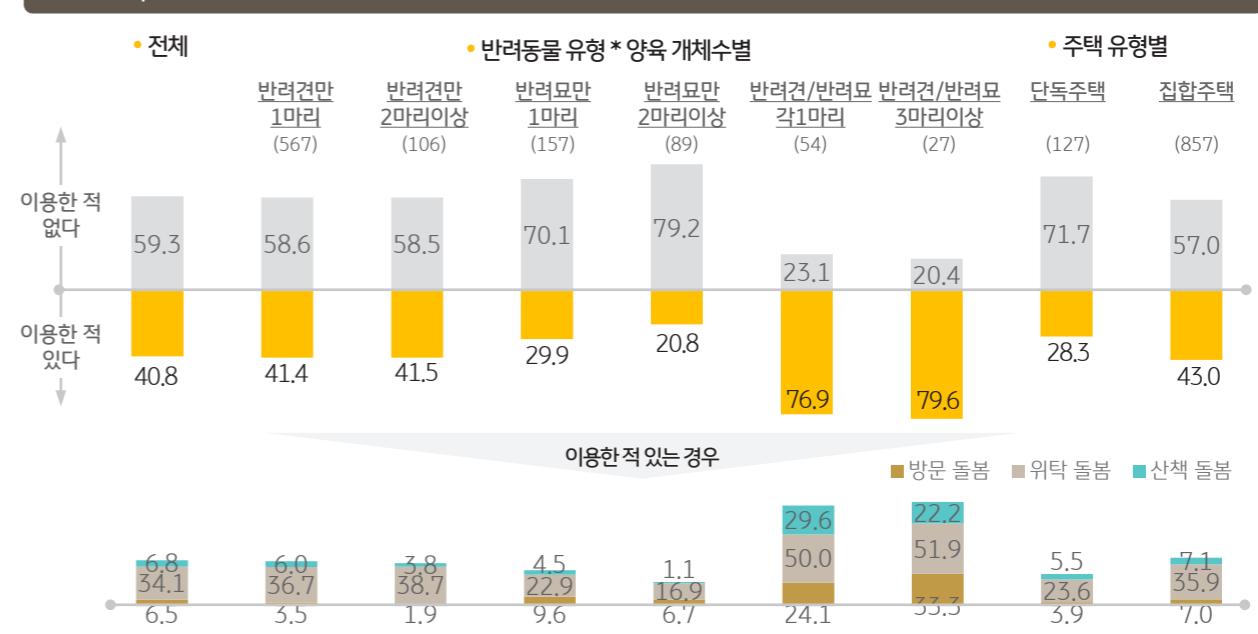


그림 II-6 | 돌봄 서비스 이용 현황



“
반려견가구는 운동/산책/외출 등 실외 활동으로,
반려묘가구는 실내 놀이로 스트레스를 풀어주었다

반려견은 집 안에만 있으면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어 산책이나 외출을 시켜줘야 한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반면 외부 활동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는 반려묘의 경우 집 안에서의 놀이가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다.

반려견이 외출이나 산책 등 실외 활동으로 보내는 시간, 반려묘가 실내 놀이로 보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반려견가구는 하루 평균 주중 58분, 주말 1시간 23분을 반려견과 운동, 산책, 외출 등 실외 활동으로 시간을 보냈다. ‘하루 평균 1시간 이상’ 실외 활동을 하는 경우는 주중 21.7%, 주말 41.3%로 주말이 월등히 많았다. 기르는 반려견 수에 따른 실외 활동 시간의 차이는 없었고, 반려견 수와 관계없이 한꺼번에 운동이나 산책을 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반려묘가구는 하루 평균 주중 1시간 7분, 주말 1시간 52분을 반려묘와 실내 놀이로 시간을 보냈다. ‘하루 평균 1시간 이상’ 실내 놀이를 하는 경우는 주중 28.9%, 주말 43.5%로 역시 주말이 많았다. 기르는 반려묘 수에 따라서도 놀이 시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반려묘 수가 많을수록 반려인이 놀아주는 시간이 감소했다. 이는 반려묘끼리 놀 수 있다고 생각해 반려인이 놀아주는 시간을 줄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림 II-7 | 반려견의 실외 활동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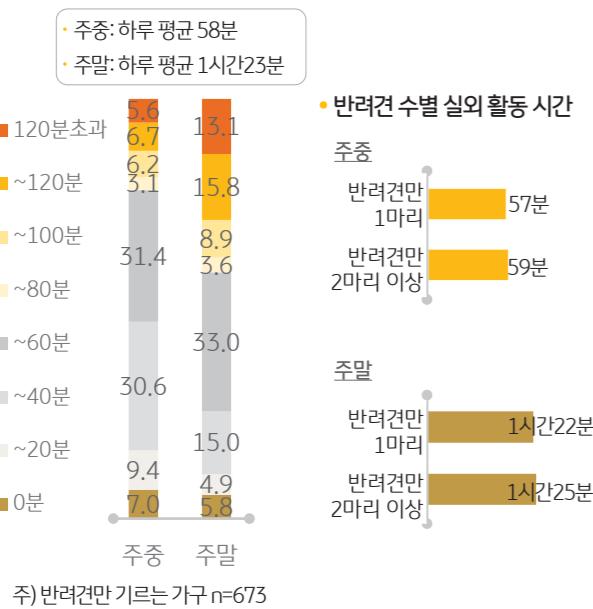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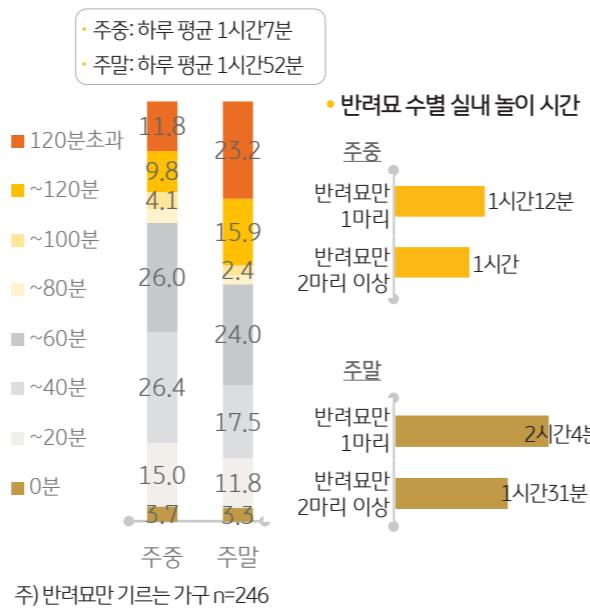


그림 II-8 | 반려묘의 실내 놀이 시간



“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할 때 반려가구 86.9%는
배변 처리 도구, 목줄 등을 챙겼고, 자가용을 주로 이용했다.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 준비물 없이 나가는 가구는 13.1%에 불과했다.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 지참하는 준비물은 ‘배변 처리 도구’와 ‘목줄/하네스’가 가장 많았고 ‘사료나 간식’, ‘의류’, ‘인식표’ 등으로 나타났다. 반려묘에 비해 반려견과 외출할 때 지참할 준비물이 월등히 많았다. ‘배변 처리 도구’와 ‘목줄/하네스’는 각각 90.0%, 89.7%로 대부분의 반려가구가 지참했다. 반려견의 경우 반려동물 ‘의류’(43.5%)와 ‘인식표’(38.0%)도 지참해야 할 중요 품목이었다. 반면 반려묘의 경우에는 외부 탈출을 차단하는 ‘이동가방/포대기’(22.4%), ‘유모차/케이지’(18.3%)가 중요한 품목이었다.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 이용하는 이동 수단은 ‘자가용’(78.7%)이 가장 많았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2021년(69.7%)보다 비율이 증가했다. 반면 두 번째로 많은 ‘도보’는 16.5%로 2021년(21.1%)에 비해 감소했다. 자가용 이용이 늘면서 ‘택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은 2021년에 비해 줄었다. 특히 반려동물 전용 이동 수단인 ‘펫택시’는 3.9%로 2021년(6.2%) 대비 2.3%p 감소했다. ‘자가용’은 반려견만 기르거나, 반려묘만 기르는 가구는 2021년 대비 이용률이 증가한 반면, 반려견과 반려묘 둘 다 기르는 가구는 이용률이 감소했다. 2021년 대비 이용률이 감소한 대중교통은 전반적으로 반려견가구보다 반려묘가구에서 감소폭이 커졌다.

그림 II-9 | 반려동물 외부 활동 시 준비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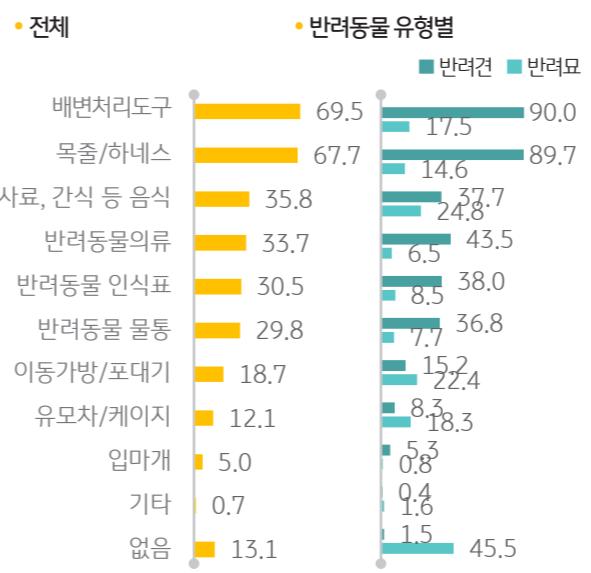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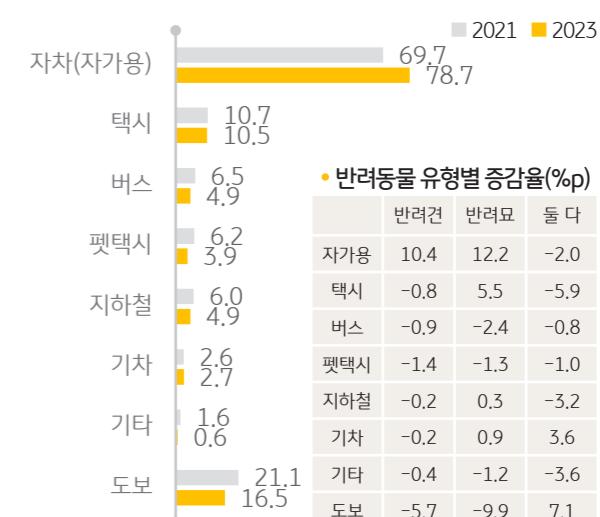


그림 II-10 | 반려동물과 외출 시 이동수단(복수응답, 단위%)



02 반려가구의 양육 만족도

“

**반려가구 67.3%가 반려동물 양육에 만족했고,
향후 기를 의향도 소폭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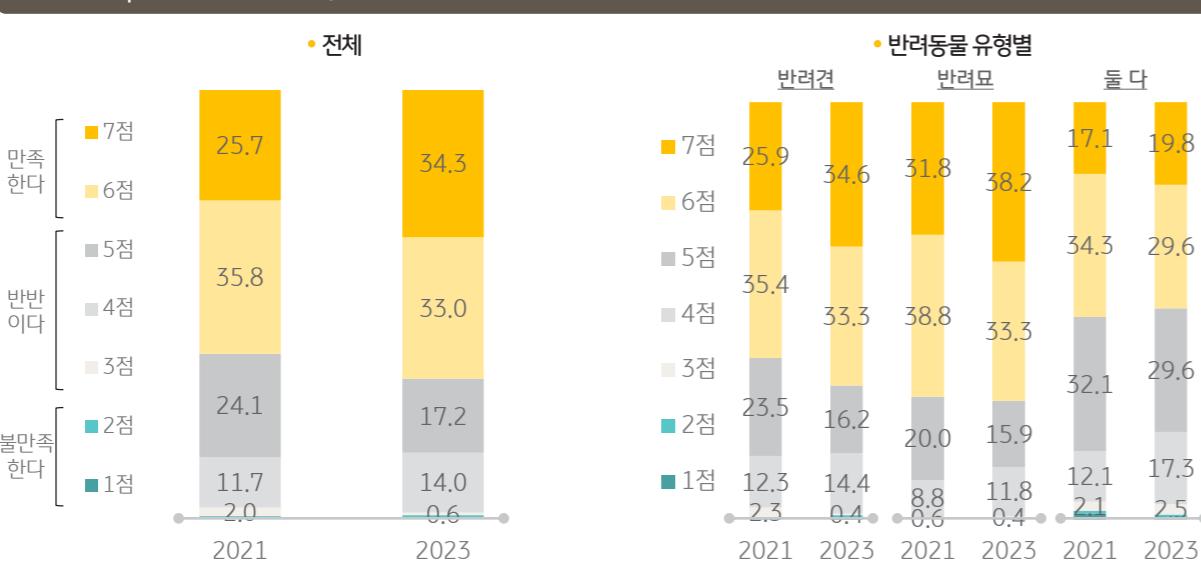
반려동물을 기르면서 ‘만족한다’(6점과 7점 합계)는 반려인은 67.3%로 2021년(61.5%) 대비 5.8%p 증가했다. 2021년 대비 ‘만족한다’는 응답률은 반려견가구는 6.6%p 증가한 반면 반려묘가구는 1.0%p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려묘와 반려견 둘 다 기르는 가구의 경우 2021년 대비 ‘만족한다’는 응답률이 2.0%p 감소했다.

그러나 평균 점수는 ‘만족한다’는 응답률이 증가한 반려묘가구의 경우 2021년 5.92점에서 2023년 5.70점으로 떨어진 반면, ‘만족한다’는 응답률이 감소한 반려견과 반려묘 둘 다 기르는 가구의 경우 2021년 5.44점에서 2023년 5.69점으로 올라갔다. ‘만족한다’는 응답률이 가장 크게 증가한 반려견가구의 경우 평균 점수 또한 2021년 5.69점에서 2023년 5.92점으로 높아졌다.

반려동물을 앞으로 계속 기를 의향이 있는지 묻는 설문에 ‘계속 기르겠다’(6점과 7점 합계)고 응답한 반려가구 62.8%로 2021년(61.6%)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반려동물 양육을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구의 경우 ‘앞으로 계속 기르겠다’는 응답은 82.0%로 높았다. 양육 만족도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가구의 경우 ‘앞으로 계속 기르겠다’(23.3%)보다 ‘계속 기를 생각이 반반이다’(73.3%)는 응답이 월등히 많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양육 만족도와 양육 지속 의향 사이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려가구의 양육 만족도와 함께 양육 지속 의향도 상승해 당분간 반려가구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양육 만족도에 따른 양육 지속 의향의 차이는 반려동물 유형보다 가구 유형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유형별로 ‘앞으로 계속 기르겠다’는 응답은 반려견가구의 경우 62.4%로 2021년(61.4%) 대비 1.0%p, 반려묘 가구의 경우 2.4%p 줄어든 반면 반려견과 반려묘 둘 다 기르는 가구는 1.3%p 늘었다. 가구 유형별로 ‘앞으로 계속 기르겠다’는 응답은 1인가구의 경우 59.7%로 2021년(65.8%) 대비 6.1%p, 부부가구의 경우 4.0%p 줄어든 반면 부모자녀가구는 3.1%p 늘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외부 활동이 줄면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간이 증가한 1인가구나 부부가구의 양육 스트레스가 늘어난 것도 이유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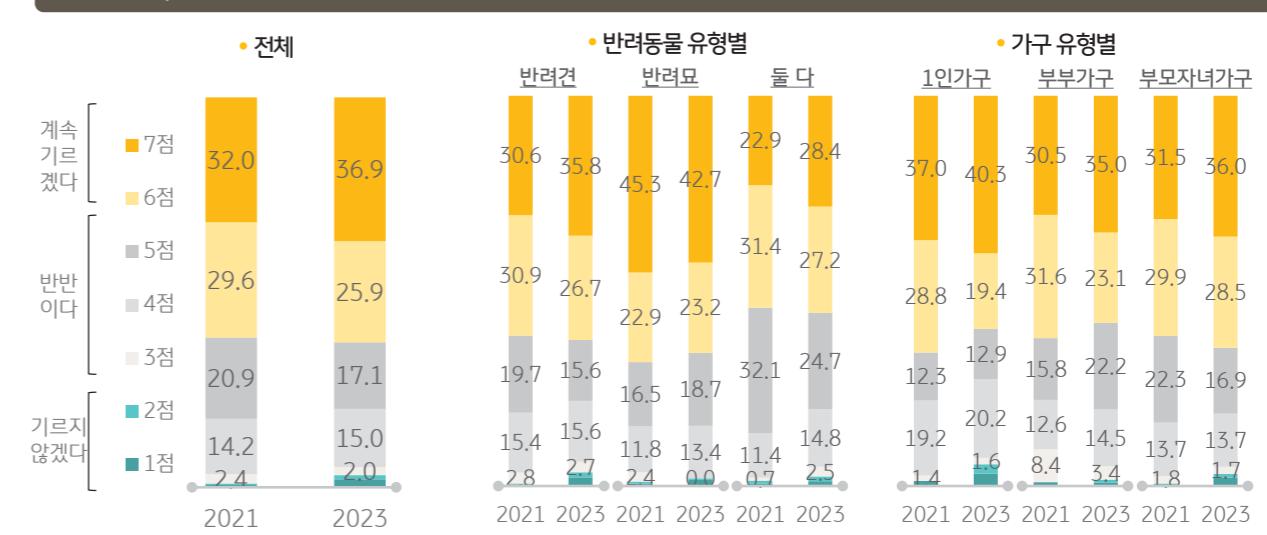
그림 II-11 | 반려가구의 반려동물 양육 만족도



주1) ①매우불만족한다'부터 '④반반이다', '⑦매우만족한다'의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주2) 전체 2021 n=1000, 2023 n=1000, 반려견 2021 n=690, 2023 n=673, 반려묘 2021 n=170, 2023 n=246, 둘다 2021 n=140, 2023 n=81

그림 II-12 | 반려가구의 반려동물 양육 지속 의향



주1) 점수는 ‘지속 의향이 전혀 없다’(1점) ~ ‘지속 의향이 매우 많다’(7점)의 리커트 척도로 측정

주2) 전체 2021 n=1000, 2023 n=1000, 반려동물 유형별 반려견 2021 n=690, 2023 n=673, 반려묘 2021 n=170, 2023 n=246, 둘다 2021 n=140, 2023 n=81, 가구 유형별 1인가구 2021 n=73, 2023 n=124, 부부가구 2021 n=95, 2023 n=117, 부모-자녀가구 2021 n=812, 2023 n=688

“ 타인에게 양육을 추천할 의향은 4.6%p 줄었고, 양육 어려움으로 ‘여행 가기 힘들다’는 점을 꼽았다

반려동물 양육을 타인에게 추천할 의향을 통해서도 양육 만족도를 파악할 수 있다. 반려가구 3분의 2 이상이 반려동물 양육에 만족하고 있었으나, 타인에게 ‘추천하겠다’(6점과 7점 합계)는 응답은 41.9%로 2021년에 비해 4.6%p 감소했다.

반려가구의 특성에 따라 반려동물 양육 추천 의향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양육 추천 의향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유형별로는 반려묘가구에서 타인에게 ‘추천하겠다’는 응답이 42.7%로 2021년 50.6%에 비해 7.9%p 감소했다. 반려견가구의 경우 2021년 대비 4.4%p 감소했고, 반려견과 반려묘 둘 다 기르는 가구는 0.2%p 감소하는데 그쳤다.

가구 유형별로는 반려동물 양육 추천 의향의 차이를 보였다. 1인가구의 양육 추천 의향의 감소폭이 가장 커고, 부부가구에서도 타인에게 ‘추천하겠다’는 응답이 크게 줄었다. 1인가구의 경우 타인에게 ‘추천하겠다’는 응답이 34.7%로 2021년 47.9%에 비해 13.2%p 감소했다. 부부가구의 경우 2021년 대비 8.5%p 감소했고, 부모자녀 가구의 1.7%p 감소하는데 그쳤다.

반려가구의 반려동물 양육 추천 의향이 감소한 이유를 찾기 위해 반려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면서 느끼는 애로 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가장 큰 애로사항은 ‘여행 가기 힘들다’(37.4%), ‘건강 이상 시 대처하기 힘들다’(34.4%), ‘배설물이나 텔 관리가 번거롭다’(34.1%), ‘건강 이상을 파악하기 힘들다’(32.9%)는 점을 꼽았다.

지난 조사에서 30.5%로 3위를 차지했던 ‘여행 가기 힘들다’가 이번 조사에서는 6.9%p 증가하면서 1위에 올랐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고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하게 되면서 대두되는 애로사항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 2021년 대비 ‘비용이 많이 듈다’와 ‘건강 이상 시 대처하기 힘들다’는 증가한 반면 ‘소음으로 항의가 들어온다’와 ‘위생상 좋지 않고 냄새가 난다’는 각각 4.7%p, 4.2%p 감소했다.

반려동물 양육 추천 의향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1인가구와 부부가구, 반려묘가구를 대상으로 애로사항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았다. 1인가구는 ‘손이 많이 간다’와 ‘건강 이상 시 대처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부부가구는 ‘건강 이상 시 대처하기 힘들다’와 ‘비용이 많이 듈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한편 반려묘가구는 ‘건강 이상 시 대처하기 힘들다’와 ‘손이 많이 간다’는 점을 주된 어려움으로 꼽았다. 그리고 올해 처음 조사에 포함된 항목인 ‘건강 이상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에 대해 가장 크게 인식하는 가구이기도 했다.

그림 II-13 | 반려동물 양육을 타인에게 추천 의향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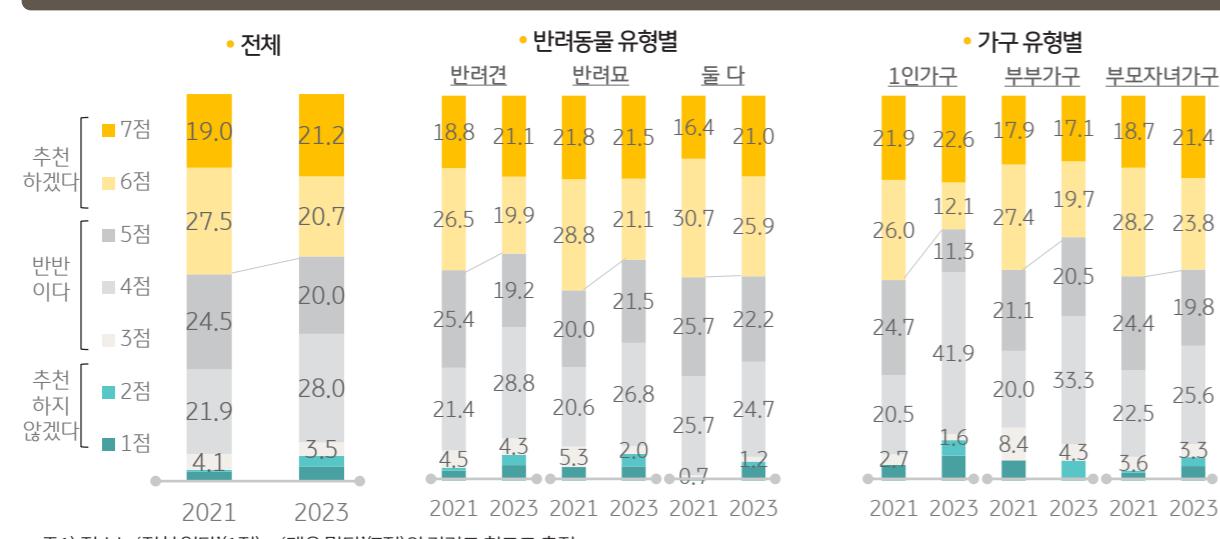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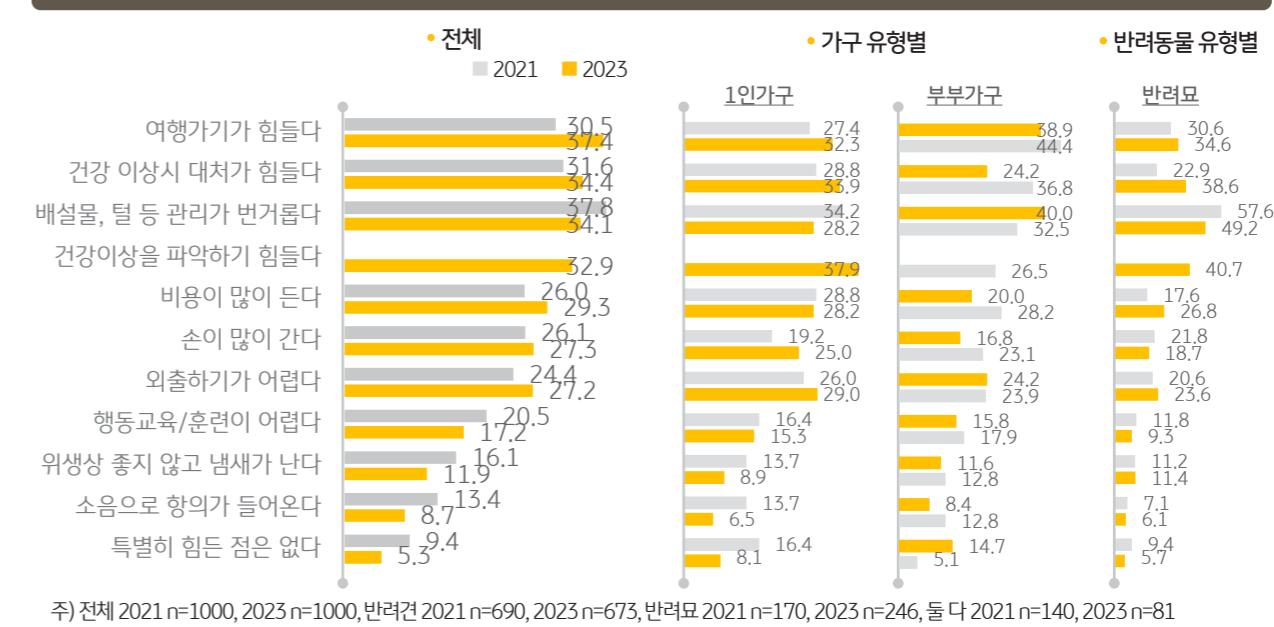


그림 II-14 | 반려동물 양육 시 애로사항



03 반려가구의 양육 관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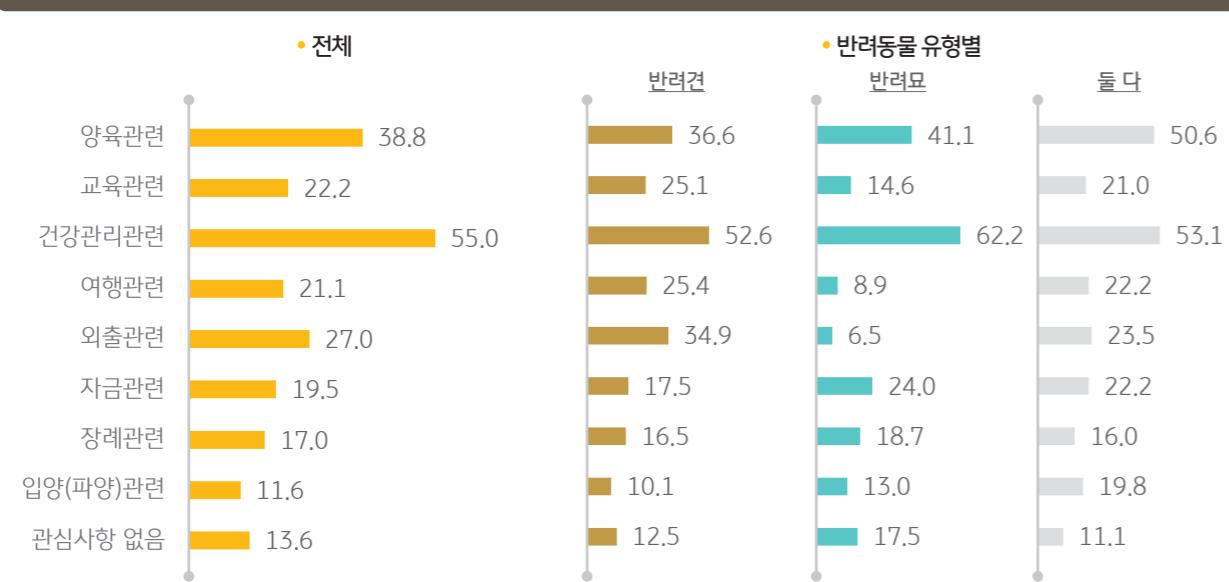
“

**반려가구의 반려동물 양육 관련 주요 관심사는
'건강관리'와 '양육'이다**

반려가구는 반려동물 양육과 관련하여 다양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과 관련해 관심사가 있는지 문의한 결과 반려가구의 86.4%가 '있다'고 응답했다. 반려동물 유형별로는 반려견가구가 반려묘가구보다 관심사가 많았고, 반려견과 반려묘 둘 다 기르는 가구는 더 많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다.

반려가구의 관심사는 반려동물 '건강관리' 관련 이슈가 가장 많았는데, 반려가구의 55.0%가 꼽았다. 그 다음으로 반려동물 식사나 거주 환경 등 '양육' 관련 이슈, '외출' 관련 이슈, '교육' 관련 이슈, '여행' 관련 이슈 등의 순이었다. 반려묘가구는 다른 반려가구에 비해 '건강관리' 관련 이슈와 '양육' 관련 이슈에 관심이 많았고, '자금' 관련 이슈와 '장례'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반려견가구보다 높은 관심을 보였다. 반려견과 반려묘 둘 다 기르는 가구는 다른 가구에 비해 '장례' 관련 이슈를 제외한 다양한 영역에서 관심이 많았다.

그림II-15 | 반려인의 반려동물 양육 관련 최근 관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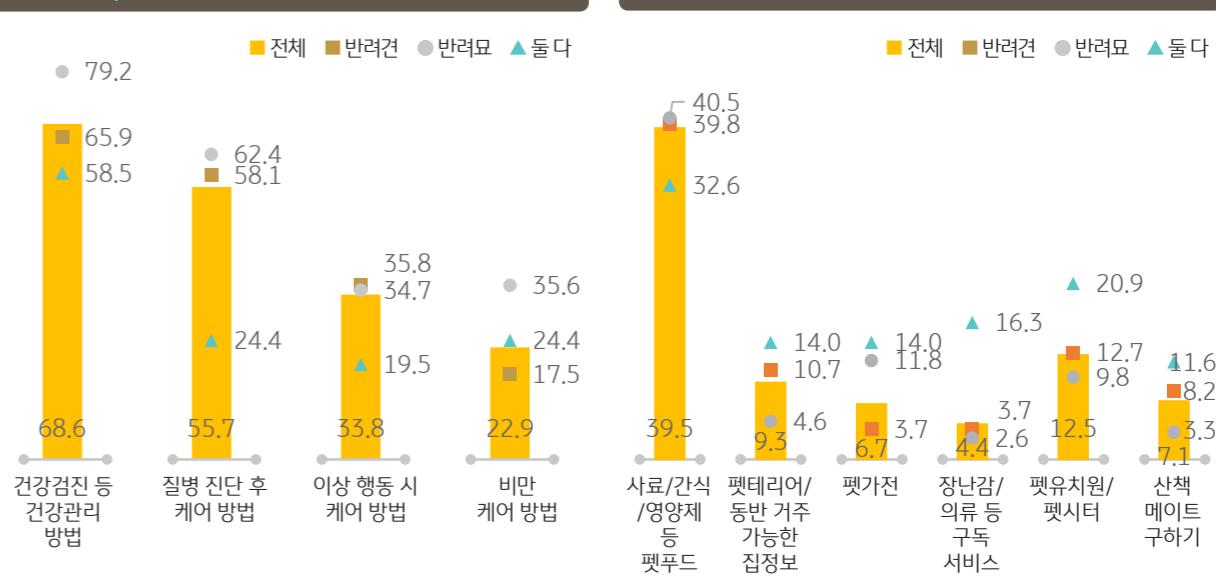
주) 전체 n=1000, 반려견 n=673, 반려묘 n=246, 둘다 n=81

반려가구의 주요 관심사인 '건강관리'와 '양육' 관련 이슈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건강관리'와 관련해서는 '건강 검진 등 관리 방법'(68.6%)과 '질병 진단 후 케어 방법'(55.7%)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았다. 그 외 '이상 행동 시 케어 방법', '비만 케어 방법'에 대해서도 각각 33.8%, 22.9%가 관심을 표했다. 반려동물 유형별로는 반려묘가구에서 다양한 영역에 관심을 보였다. '건강검진 등 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79.2%, '질병 진단 후 케어 방법'은 62.4%로 반려견가구보다 관심도가 높았고, '이상 행동 시 케어 방법'과 '비만 케어 방법'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다.

'양육'과 관련해 가장 관심도가 높은 항목은 '사료/간식/영양제 등 펫푸드'로 39.5%를 차지했다. 반려동물 보육을 위한 '펫유치원/펫시터'(12.5%)가 2순위로 나타났으나 1순위와 큰 차이를 보였다. 그 외 '반려동물과 함께 살 수 있는 집'(9.3%), '산책 메이트 구하기'(7.1%) 등의 순이었다. '펫유치원/펫시터'는 반려견가구(12.5%)에 한정된 관심사일 것으로 여겼으나 반려묘가구에서도 9.8%가 관심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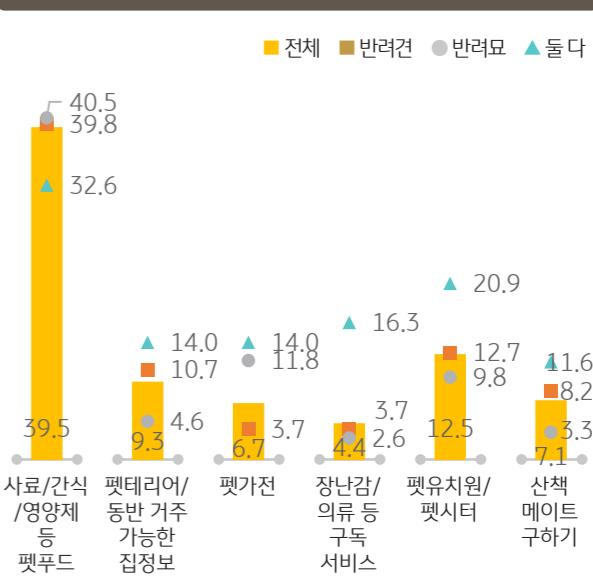
최근 트렌드인 생활 구독 서비스와 관련해 반려동물 양육에도 채택할지 문의한 결과 다른 사항에 비해 관심도가 낮았다. 그러나 반려견과 반려묘를 여러 마리 함께 기르는 가구에서는 '장난감이나 의류 구독 서비스'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향후 사료에서 장난감, 의류까지 반려동물과 관련해 다양한 분야에서 구독 서비스가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II-16 | 반려동물 건강 관련 관심사 (1+2+3순위, 단위: %)



주) 전체 n=1000, 반려견 n=673, 반려묘 n=246, 둘다 n=81

그림II-17 | 반려동물 양육 관련 관심사 (1+2+3순위, 단위: %)



주) 전체 n=1000, 반려견 n=673, 반려묘 n=246, 둘다 n=81

양육 정보는 ‘포털’, ‘커뮤니티’ 등 다양한 채널에서 수집하고, ‘동물병원’을 가장 신뢰했다

반려인이 반려동물 관련 정보를 얻는 주된 채널은 ‘포털사이트’(50.9%), ‘카페/블로그/커뮤니티’(36.9%), ‘유튜브’(34.6%) 순으로 나타났다. ‘유튜브’를 통한 양육 정보 수집은 2021년 37.4%로 2위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카페/블로그/커뮤니티’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그 외 ‘가족/친구/지인’(24.2%)을 통해 정보를 얻거나 ‘동물병원’(21.4%)에서 직접 확인하는 경우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 비해 ‘가족/친구/지인’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는 10%p, ‘동물병원’에서 직접 확인하는 경우는 4.4%p 감소했다. 특히 ‘동물병원’에서 직접 확인하는 경우는 2018년 27.7%, 2021년 25.8%에 이어 계속 감소 했다. 전통 매체인 ‘TV/라디오’, ‘신문/잡지’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도 감소하는 추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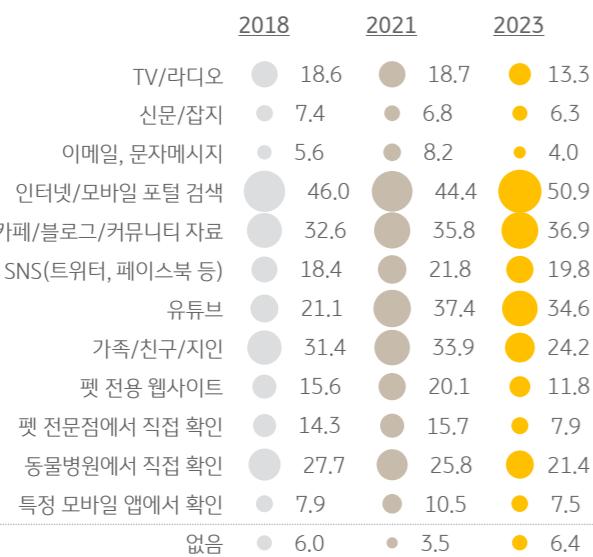
반려동물 유형별로는 반려묘와 반려견을 둘 다 기르는 가구나 반려묘를 기르는 가구에서 좀 더 다양한 채널에서 양육 정보를 얻고 있었다. 특히 둘 다 기르는 반려가구는 ‘펫 전용 웹사이트’나 ‘가족/친구/지인’, ‘특정 모바일 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려동물 양육 정보를 수집하는 채널 중 반려가구에서 가장 신뢰하는 곳은 ‘동물병원’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었다. 대면 채널인 ‘동물병원’을 통한 정보 수집 비율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만, 가장 신뢰하는 채널을 묻는 설문에는 2018년 21.1%, 2021년 20.3%가 응답해 신뢰성은 변함없었다. 그 외 ‘포털사이트’(11.9%), ‘유튜브’(11.5%)는 갈수록 신뢰도가 상승하는 반면 ‘가족/친구/지인’은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었다.

반려동물 유형에 따라 신뢰하는 채널에 차이가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반려가구는 ‘동물병원’, ‘포털사이트’, ‘유튜브’, ‘TV/라디오’를 통해 얻는 정보를 신뢰하는 경우가 많았다. ‘TV/라디오’에 대해서는 반려견가구의 10.7%가 가장 신뢰하는 채널이라고 응답한 반면 반려묘가구는 4.5%, 둘 다 기르는 가구는 3.7%에 그쳐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낮았다. 반려묘가구는 ‘동물병원’, ‘유튜브’, ‘포털사이트’를 통해 얻는 정보를 신뢰하는 경우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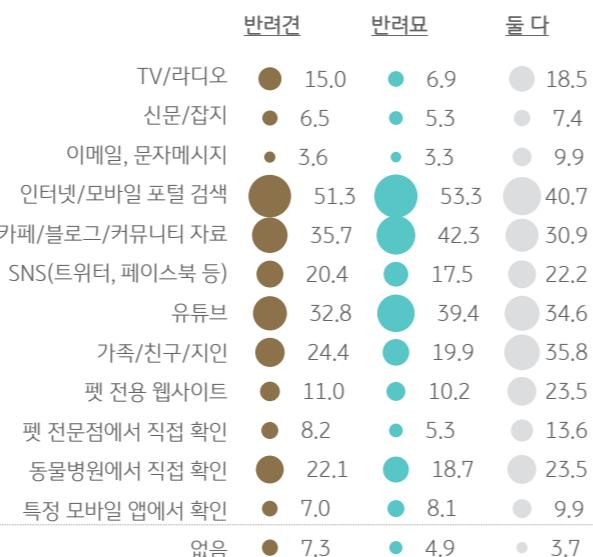
반려견과 반려묘 둘 다 기르는 가구는 반려견가구나 반려묘가구와는 달리 신뢰하는 정보 채널이 다양했다. ‘동물병원’에서 직접 확인하는 정보를 신뢰하는 비율은 13.6%로 다른 반려가구에 비해 10%p 낮은 반면, ‘펫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얻는 정보를 신뢰하는 비율은 13.6%로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이들은 반려견과 반려묘를 모두 기르는 만큼 여러 채널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신뢰 채널도 다방면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II-18 | 양육 정보 수집 채널 (복수응답,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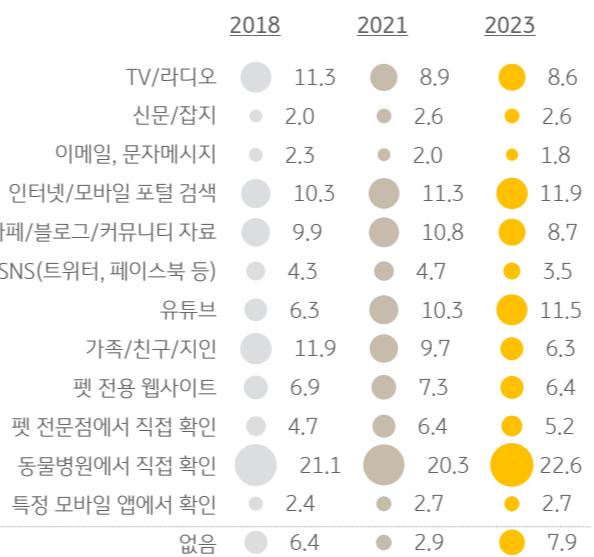
주) 2018 n=700, 2021 n=1000, 2023 n=1000

그림 II-19 | 반려동물 유형별 활용 채널 (복수응답,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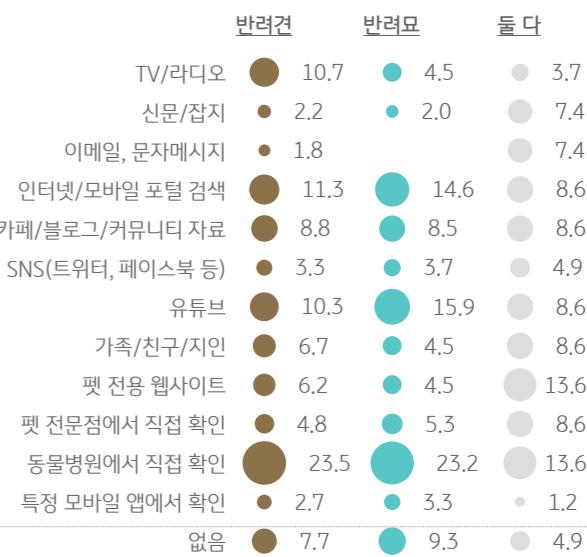
주) 2023년 기준, 반려견 n=673, 반려묘 n=246, 둘다 n=81

그림 II-20 | 가장 신뢰하는 양육 정보 채널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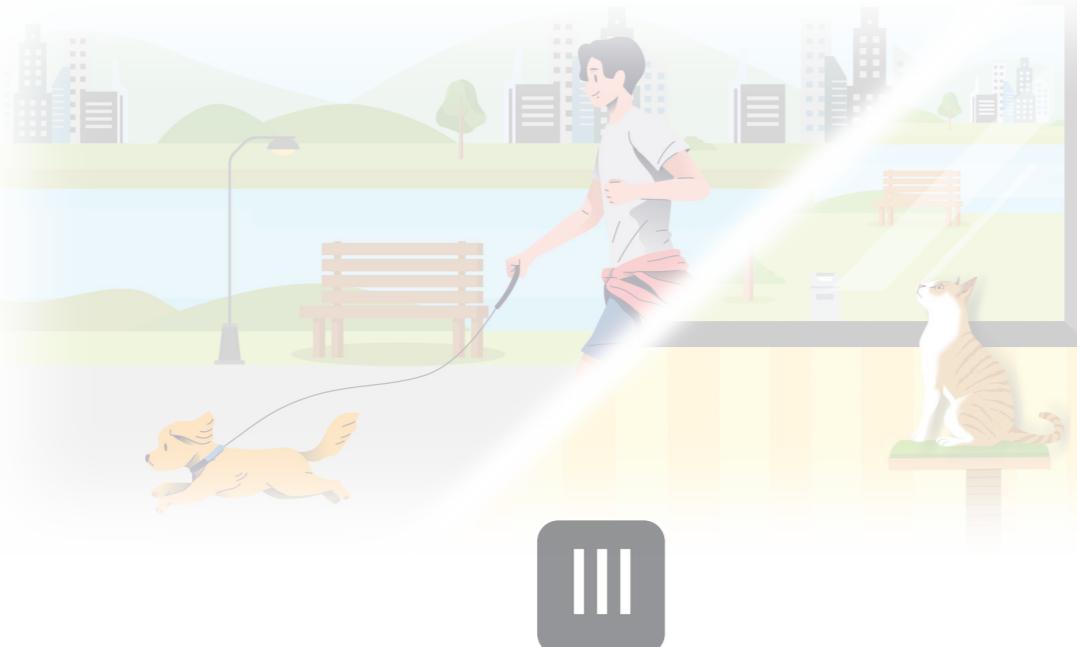


주) 2018 n=700, 2021 n=1000, 2023 n=1000

그림 II-21 | 유형별 가장 신뢰하는 정보 채널 (단위%)



주) 2023년 기준, 반려견 n=673, 반려묘 n=246, 둘다 n=81



반려가구의 반려동물 생애 지출

01 | 반려동물 입양비

02 | 반려동물 양육비

03 | 반려동물 장례비

04 | 반려동물 양육 자금

05 | 반려동물 전용 보험

반려동물 생애는 출생부터 사망까지지만, 반려가구 입장에서는 처음 입양하는 단계부터 사망 후 장례를 마치는 단계까지라고 볼 수 있다. 반려가구는 반려동물 생애 주기별로 발생하는 비용을 예상하고 준비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이에 관한 정보가 많지 않다. 분양비부터 양육비, 치료비, 장례비 등 반려동물 생애 주기별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연구와 조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본 장에서는 반려가구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알아보고, 자금을 어떻게 충당하는지 살펴본다.

III

New Findings Top 5



분양비는 평균 28만 2천 원으로 2021년 대비 5만 6천 원 증가했다.

- ◎ 반려동물 분양비는 평균 28만 2천 원으로 2021년 22만 6천 원에 비해 5만 6천 원 증가
- ◎ 분양비 증가 이유는 ‘전문 브리더’, ‘반려동물 복합매장’, ‘일반 애견센터’를 통한 분양비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



양육비는 월평균 15만 4천 원, 사료비와 간식비 등 식비 지출이 절반을 차지했다.

- ◎ 양육비에서 ‘사료비’와 ‘간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0.8%로 2021년 51.2%과 비슷한 수준
- ◎ 양육비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3.0%로 2021년 2.4%에 비해 소폭 증가했고, 반려묘가구보다 반려견가구에서 지출 증가



반려가구 73.4%가 반려동물 치료비를 지출했고, 규모는 78만 7천 원이었다.

- ◎ 반려가구가 지출한 반려동물 치료비는 평균 78만 7천 원으로 2021년 대비 31만 9천 원 증가
- ◎ 치료비는 ‘정기검진이나 CT, MRI 등 장비검진’(51.9%)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피부 질환 치료’(39.6%), ‘사고/상해 치료’(26.4%), ‘치과 질환 치료’(22.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반려견과 반려묘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비뇨기 질환 치료’로 반려묘는 18.2%가 치료비를 지출한 반면 반려견은 6.7%에 그침



반려동물 장례 시 과거에는 직접 ‘매장’, 향후에는 장묘 시설을 이용해 ‘화장’할 계획이다

- ◎ 반려동물과의 이별한 펫로스가구는 전체 반려가구의 43.3%를 차지
- ◎ 펫로스가구 58.7%가 직접 ‘매장’했으며 화장 후 ‘장묘 시설’을 이용한 경우는 29.6%에 불과 했고, 장묘 시설을 이용한 가구는 장례비로 평균 38만 원 지출
- ◎ 반려가구 64.5%는 향후에는 화장 후 수목장을하거나, 메모리얼 스톤을 제작하거나, 봉안당에 안치하는 등 장묘 시설을 이용할 계획이며, 장례 비용은 48만 1천 원을 예상



반려동물 양육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반려가구는 21.5%에 불과했다.

- ◎ 반려동물 전용 자금을 운용하는 가구는 평균 242만 7천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반려가구 96.7%가 자금 마련을 위해 매월 평균 25만 9천 원을 저축
- ◎ 전용 자금은 반려동물 생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운용하며 ‘질병이나 상해 대비 병원비 마련’ 목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 반려가구 89%가 반려동물보험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나 실제 가입한 가구는 11.9%로 저조
- ◎ 반려동물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려가구는 26.9%에 불과했고, 시장 활성화 과제로 ‘진료비 표준 수가제’, ‘반려동물 등록 정보 갱신제’ 도입 등을 꼽음

01 반려동물 입양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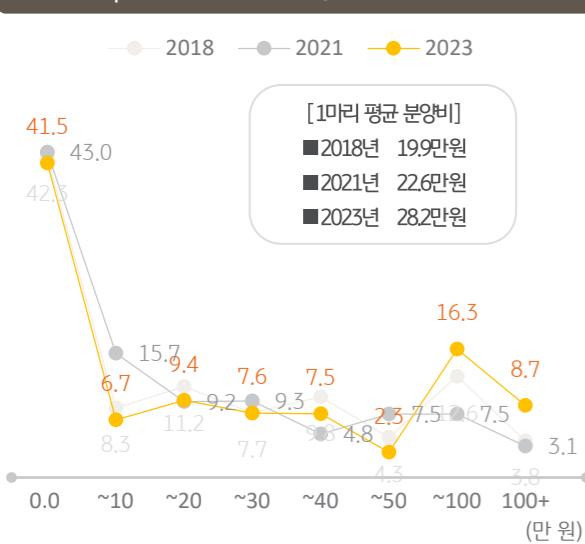
“

**분양비는 평균 28만 2천 원,
‘전문 브리더’를 통한 분양비가 폭등하면서 5만 6천 원 증가했다**

반려인 입장에서 반려동물 생애 비용의 시작은 ‘분양비’다. 반려가구가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 지출하는 분양비는 평균 28만 2천 원으로 2021년 22만 6천 원에 비해 5만 6천 원이 증가했다. 반려견 분양비는 평균 31만 원으로 2021년 23만 4천 원에 비해 6만 6천 원 증가한 반면, 반려묘의 경우 20만 3천 원으로 2021년과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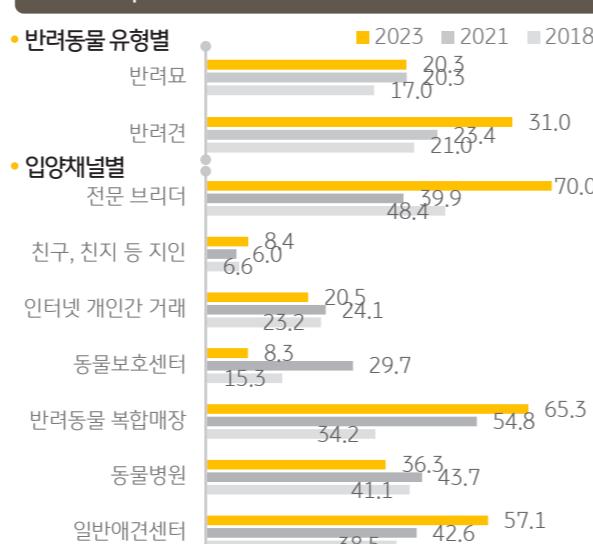
분양비 증가 원인은 ‘전문 브리더’, ‘반려동물 복합매장’, ‘일반 애견센터’를 통한 분양 증가에서 찾을 수 있다. 분양비가 상대적으로 고가인 ‘전문 브리더’를 통한 입양은 2021년 39만 9천 원에서 올해 70만 원으로 30만 1천 원 증가했고, ‘일반 애견센터’도 2021년 대비 14만 5천 원 증가했다.

그림III-1 | 최근 입양한 반려동물 분양비 (단위:%)



주) 유기 장소에서 데려온 경우 제외, 2018 n=652, 2021 n=896, 2023 n=865

그림III-2 | 유형별/입양 채널별 분양비 (단위: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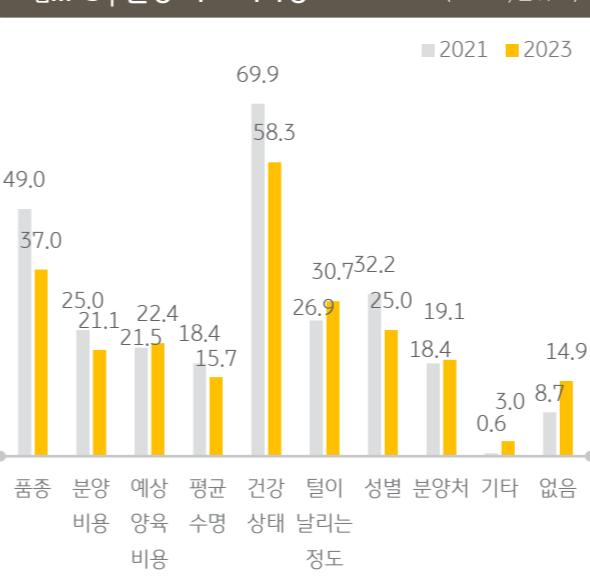
주) 유기 장소에서 데려온 경우 제외, 2018 n=652, 2021 n=896, 2023 n=865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 최우선 고려사항은 ‘건강 상태’가 58.3%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품종’(37.0%), ‘털 날리는 정도’(30.7%), ‘성별’(25.0%), ‘예상 양육비’(22.4%), ‘분양비’(21.1%) 등의 순이었다. 2021년 조사에서도 ‘건강 상태’가 69.9%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품종’(49.0%), ‘성별’(32.2%), ‘털 날리는 정도’(26.9%), ‘분양비’(25.0%), ‘예상 양육비’(21.5%)의 순으로 나타나 큰 변화가 없었다.

2021년 대비 2023년에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진 항목은 ‘품종’이 12.0%p로 가장 커졌고, 그다음으로 ‘건강 상태’(11.6%p), ‘성별’(7.2%p), ‘분양비’(3.9%p) 등의 순으로 하락했다. 반면 ‘털 날리는 정도’와 ‘예상 양육비’는 2021년에 비해 각각 3.8%p, 0.9%p 중요도가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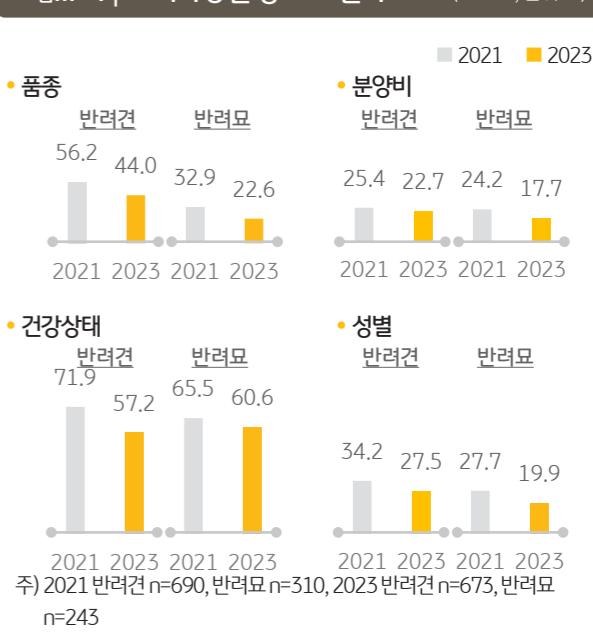
지난 조사 대비 중요도 하락폭이 가장 큰 ‘품종’의 경우 반려견가구 12.2%p, 반려묘가구 10.3%p가 하락했다. 그다음으로 ‘건강 상태’의 경우 반려견가구(14.7%p)가 반려묘가구(4.9%p)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 반면 ‘성별’에 대해서는 반려견가구가 6.7%p, 반려묘가구가 7.9%p 하락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분양비’는 반려견가구가 2.6%p 하락한 반면 반려묘가구는 6.5%p 하락했다.

그림III-3 | 분양 시 고려사항 (1+2+3, 단위:%)



주) 2021년 n=1000, 2022년 n=1000

그림III-4 | 고려사항별 중요도 변화 (1+2+3, 단위:%)



02 반려동물 양육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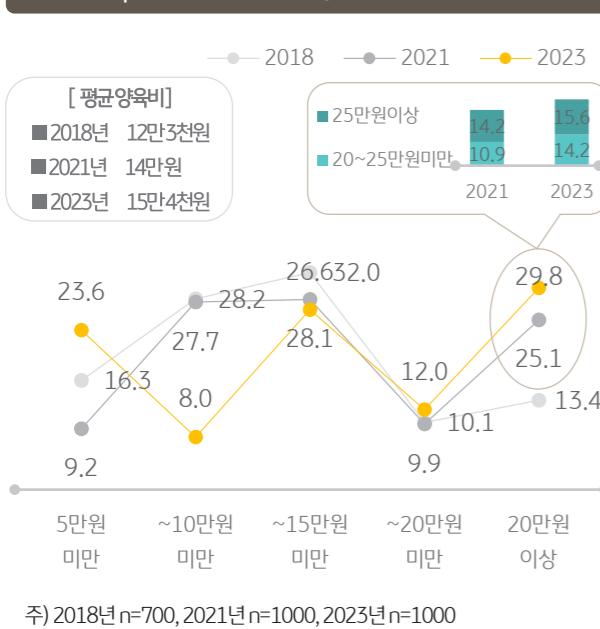
“

**양육비는 월평균 15만 4천 원,
‘사료비’와 ‘간식비’ 등 식비가 절반을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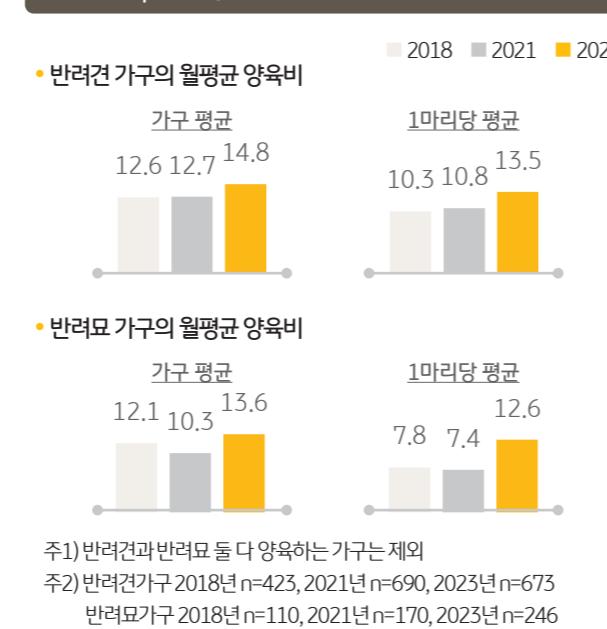
반려동물을 기르다 보면 사료비, 간식비, 병원비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한다. 반려가구는 반려동물과 관련해 건강관리비나 상해/질병 치료비를 제외하고 고정적인 양육비로 월평균 15만 4천 원을 지출했다. 2021년 14만 원에 비해 1만 원, 2018년 12만 원에 비해서는 3만 원이 증가했다. 금액대별로 살펴보면 양육비로 월평균 ‘20만 원 이상’ 지출하는 가구가 4.7%p 증가했는데, 특히 ‘20~25만 원 미만’ 지출하는 가구가 많았다.

반려동물 유형별로 살펴보면 반려견가구의 경우 월평균 14만 8천 원, 반려묘가구의 경우 월평균 ‘13만 6천 원’을 양육비로 지출했다. 반려동물 1마리당 양육비를 추산하면 반려견은 월평균 ‘13만 5천 원’, 반려묘는 월평균 ‘12만 6천 원’을 지출했다. 특히 반려묘 양육비는 2021년에 비해 월평균 3만 3천 원이 증가했다.

그림III-5 | 반려가구의 반려동물 월평균 양육비 (단위%)



그림III-6 | 반려동물 유형별 월평균 양육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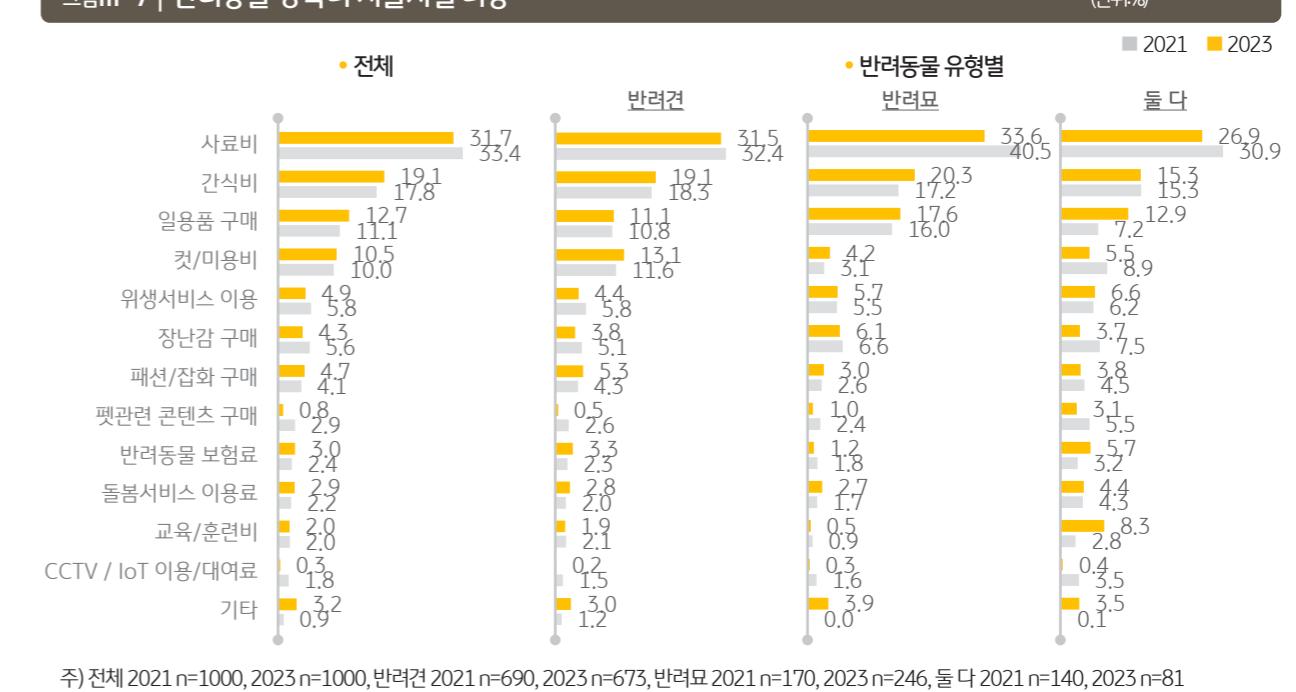


반려동물 양육비가 주로 어디에 지출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출처 비중을 조사해 보았다. 양육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사료비’(31.7%)와 ‘간식비’(19.1%)로 식비가 절반을 차지했다(50.8%). ‘사료비’(33.4%)와 ‘간식비’(17.8%)를 합친 식비가 51.2%를 차지한 2021년 조사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 외 배변 패드, 고양이 모래, 미용용품이나 위생용품 등 ‘일용품 구입비’(12.7%), ‘컷/미용비’(10.5%)도 10% 이상을 차지했다. 일용품 구입비와 컷/미용비는 2021년 각각 11.1%, 10.0%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반려동물 유형별 지출처 비중을 살펴보면 반려견가구는 ‘사료비’ 31.5%, ‘간식비’ 19.1%를 지출해 식비가 50.6%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컷/미용비’(13.1%), ‘일용품 구입비’(11.1%)의 순이었다. 반면 반려묘가구는 ‘사료비’ 33.6%, ‘간식비’ 20.3%로 식비가 55.9%를 차지해 반려견가구보다 비중이 높았고, 배변 패드, 고양이 모래, 미용용품이나 위생용품 등 ‘일용품 구입비’로 17.6%를 지출했다. ‘컷/미용비’는 반려견가구가 양육비의 13.1%를 지출하는 데 비해 반려묘가구는 4.2%를 지출하는 데 그쳤다. 한편 반려견과 반려묘를 둘 다 기르는 가구는 ‘사료비’(26.9%)와 ‘간식비’(15.3%) 등 식비가 42.2%로 다른 반려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다. 그 다음으로 ‘일용품 구입비’가 12.9%로 2021년에 비해 5.7%p 증가했다.

반려동물보험료가 양육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로 2021년 2.4%에 비해 소폭 증가했고, 반려묘가구보다 반려견가구에서 지출이 늘었다. 반려견가구의 경우 양육비의 3.3%, 반려견과 반려묘 둘 다 기르는 가구는 양육비의 5.7%를 보험료로 지출했으며, 이는 지난 2021년에 비해 증가한 수치였다.

그림III-7 | 반려동물 양육비 지출처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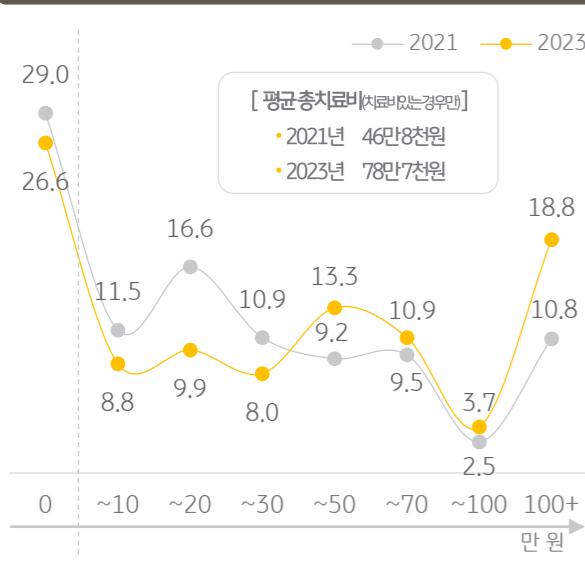
“ 반려가구 73.4%가 반려동물 치료비를 지출했고, ‘정기검진이나 장비를 사용한 검진’, ‘피부 질환 치료’ 지출이 많았다

반려동물을 기르면서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양육비 외에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나 금액이 상당한 치료비도 지출하게 된다.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기에 최근 2년간 반려동물의 사고, 상해, 치료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알아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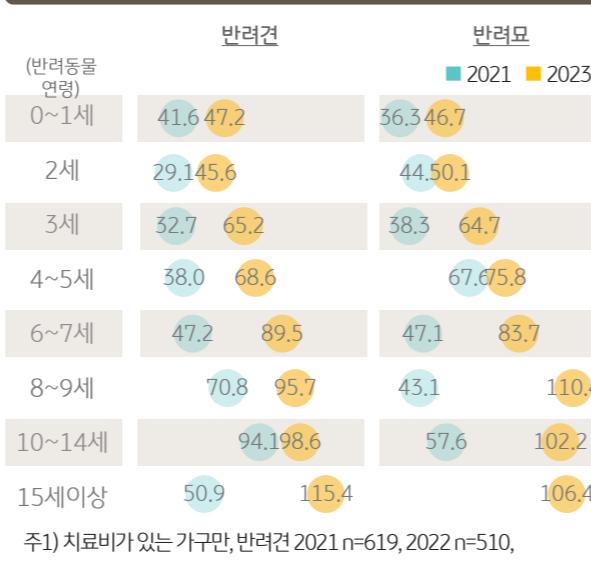
최근 2년간 반려동물을 위해 치료비를 지출한 반려가구는 73.4%로 2021년(71.0%)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치료비 지출 규모는 평균 78만 7천 원으로 2021년 46만 8천 원보다 31만 9천 원이 늘었다. 금액대별로 보면 ‘30만 원 이상’ 지출한 가구가 2021년에 비해 증가했다. 특히 ‘100만 원 이상’ 지출한 가구가 전체 반려가구의 18.8%로 2021년(10.8%)에 비해 8.0%p 늘었다. 반려동물 종류별로 보면 반려견가구는 평균 81만 8천 원, 반려묘가구는 평균 72만 4천 원을 치료비로 지출했다.

반려동물 연령별로 보면 반려견의 경우 2세를 저점으로 점차 증가하다 15세가 지나면서 고점인 115만 4천 원을 지출했다. 반면 반려묘의 경우는 1세부터 소폭 증가하다 8세부터 대폭 증가하여 100만 원을 넘어서면서 15세 이상까지 이 금액대를 유지했다. 전체적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2021년에 비해 반려동물 치료비 지출이 증가했다.

그림III-8 | 지난 2년간 반려동물 치료비 (단위:%)



그림III-9 | 반려동물 연령별 치료비 (단위:만 원)



반려가구가 반려동물 치료비로 지출한 항목은 정기 검진이나 CT, MRI 촬영 등 장비를 사용한 ‘정기/장비 검진’이 51.9%로 가장 많았고, ‘피부 질환 치료’가 39.6%로 뒤를 이었다. 그 외 ‘사고/상해 치료’(26.4%), ‘치과 질환 치료’(22.2%), ‘소화기 질환 치료’(19.2%)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21년에 비해 치료비 총액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치료비 지출 항목에도 변화가 있었다. 2021년에는 ‘피부 질환 치료’가 44.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정기/장비 검진’(34.6%), ‘소화기 질환 치료’(24.6%), ‘치과 질환 치료’(23.8%), ‘사고/상해 치료’(15.2%)의 순이었다. 올해 가장 큰 지출 항목인 ‘정기/장비 검진’은 2021년 대비 17.3%p 증가했다. 세 번째 지출 항목인 ‘사고/상해 치료’는 2021년에 비해 11.2%p 증가했다. 그 외 ‘피부 질환 치료’, ‘치과 질환 치료’, ‘소화기 질환 치료’ 등은 2021년에 비해 지출이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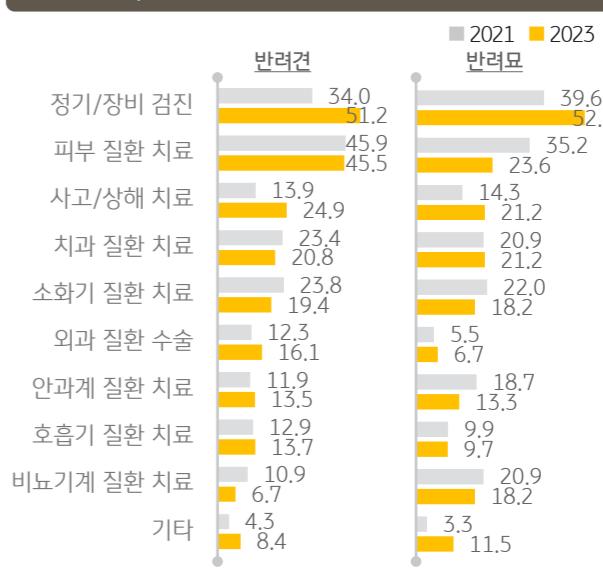
반려견과 반려묘에 따라서도 지출처에서 차이를 보였다. 반려견은 ‘정기/장비 검진’이 51.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피부 질환 치료’(45.5%), ‘사고/상해 치료’(24.9%)의 순이었다. 2021년 조사에서 45.9%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피부 질환 치료’는 올해 두 번째 지출 항목으로 나타났고, 과거 두 번째 지출처인 ‘정기/장비 검진’(34.0%)은 16.8%p 증가하며 올해 가장 큰 지출처로 순위가 바뀌었다. ‘사고/상해 치료’도 2021년 13.9%에 비해 올해 11.0%p 증가했다.

반려묘의 경우 2021년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정기/장비 검진’(39.6%)이 올해도 52.1%로 1위를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 ‘피부 질환 치료’가 23.6%를 기록했는데, 2021년에 비해 순위 변동은 없으나 응답률은 11.6%p 감소했다. 그 외 ‘사고/상해 치료’(21.2%), ‘치과 질환 치료’(21.2%)가 뒤를 이었다. 치료비 지출에서 반려견과 반려묘의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지출 항목은 ‘비뇨기 질환 치료’로 반려묘(18.2%)에 비해 반려견(6.7%)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다.

그림III-10 | 반려동물 치료비 지출처 (복수응답, 단위:%)



그림III-11 | 유형별 치료비 지출처 (복수응답, 단위:%)



03 반려동물 장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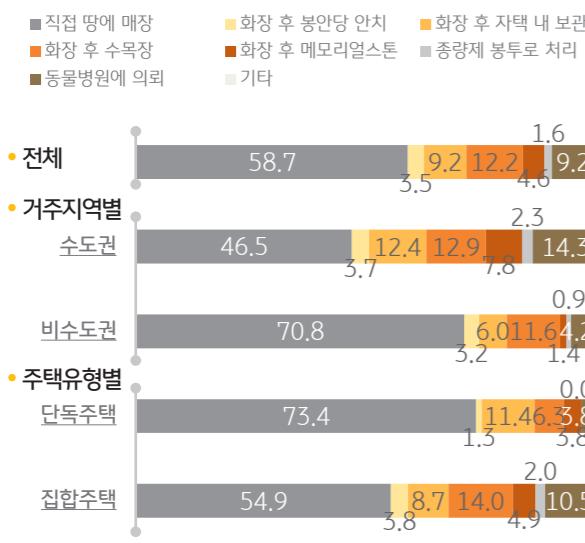
“

**펫로스가구, 과거에는 직접 ‘매장’했으나
향후에는 장묘 시설을 이용해 ‘화장’할 계획이다**

반려가구가 죽음을 맞이한 반려동물을 어떻게 보냈는지도 알아보았다. 반려동물과 이별을 경험한 펫로스가구는 전체 반려가구의 43.3%를 차지했다. 펫로스가구 58.7%가 직접 ‘매장’했고, 29.6%가 ‘화장 후 수목장’(12.2%), ‘자택 보관’(9.2%), ‘메모리얼 스톤 제작’(4.6%), ‘봉안당 안치’(3.5%) 등으로 화장을 했다. 그 외 ‘동물병원’에 의뢰한 경우가 9.2%였고, ‘종량제 봉투’로 처리한 경우도 1.6%를 차지했다. 폐기물관리법상 반려동물의 사체를 땅에 매장하는 것은 불법이나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행해지고 있었다. 비수도권에 거주하거나 단독주택에 사는 가구에서는 직접 매장한 경우가 70%에 육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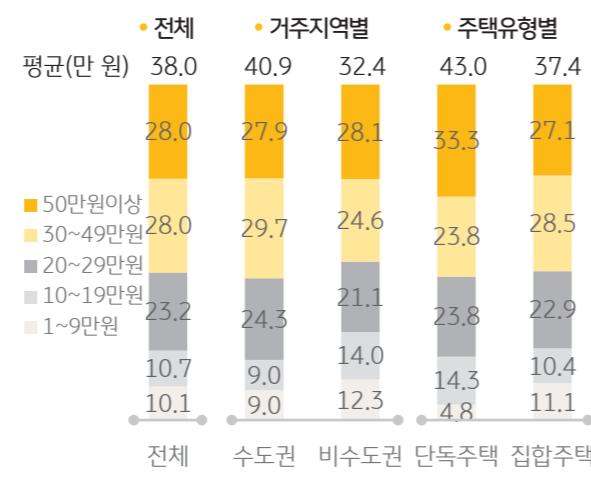
직접 매장하거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펫로스가구가 반려동물 장례를 치르는 데 들어간 비용은 평균 38만 원이었다. 거주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40만 9천 원으로 비수도권 32만 4천 원에 비해 많았고, 단독주택이 43만 원으로 집합주택 37만 4천 원보다 지출액 규모가 컸다.

그림III-12 | 펫로스가구의 반려동물 장례 방법 (단위:%)



주) 펫로스를 경험한 가구 전체 n=433, 지역별 서울 n=79, 경기/인천 n=138, 비수도권 n=216, 주택유형별 단독주택 n=79, 집합주택 n=344

그림III-13 | 반려동물 장례비 규모 (단위:만 원)



주) 펫로스가구 중 장례 방법으로 직접 땅에 매장하거나 종량제 봉투로 장례를 마쳤던 반려가구 제외 전체 n=1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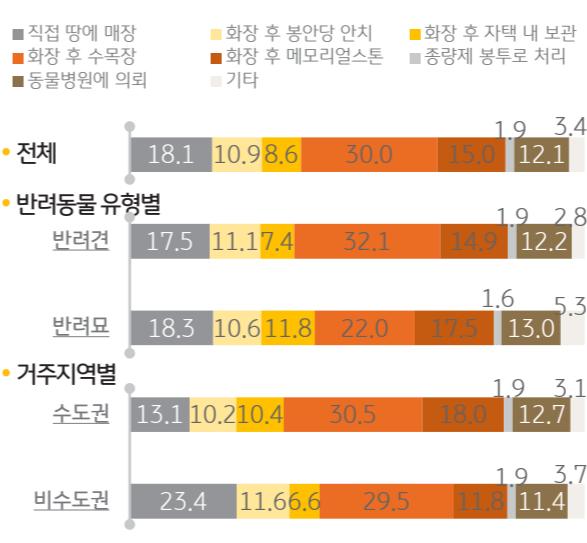
주) 지역별 수도권 n=111, 비수도권 n=57, 주택유형별 단독주택 n=21, 집합주택 n=144

펫로스가구를 포함하여 반려가구의 반려동물 사망 시 장례 방법과 예상 비용을 알아보았다. 반려가구 64.5%는 ‘화장 후 수목장’(30.0%), ‘메모리얼 스톤 제작’(15.0%), ‘봉안당 안치’(10.9%), ‘자택 보관’(8.6%) 등 장묘 시설을 이용한 화장을 계획했다. 직접 ‘매장’하겠다는 응답은 18.1%로 과거(58.7%)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반려동물 사체를 매장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낮았다. 매장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21.6%,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은 잘 모른다’ 26.2%로 반려가구의 절반 정도는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23.4%가 직접 매장하겠다고 응답해 수도권에 비해 낮은 인지도를 보였다. 직접 매장하거나 종량제 봉투로 처리한 경우를 제외한 반려가구가 향후 반려동물 장례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평균 48만 1천 원을 예상했다. 반려견가구가 49만 6천 원으로 반려묘가구(47만 원)에 비해 2만 6천 원 많았다.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반려가구는 향후에도 ‘직접 매장하겠다’(23.4%)는 응답이 높았으나, 비용을 들여 장례를 치르겠다는 가구에서는 장례비로 다른 가구에 비해 높은 51만 1천 원을 예상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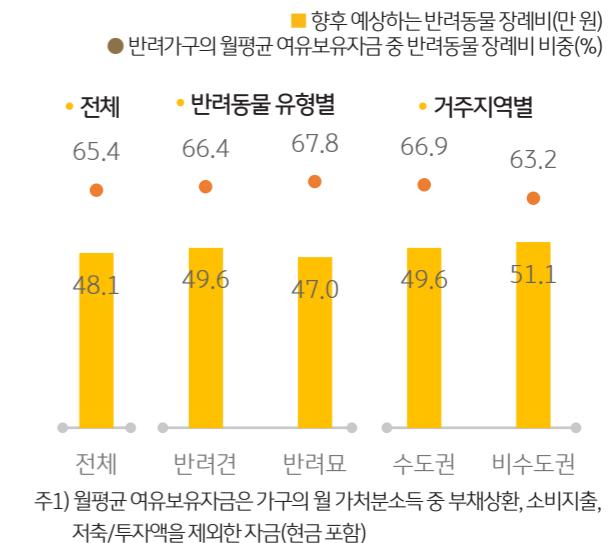
반려동물 장례비 부담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반려가구의 월평균 여유자금에서 장례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았다. 반려동물 장례비가 월평균 여유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5.4%로 나타났고, 반려견가구(66.4%)보다 반려묘가구(67.8%)가 장례비 규모도 크고 여유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았다. 수도권(66.9%)에 거주하는 가구가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가구(63.2%)보다 월평균 여유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았다.

그림III-14 | 향후 예상하는 반려동물 장례 방법 (단위:%)



주) 전체 n=1000, 반려견 n=673, 반려묘 n=246, 수도권 n=518, 비수도권 n=482

그림III-15 | 향후 예상하는 반려동물 장례비



주) 월평균 여유보유자금은 가구의 월 가처분소득 중 부채상환, 소비지출, 저축/투자액을 제외한 자금(현금 포함)

주) 전체 n=766, 반려유형별 반려견 n=523, 반려묘 n=184, 서울 n=424, 비수도권 n=342

04 반려동물 양육 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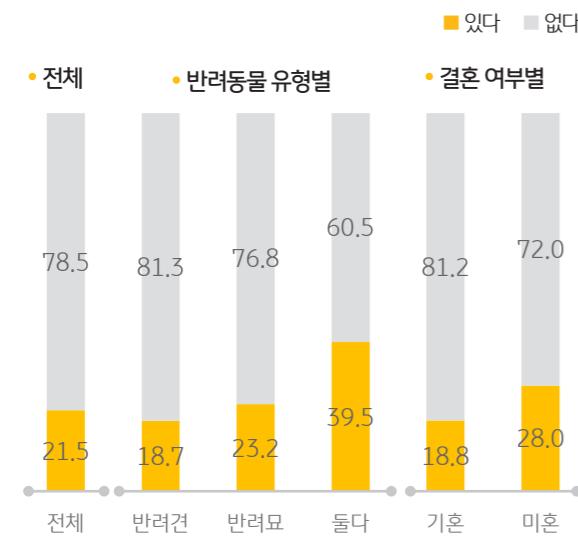
“

**반려동물 양육 자금을 운용하는 가구는 21.5%,
자금 규모는 평균 242만 7천 원이었다**

반려가구 21.5%가 반려동물 양육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다. 양육 자금을 운용하는 비율은 반려동물 유형에 따라서는 ‘반려견과 반려묘 둘 다 기르는 가구’(39.5%)가 반려견가구나 반려묘가구에 비해 높았고, 결혼 여부에 따라서는 ‘미혼가구’(28.0%)가 ‘기혼가구’(18.8%)에 비해 높았다.

반려동물 양육 자금 규모는 평균 242만 7천 원이었다. 반려동물 유형별로는 양육 자금 운용 비율이 높은 ‘반려견과 반려묘 둘 다 기르는 가구’가 평균 323만 1천 원으로 ‘반려견가구’(240만 4천 원)나 ‘반려묘가구’(202만 5천 원)에 비해 자금 규모가 커졌다. 결혼 여부에 따라서는 미혼가구가 215만 3천 원, 기혼가구가 263만 9천 원을 반려동물을 위해 마련해두었다. 양육 자금을 운용하는 비율은 높지 않지만, 반려견가구나 미혼가구의 경우 300만 원 이상을 운용하는 경우가 각각 30.2%, 29.3%에 이르렀다.

그림III-16 | 반려동물 양육 목적 자금 여부 (단위:%)



주) 전체 n=1000, 반려견 n=673, 반려묘 n=246, 둘다 n=81, 기혼 n=637, 미혼 n=328

그림III-17 | 반려동물 양육 목적 자금 규모 (단위:%)



주1) 반려동물 양육 목적 저축을 하고 있는 반려가구만

주2) 전체 n=215, 반려동물 유형별 반려견 n=126, 반려묘 n=57, 둘다 n=32, 결혼유무별 기혼 n=120, 미혼 n=92

반려가구가 반려동물 양육 자금을 마련하는 이유는 반려동물의 ‘질병/상해 대비 병원비 마련’ 목적이 69.8%로 가장 많았고, ‘반려동물 건강관리’(54.9%)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외 반려동물 ‘양육’(36.7%)이나 ‘장례’(31.2%) 등을 위해 자금을 마련해두었다.

현재 반려동물 양육 자금을 운용하는 가구의 96.7%가 매월 반려동물을 위해 저축을 하고 있었다. 반려견가구(95.2%), 반려묘가구(100%), 반려견과 반려묘 둘 다 기르는 가구(96.9%), 1마리만 기르는 반려가구(95.9%), 2마리 기르는 반려가구(100%), 3마리 이상 기르는 반려가구(93.7%) 등 전체적으로 90% 이상 가구에서 저축하고 있었다.

이들이 저축하는 금액은 월평균 25만 9천 원으로, 반려가구에서 매월 저축하거나 투자하는 여유자금(97만 3천 원)의 26.6%를 차지했다. 월평균 저축액은 반려묘와 반려견 둘 다 기르는 가구가 36만 8천 원으로 반려견가구의 24만 4천 원, 반려묘가구의 23만 3천 원에 비해 규모가 커다. 저축 규모가 가장 큰 경우는 2마리를 기르는 반려가구로 월평균 34만 8천 원을 저축했고, 3마리 이상을 기르는 반려가구는 18만 6천 원으로 상대적으로 저축 규모가 작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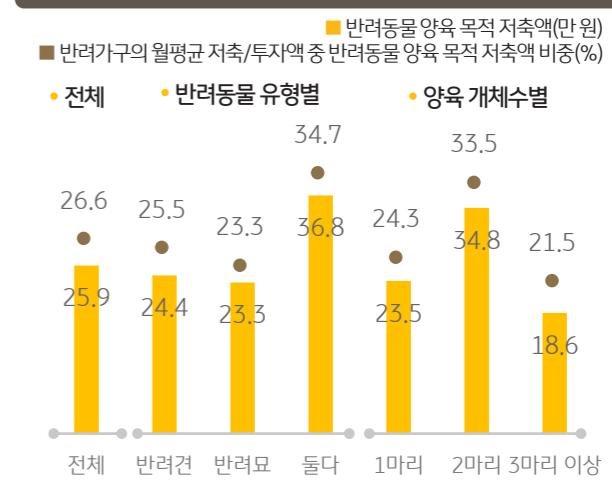
반려동물 유형과 양육 개체수별 저축액 규모를 살펴보면 반려견과 반려묘 각 1마리를 기르는 가구가 평균 44만 2천 원, 반려견과 반려묘를 3마리 이상 기르는 가구는 그보다 적은 월평균 17만 7천 원을 저축했다. 반려동물 양육을 위한 저축이 가구 전체 여유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분의 1에 이르렀고, 저축 규모가 가장 큰 반려견과 반려묘 둘 다 기르는 가구(34.7%)나 2마리를 기르는 반려가구(33.5%)는 30% 중반 수준이었다.

그림III-18 | 반려동물 양육 자금 보유 목적 (단위:%)



주) 반려동물 양육 목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반려가구만

그림III-19 | 반려동물 양육 자금 규모 (단위:만 원, %)



주1) 반려동물 양육 목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반려가구만

주2) 전체 n=215, 반려동물 유형별 반려견 n=126, 반려묘 n=57, 둘다 n=32, 양육 개체수별 1마리 n=146, 2마리 n=53, 3마리 이상 n=16

주3) 양육 개체수가 3마리 이상인 경우는 샘플수가 30미만으로 해석에 주의

CHAPTER 05 반려동물 전용 보험

“

**반려가구 89%는 반려동물보험에 대해 알고 있으나
실제 가입한 가구는 11.9%에 불과했다**

의료 기술이 발달하고 백신 접종과 건강검진 등을 하면서 반려동물 수명이 연장되고 있으나 의료비 부담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국가 건강보험이 없는 반려동물의 병원비는 반려가구에게 여간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반려가구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의료비를 지원하는 반려동물보험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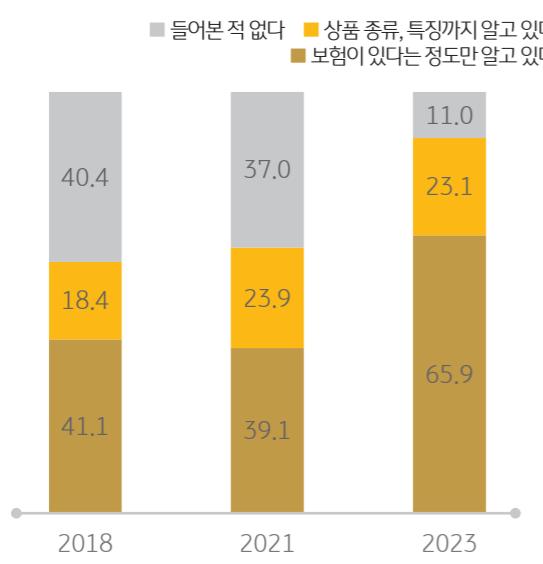
반려가구 23.1%는 반려동물보험에 대해 상품의 종류나 특징까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험이 있다 정도만 알고 있는’ 경우도 65.9%로 2018년 41.1%, 2021년 39.1%에 비해 크게 늘었다. 반려동물보험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는 응답은 11.0%로 2018년 40.4%, 2021년 37.0%에 비해 크게 감소해, 반려가구의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반려가구가 반려동물보험을 접한 경로는 ‘포털사이트’(45.1%)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TV/라디오’(25.2%), ‘가족/친구/지인’(25.2%), ‘카페/블로그/커뮤니티’(20.7%) 등의 순이었다. ‘포털사이트’나 ‘TV/라디오’를 통해 알게 된 경우는 점차 증가하는 반면 ‘가족/친구/지인’이나 ‘동물병원’ 등 대면 채널을 통해 알게 된 경우는 줄어들고 있었다.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반려가구의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크게 높아졌지만, 실제로 가입한 경우는 11.9%로 매우 저조했다. 거주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2.5%, 비수도권이 11.2%로 수도권 지역 거주자의 가입률이 약간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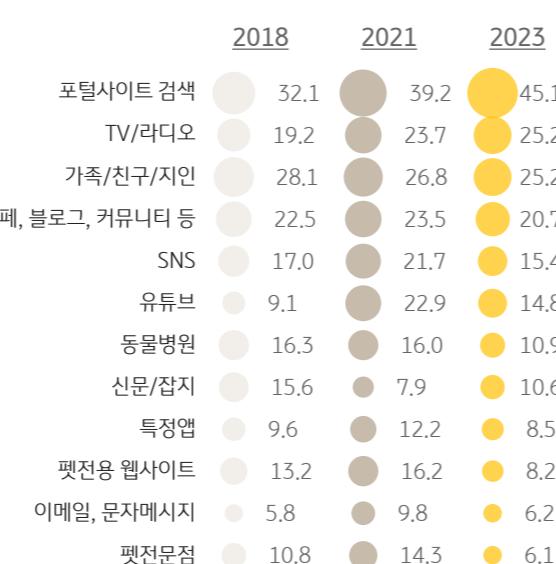
반려동물보험에 가입한 반려가구는 월평균 보험료로 6만 9천 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가구 전체 저축액과 투자액(97만 3천 원)의 7%를 차지했다. 반려가구가 반려동물보험을 가입한 경로는 비대면 채널인 ‘모바일 앱’, ‘인터넷 홈페이지’가 절반에 이르렀다. 비대면 채널을 통한 가입률은 수도권(56.9%)이 비수도권(44.4%)에 비해 높았다. 반면 ‘보험설계사’, ‘동물병원/펫 분양업체’ 등 대면 채널을 통한 가입률은 비수도권(40.8%)이 수도권(29.2%)에 비해 높았다.

반려가구 3분의 2는 실제로 반려동물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가장 많이 보상받은 항목은 ‘통원치료비/약제비’로 28.6%를 차지했고, 그다음으로 ‘수술비’(19.3%), ‘주사비’(18.5%), ‘입원비’(14.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에서는 수도권에 비해 반려동물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은 경험이 현저하게 적었다.

그림III-20 |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인지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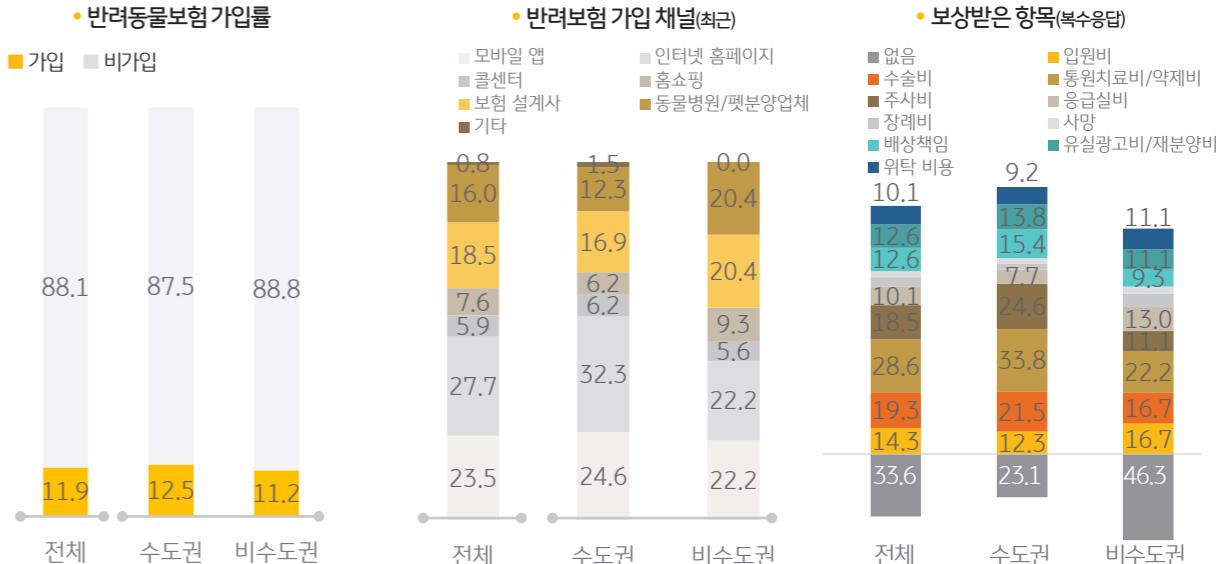
그림III-21 | 반려동물보험을 접한 경로 (단위:%)



주) 2018 n=700, 2021 n=1000, 2023 n=1000

주) 2018 n=417, 2021 n=630, 2023 n=890 (들어본 적 없는 경우 제외)

그림III-22 | 반려가구의 반려동물보험 가입 현황 (단위%)



주) 전체 n=1000, 수도권 n=518, 비수도권 n=482, 반려동물보험 가입자만 전체 n=119, 수도권 n=65, 비수도권 n=54

“ 반려동물보험이 필요하다는 반려가구는 26.9%, 시장 활성화 과제로 ‘진료비 표준 수가제 도입’을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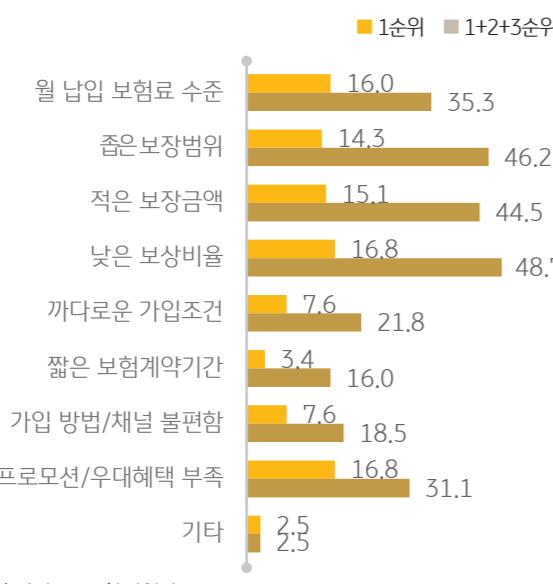
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반려동물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하는지 알아보았다. 먼저 반려동물에 가입한 반려가구가 실제로 보험을 이용하면서 느낀 주된 불편 사항을 문의한 결과 ‘치료비 보상률이 낮다’(48.7%), ‘보장범위가 좁다’(46.2%), ‘보장금액이 적다’(44.5%)는 점이 가장 많았다. 그 외 ‘월 납입 보험료가 부담된다’(35.3%), ‘가입 프로모션이나 우대 혜택이 부족하다’(31.1%)는 점도 불편 사항으로 토로했다.

다음으로 반려동물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반려가구에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를 문의한 결과 ‘월 납입 보험료가 부담된다’(48.4%), ‘보장범위가 좁다’(44.2%)는 점이 가장 많았다. 보험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33.4%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반려동물보험 가입 가구가 불편 사항으로 꼽은 ‘치료비 보상률이 낮다’와 ‘보장금액이 적다’는 점을 가입 저해 요인으로 꼽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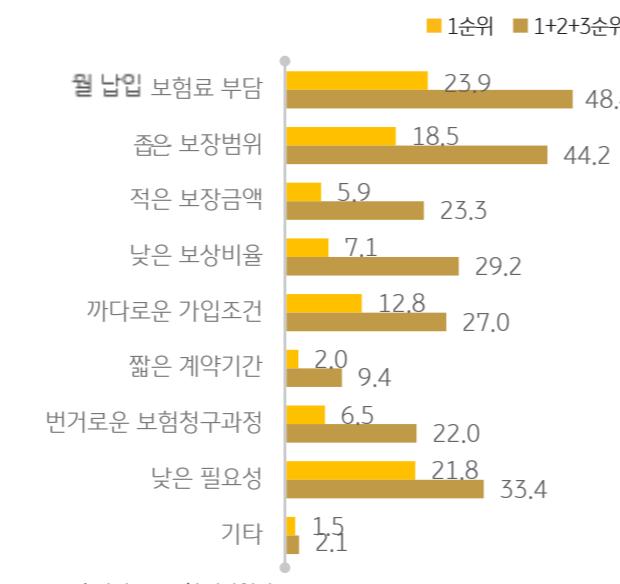
낮은 가입률에서 짐작할 수 있듯, 반려가구는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보험이 ‘필요하다’(6점과 7점 합계)고 생각하는 반려가구는 26.9%에 불과했고, ‘반반이다’(3점, 4점, 5점 합계)라고 생각하는 반려가구는 64.3%를 차지했다. 반려동물 유형별로는 ‘반려묘가구’가 20.3%로 반려동물보험 필요성을 가장 크게 공감하지 못했고, ‘반려견가구’(28.4%)와 ‘반려견과 반려묘 둘 다 기르는 가구’(34.6%)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이 큰 여러 마리를 기르는 가구가 보험 필요성을 크게 공감했다.

반려가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반려동물보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가입률은 저조한 상황에서 반려동물보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할지 물었다. 반려가구 43.9%는 ‘진료비 표준 수가제 도입’을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가장 큰 과제로 꼽았다. 그 다음으로 ‘반려동물 등록 정보 갱신제 도입’(14.3%), ‘진료비 사전 고지 도입’(12.3%), ‘반려동물 배상 책임 도입’(12.2%) 등의 순이었다. 보험 필요성을 가장 크게 공감한 반려견과 반려묘 둘 다 기르는 반려가구는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반려동물 배상 책임 도입’(18.5%)과 ‘펫보험 보상청구 자동화 시스템 도입’(16.0%)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

그림III-23 | 반려동물보험의 불편 사항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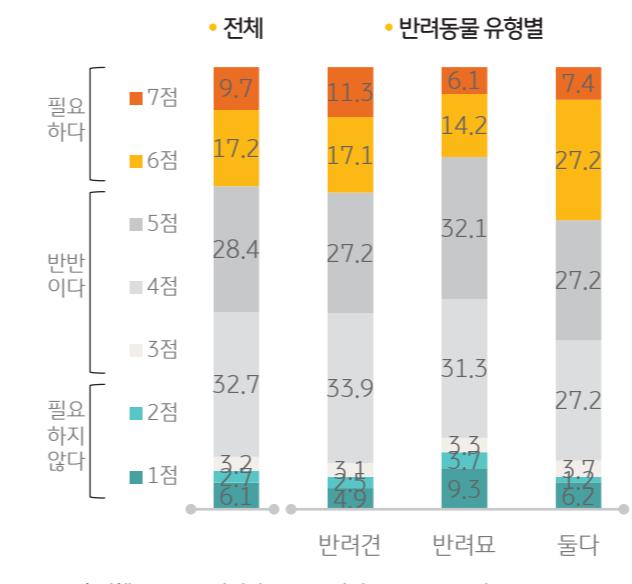
그림III-24 | 반려동물보험 가입 저해 요인 (단위:%)



주) 반려동물보험 가입자 n=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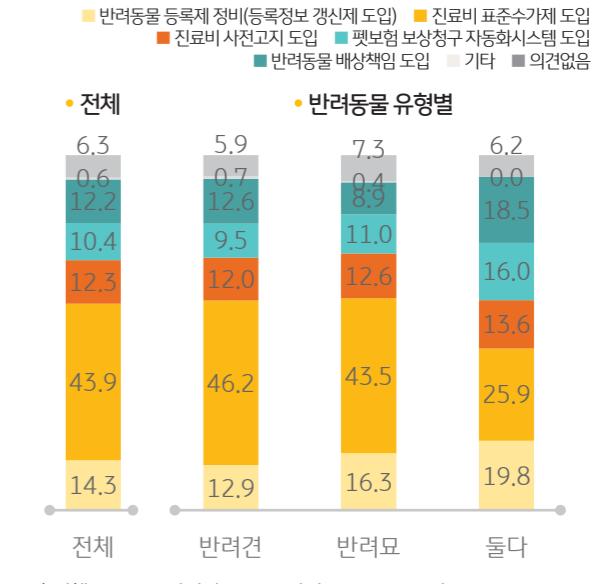
주) 반려동물보험 비가입자 n=881

그림III-25 | 반려동물보험의 필요성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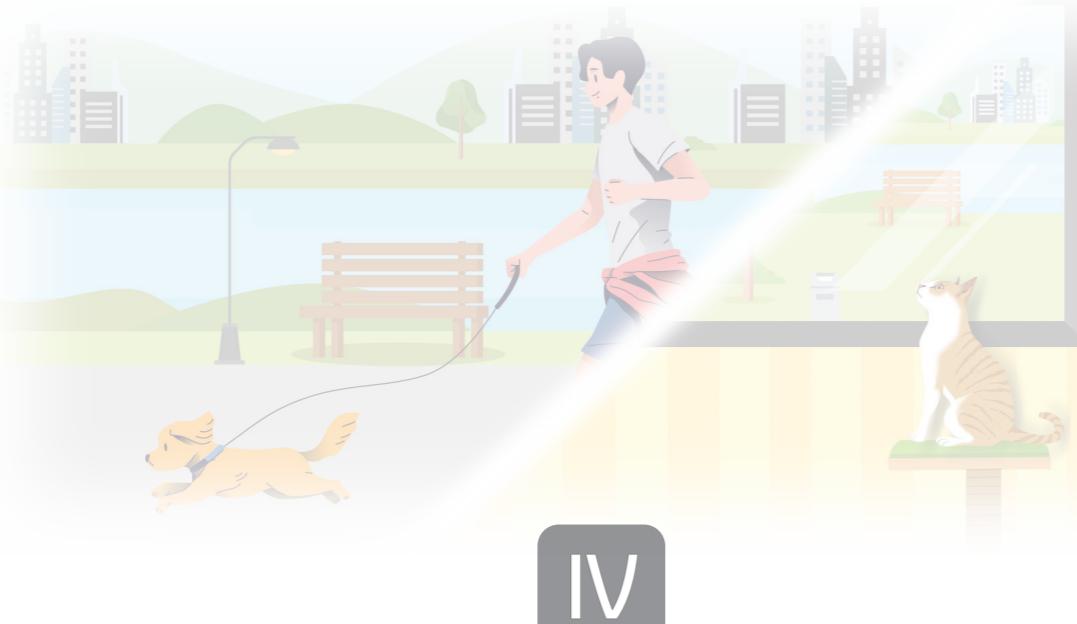


주) 전체 n=1000, 반려견 n=673, 반려묘 n=246, 둘다 n=81

그림III-26 | 반려동물보험 시장 활성화 과제 (단위:%)



주) 전체 n=1000, 반려견 n=673, 반려묘 n=246, 둘다 n=81



IV

[이슈1] 반려동물 원격 의료 서비스

01 |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이용 현황

02 | 원격 의료 상담 서비스 니즈

03 | 원격 진료 서비스 니즈

반려가구 81.6%는 반려동물을 가족이라 생각했다. 반려인은 가족의 일원인 반려동물이 건강하고 오래도록 함께하기를 바랐다. 자연스럽게 반려동물의 건강에 관한 기본 정보부터 질병 관리, 상해/질병/질환 치료에 관한 관심도 커졌다.

반려인은 반려동물의 건강관리 정보를 수집할 때 가장 신뢰하는 채널인 동물병원을 통해 관리하고 싶어 한다.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반려동물의 건강을 점검하고 상해/질병/질환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런 트렌드에 힘입어 반려동물을 위한 원격 의료 상담이나 원격 진료를 바라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현재 한국 수의사법에 따르면 수의사는 직접 진료 이외에 약 처방과 투약이 불가능해 원격 의료 상담만이 가능하다.

본 장에서는 반려동물 원격 의료 상담과 원격 진료를 바라는 반려인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관련 시장이 형성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본다.

New Findings Top 3



반려가구 절반 이상이 응급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

- ◎ 반려가구는 최근 2년간 반려동물 병원비로 평균 64만 2천 원이 들었고, 병원비 부담이 가장 큰 가구는 반려견가구로 평균보다 8만 원 많은 72만 1천 원을 지출
- ◎ 반려동물이 아프다는 사실을 모르고 일주일 이상 방치한 경험이 있는 반려가구는 73.0%
- ◎ 반려동물이 아파서 동물병원에 가야 하지만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못 간 반려가구는 64.7%



반려가구 48.8%는 반려동물 원격 의료 상담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

- ◎ 온라인상에서 일대일 채팅을 통해 수의사와 상담하는 반려동물 원격 의료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려가구는 41.5%
- ◎ 국내에서는 일부 플랫폼에서 반려동물 원격 의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반려가구의 인지도는 13.9%에 불과
- ◎ 반려가구 48.8%는 원격 의료 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실제로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
- ◎ 원격 의료 상담을 이용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병원에 가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 유용할 것 같다’(50.8%)



반려가구 43.2%는 원격 진료 이용 의향이 있고, 36.4%는 유료라도 이용할 계획이다.

- ◎ 수의사법에 따라 국내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수의사와 온라인 화상 상담을 통해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약을 처방하고 배달까지 해주는 원격 진료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반려가구 43.2%는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
- ◎ 원격 진료를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병원에 가야 할지 점검할 수 있어서’(55.5%)
- ◎ 반려가구 36.4%는 유료이더라도 원격 진료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
- ◎ 유료일 경우 원격 진료 서비스 1회 이용료로 평균 4만 9천 원까지 지불할 의향이 있음
- ◎ 원격 진료 서비스를 단계별로 화상을 통한 ‘원격 진료’, ‘약 처방’, ‘약 배달’로 나누어 이용 의향을 설문한 결과, 반려가구의 이용 의향은 ‘원격 진료’ 35.6%, ‘원격 처방’ 39.5%, ‘약 배달’ 34.4%로 나타남

01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이용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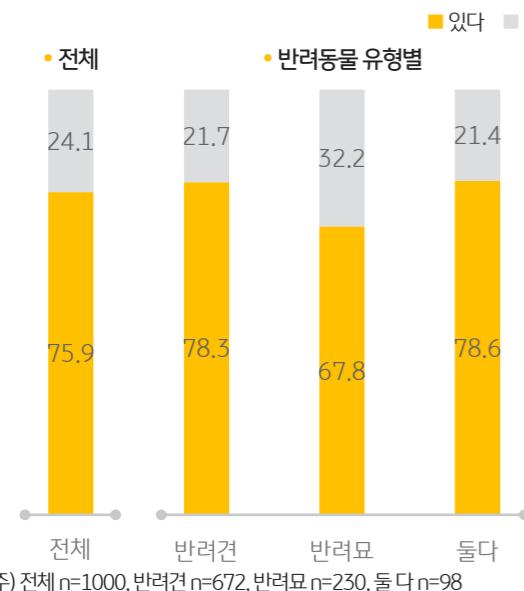
최근 2년간 반려동물 병원비로 평균 64만 2천 원을 지출했다

말 못 하는 반려동물의 건강에 대한 반려인의 관심은 키 수밖에 없다. 반려동물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예방접종부터 건강검진, 질병 치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로 동물병원을 찾게 된다.

반려가구 75.9%가 최근 2년 이내 동물병원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동물병원을 찾은 경험은 반려견 가구나 반려견과 반려묘 둘 다 기르는 가구가 반려묘가구에 비해 많았다.

반려인이 동물병원을 선택하는 주요 기준은 ‘가격’(53.1%)과 ‘접근성’(51.6%)이 가장 많았다. 상대적으로 동물병원을 방문하는 횟수가 많은 반려견가구는 ‘가격’, 반려묘의 외출 부담이 큰 반려묘가구는 ‘접근성’을 병원 선택 기준으로 삼았다.

그림IV-1 | 최근 2년간 동물병원 방문 여부 (단위:%)



그림IV-2 | 동물병원 선택 기준 (1+2+3순위, 단위:%)

반려동물 유형별	전체			반려동물 유형별		
	반려견	반려묘	둘다	반려견	반려묘	둘다
가격	53.1	55.1	51.7	42.9		
접근성	51.6	51.6	55.7	41.8		
의사/직원의 친절함	53.9	36.2	29.1	29.6		
원장(의사) 이력/경력	52.0	31.7	32.2	33.7		
주변추천/이용후기	51.0	28.7	36.5	33.7		
시설, 장비의 우수성	26.0	26.0	21.7	35.7		
병원규모/진료과목	23.6	24.3	20.0	27.6		
24시간 진료 여부	19.7	17.9	25.2	19.4		

주1) 병원 인지도/명성, 병원 프로모션 등 소수 의견 제외
주2) 전체 n=1000, 반려견 n=672, 반려묘 n=230, 둘다 n=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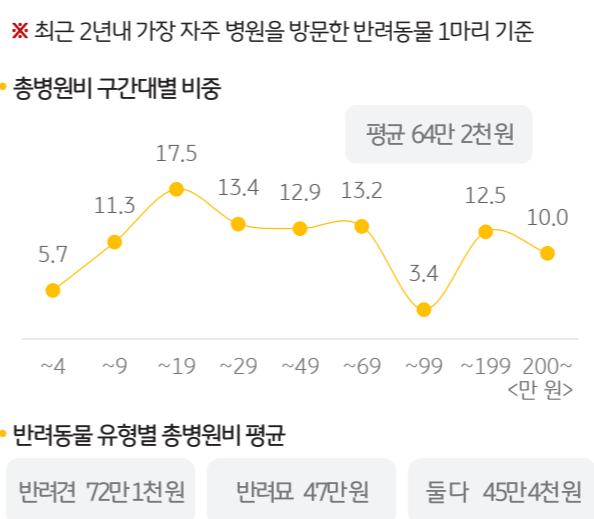
반려동물 병원비는 얼마나 드는지 알아보았다. 반려가구는 최근 2년 이내 동물병원에 간 반려동물 1마리를 기준으로 평균 64만 2천 원을 지출했다. 병원비 부담이 가장 큰 반려가구는 반려견가구로서 평균보다 8만 원 많은 72만 1천 원을 지출했다. 상대적으로 동물병원을 방문하는 횟수가 적은 반려묘가구는 47만 원을 지출했고, 반려견과 반려묘 둘 다 기르는 가구는 45만 4천 원으로 반려묘가구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반려동물 1마리 기준으로 지난 2년간 지출한 총병원비를 금액대별로 살펴보면 ‘10만 원~20만 원 미만’이 17.5%로 가장 많았고, ‘5만 원 미만’(5.7%)과 ‘70만 원~100만 원 미만’(3.4%)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구간에서 10% 초반대를 기록했다. 총병원비로 평균 ‘200만 원 이상’을 지출한 경우는 반려견가구가 12.5%로 반려묘가구(5.8%)나 반려견과 반려묘 둘 다 기르는 가구(1.3%)에 비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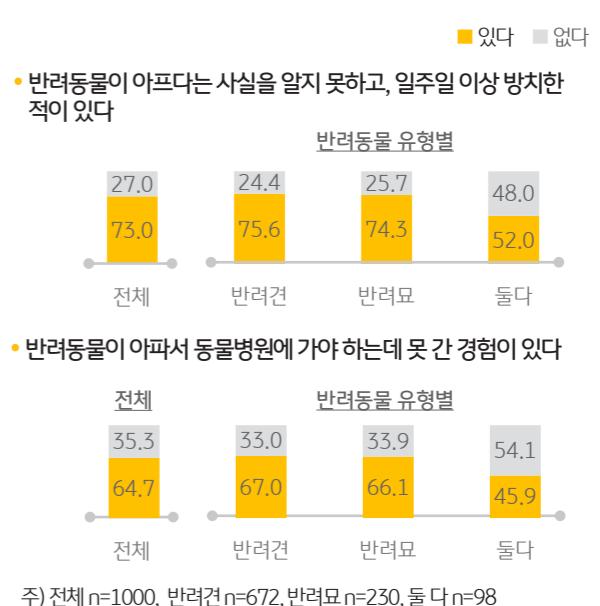
반려동물이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거나 상해나 질병 등 응급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지도 알아보았다. 반려가구 73.0%가 반려동물이 아프다는 사실을 모르고 일주일 이상 방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반려동물 유형별로 보면 반려견가구와 반려묘가구는 각각 75.6%, 74.3%로 비슷한 수준이었고, 반려견과 반려묘 둘 다 기르는 가구는 52.0%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려가구 64.7%는 반려동물이 아파서 동물병원에 가야 하는데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못 간 경험이 있었다. 반려견가구와 반려묘가구는 각각 67.0%와 66.1%로 비슷한 수준이었고, 반려견과 반려묘 둘 다 기르는 가구는 45.9%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림IV-3 | 최근 2년간 지출한 동물병원 병원비 (단위:%)



그림IV-4 | 반려동물 응급 상황 대응 경험 (단위:%)



02 원격 의료 상담 서비스 니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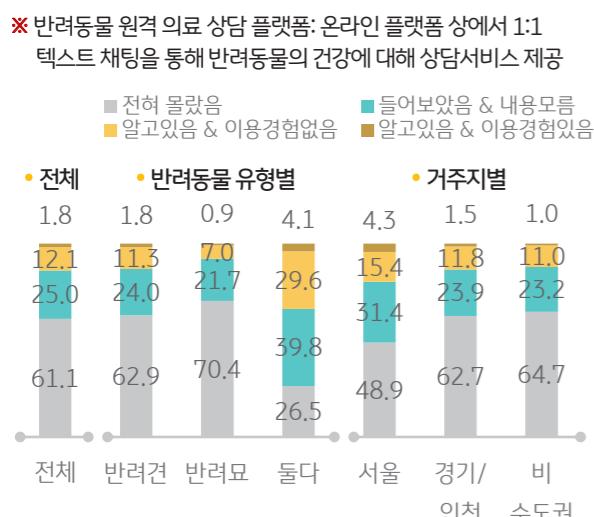
“

반려가구 41.5%, 반려동물 원격 의료 상담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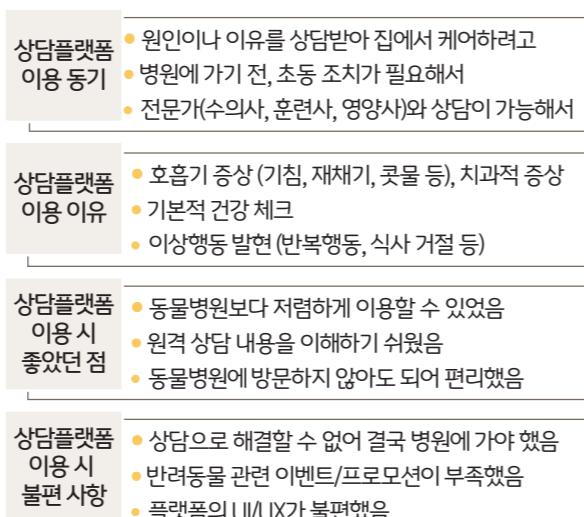
국내에서는 수의사의 원격 진료는 허용되지 않고, 다만 일부 플랫폼에서 원격 의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반려동물 원격 의료 상담에 대한 반려인의 인지도와 이용 현황을 알아보았다.

원격 의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존재에 대해 알고 있는 반려인은 13.9%에 불과했다. 이들 중 ‘서비스 내용도 알고 이용 경험도 있다’고 응답한 반려인은 1.8%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반려동물 유형별로는 ‘반려견과 반려묘 둘 다 기르는 가구’가 33.7%로 인지도가 가장 높았고, 거주 지역별로는 ‘서울’(19.7%)에 사는 반려인이 많이 알고 있었다. 아직 플랫폼이 활성화되지 않아 이용자가 적은 관계로 소수 의견이지만, 증상 원인이나 이유에 관해 설명을 듣고 집에서 케어하거나, 병원에 가기 전 초동 조치가 필요하거나, 전문가와 상담 가능해서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림IV-5 | 원격 의료 상담 플랫폼 인지 여부 (단위:%)



그림IV-6 | 원격 의료 상담 플랫폼 이용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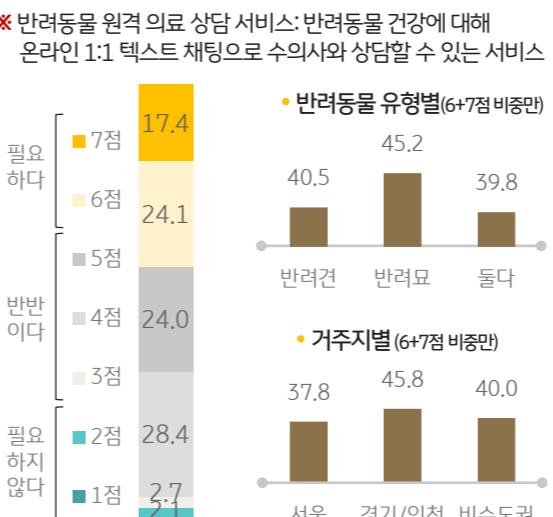


반려동물의 건강에 대해 온라인상에서 일대일 채팅을 통해 수의사와 상담하는 원격 의료 상담이 ‘필요하다’(6점과 7점 합계)는 응답이 41.5%, ‘반반이다’(3점, 4점, 5점 합계)는 응답이 55.1%를 차지해 반려인 10명 중 9명 이상은 원격 의료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반려동물 유형별로는 반려묘가구, 거주 지역별로는 ‘경기/인천’ 지역에 사는 반려인이 원격 의료 상담 필요성을 인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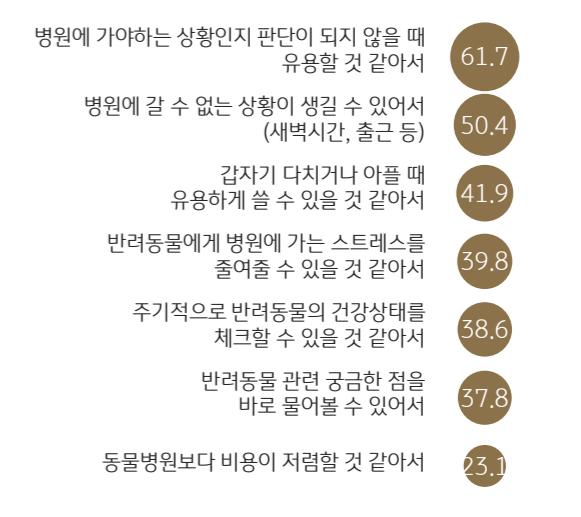
반려동물 원격 의료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인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 유용할 것 같아서’가 61.7%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새벽 시간이거나 출근을 했거나 해서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50.4%) 원격 의료 상담이 필요하다고 반려가구의 절반 이상이 응답했다. 그 외 ‘갑자기 다치거나 아플 때 유용할 것 같아서’(41.9%)도 원격 의료 상담을 원하는 이유에 포함되었다.

반려동물 원격 의료 상담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3.4%의 반려인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알아보았다. 반려인이 원격 의료 상담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원격 상담한 후 ‘처방/치료를 위해선 어차피 동물병원에 가야 하기 때문에’가 79.4%로 가장 많았고, ‘내 반려동물에 맞는 진단/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가 64.7%로 뒤를 이었다. 그 외 ‘상담 내용의 전문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35.3%), ‘제공되는 정보/상담 내용을 신뢰할 수 없어서’(26.5%), ‘유료로 제공될 것 같아서’(20.6%), ‘별도 조치 없이 직접 건강관리/케어를 잘하고 있어서’(1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IV-7 | 원격 의료 상담 필요도 (단위:%)



그림IV-8 | 원격 의료 상담 필요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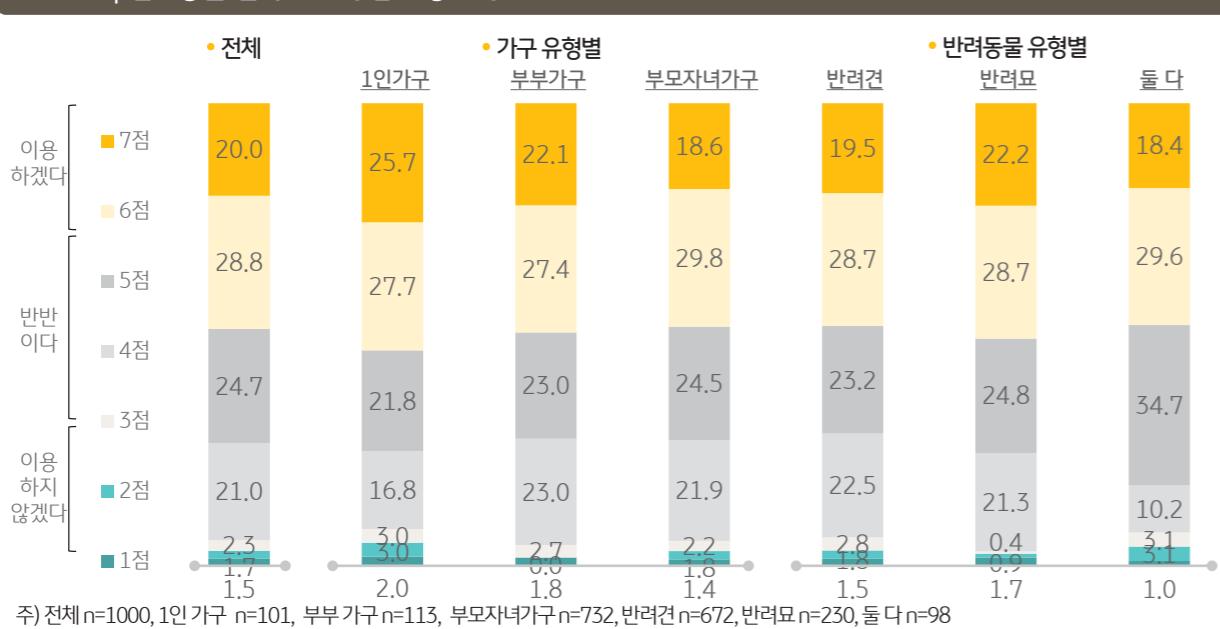
반려가구 48.8%, 반려동물 원격 의료 상담을 이용할 의향 있다

반려동물 원격 의료 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실제로 이용할 의향은 어느 정도인지도 알아보았다.

반려가구 48.8%는 반려동물 원격 의료 상담을 ‘이용하겠다’(6점과 7점 합계)고 응답해 서비스 필요성을 인지하는 응답률(41.5%)보다 높게 나타났다. 원격 의료 상담을 이용할 의향이 ‘반반이다’(3점, 4점 5점 합계)고 응답한 가구도 48.0%로 많았으며 ‘이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가구는 3.2%에 불과했다.

원격 의료 상담의 이용 의향은 가구 유형별로는 ‘1인가구’(53.4%)가 ‘부부가구’(49.5%), ‘부모자녀가구’(48.4%) 보다 많았고, 반려동물 유형별로는 ‘반려묘가구’(50.9%)가 ‘반려견가구’(48.2%), ‘반려견과 반려묘 둘 다 기르는 가구’(48.0%)에 비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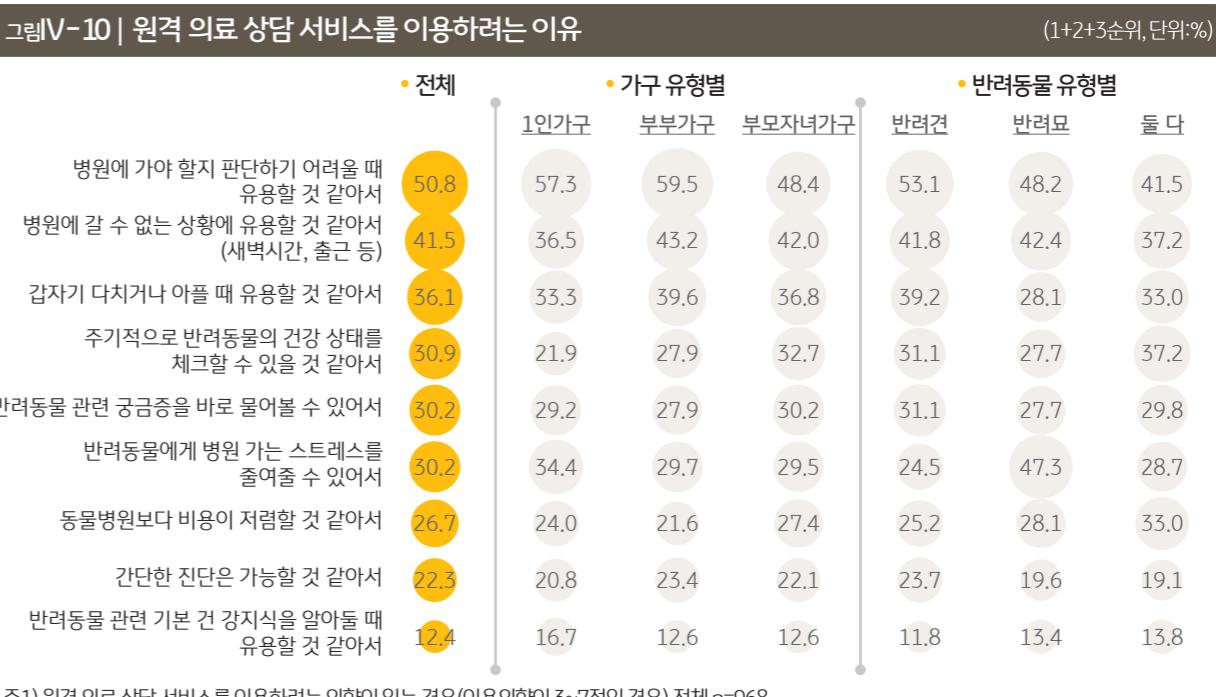
그림V-9 | 반려동물 원격 의료 상담 이용 의향



반려인이 원격 의료 상담을 이용하려는 이유는 ‘병원에 가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 유용할 것 같아서’가 50.8%로 가장 컼고, 그다음으로 ‘새벽 시간이나 출근 등으로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에 유용할 것 같아서’(41.5%), ‘갑자기 다치거나 아플 때 유용할 것 같아서’(36.1%) 등의 순이었다. 앞서 살펴본 원격 의료 상담이 필요한 이유를 묻는 설문 결과와 같았다. 그 외 ‘주기적으로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어서’(30.9%), ‘반려동물 관련 궁금증을 바로 물어볼 수 있어서’(30.2%), ‘반려동물에게 병원 가는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어서’(30.2%) 등을 이유로 꼽았다.

1인가구의 경우 원격 의료 상담의 이용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병원에 가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 유용할 것 같아서’(57.3%), ‘반려동물에게 병원 가는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어서’(34.4%)를 주된 이유로 꼽았다. 반려묘가구의 경우 ‘반려동물에게 병원 가는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어서’가 47.3%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격 의료 상담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반려가구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알아보았다. 가장 큰 이유는 ‘상담 이후 처방이나 치료를 위해선 어차피 동물병원에 가야 해서’(65.6%)였다. 그다음으로는 ‘채팅만으로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59.4%), ‘내 반려동물에 맞는 진단/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59.4%)를 꼽았다. 그 외 ‘상담 내용의 전문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28.1%),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할 자신이 없어서’(18.8%), ‘제공되는 정보/상담 내용을 신뢰할 수 없어서’(15.6%), ‘별도 조치 없이도 건강관리/케어를 잘하고 있어서’(12.5%), ‘유료로 제공될 것 같아서’(9.4%) 등의 순이었다.

그림V-10 | 원격 의료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이유



03 원격 진료 서비스 니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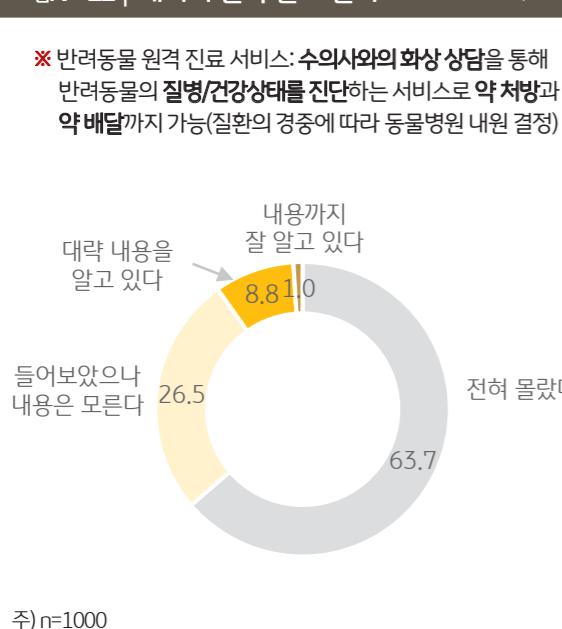
”

반려가구 43.2%, 반려동물 원격 진료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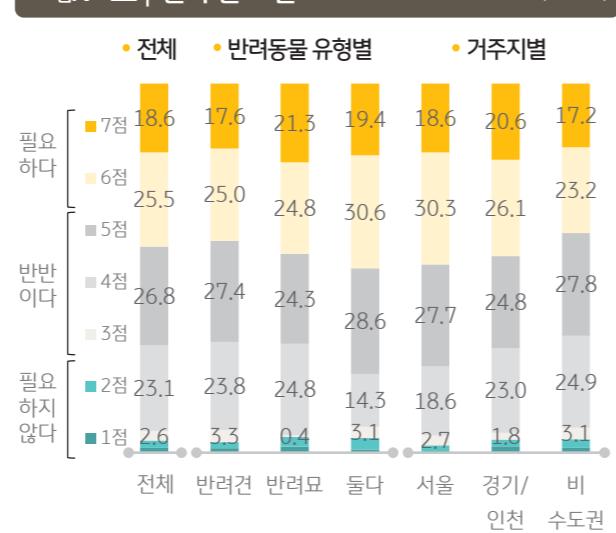
반려동물 원격 진료는 수의사가 온라인 화상 상담을 통해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질환의 경중에 따라 동물병원 내원을 결정할 수 있으며, 원격 진료를 통해 약 처방과 배달까지 받을 수 있다. 국내에서는 수의사법에 따라 반려동물 원격 진료가 불가능하다. 반려인에게 해외 원격 진료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전혀 몰랐다’는 응답이 63.7%,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26.5%를 차지해 반려인 90%가 원격 진료를 모르고 있었다.

원격 진료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은 상황에서 서비스 필요도를 알아보았다. 원격 진료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44.1%로 원격 의료 상담 필요도(41.6%)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원격 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반려견과 반려묘 둘 다 기르는 가구’(50.0%)와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48.9%)가 다른 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림IV-11 | 해외의 원격 진료 인지도 (단위:%)



그림IV-12 | 원격 진료 필요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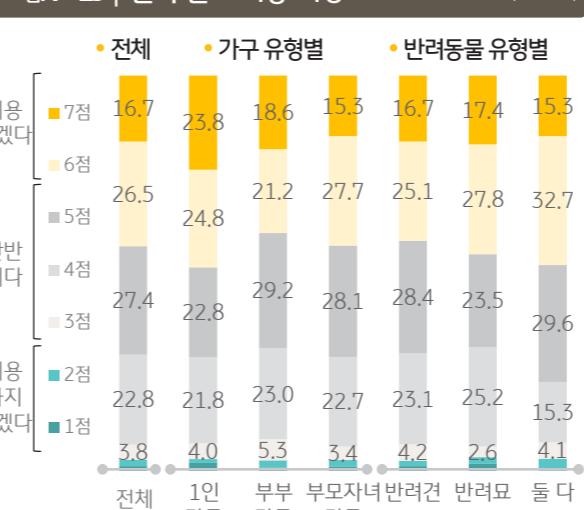
원격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반려가구 43.2%가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고, ‘반반이다’라고 응답한 가구도 54.0%를 차지하여 서비스에 따라 유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 진료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2.8%에 그쳤다.

가구 유형별로는 ‘1인가구’ 48.6%가 원격 진료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응답해 ‘부부가구’(40.4%), ‘부모자녀가구’(43.0%)에 비해 많았다. 반려동물 유형별로는 ‘반려견과 반려묘 둘 다 기르는 가구’ 48.0%가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 ‘반려견을 기르는 가구’(41.8%), ‘반려묘를 기르는 가구’(45.2%)에 비해 응답률이 높았다.

원격 진료 이용 의향이 있다고 밝힌 전체 반려가구 97.2%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었다. 원격 진료를 이용하려는 이유로 반려가구 55.5%는 ‘병원에 가야 할지 점검할 수 있어서’를 꼽았다. 그 다음으로 ‘질병 원인을 알고 집에서 관리할 수 있어서’(47.6%), ‘병원에 갈 수 없을 때 유용할 것 같아서’(41.9%) 이용하겠다고 밝혔다.

원격 진료에 대해 높은 이용 의향을 밝힌 1인가구와 반려견과 반려묘 둘 다 기르는 가구를 대상으로 원격 진료를 이용하려는 이유를 알아보았다. 1인가구의 경우 ‘병원에 가야 할지 점검할 수 있어서’가 59.2%로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그 외 ‘병원에 갈 수 없을 때 유용할 것 같아서’ 이용하겠다는 경우가 55.1%로 전체 반려가구(41.9%)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동물병원이 반려동물에게 주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어서’(32.7%) 원격 진료를 이용하겠다는 경우도 다른 가구에 비해 많았다. 반려견과 반려묘 둘 다 기르는 가구는 ‘병원에 갈 수 없을 때 유용할 것 같아서’ 이용하겠다는 경우가 48.4%로 가장 많았고, ‘병원 진료 시간이 맞지 않거나 주변에 병원이 없어서’가 31.6%를 차지했다.

그림IV-13 | 원격 진료 이용 의향 (단위:%)



그림IV-14 | 원격 진료 이용 이유 (1+2+3순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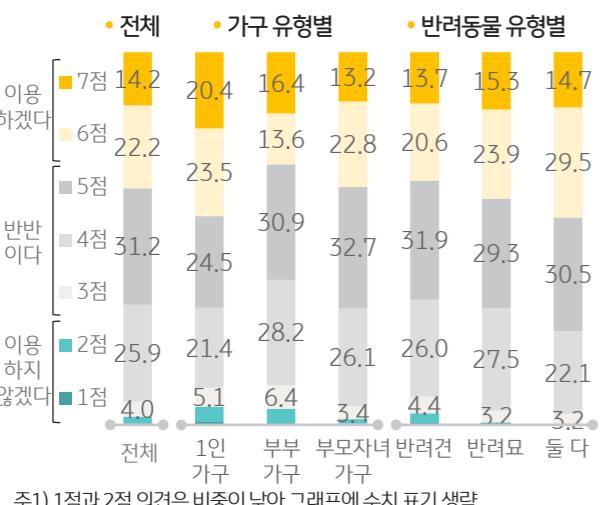
”

반려가구 36.4%는 유료라도 원격 진료를 이용하고, 1회 이용료로 평균 4만 9천 원까지 지불할 의향이 있다

유료이더라도 원격 진료를 ‘이용하겠다’는 반려가구는 36.4%로 원격 진료를 이용하겠다는 반려가구(43.2%)에 비해 6.8%p 적었다. 가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1인가구’ 43.9%가 유료라도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밝혀 ‘부부가구’(30.0%), ‘부모자녀가구’(36.0%)에 비해 이용 의향이 높았다. 양육 유형별로는 ‘반려견과 반려묘 둘 다 기르는 가구’의 44.2%가 유료이더라도 이용하겠다고 응답해 ‘반려견가구’(34.3%), ‘반려묘가구’(39.2%)에 비해 이용 의향이 높았다.

원격 진료를 유료로 제공할 경우 1회 이용료로 얼마까지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도 알아보았다. 반려인이 지불할 의향이 있는 원격 진료 1회 이용료는 평균 4만 9천 원이었다. 지불 의향이 가장 큰 가격대는 ‘1만 원~2만 원 미만’으로 26.9%를 차지했고, 그다음으로 16.9%가 ‘3만 원~5만 원 미만’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10만 원 이상’ 지불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도 15.8%로 높게 나타났다. 유료 원격 진료 이용 의향이 높은 ‘1인가구’의 경우 1회 이용료로 6만 9천 원, ‘반려견과 반려묘 둘 다 기르는 가구’는 7만 9천 원을 지불하겠다고 응답했다. 1회 이용료로 높은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1인가구와 반려견과 반려묘 둘 다 기르는 가구의 경우 1회 이용료로 ‘10만 원 이상’ 금액대를 선택한 경우가 1인가구는 25.8%, 둘 다 기르는 가구는 31.6%로 나타났다.

그림IV-15 | 유료 원격 진료 서비스 이용 의향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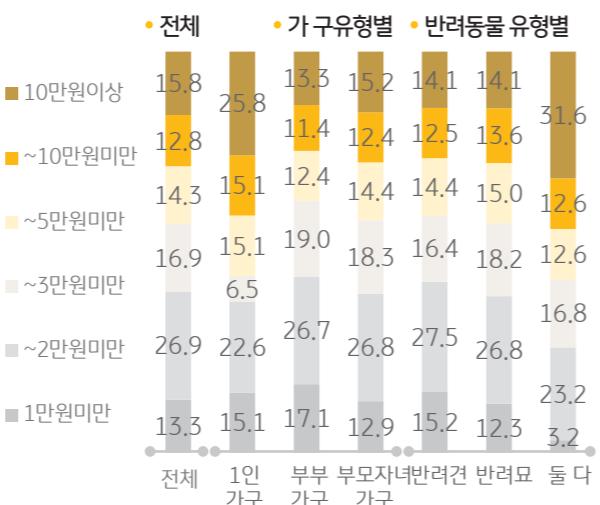
주1) 1점과 2점 의견은 비중이 낮아 그라프에 수치 표기 생략

주2) 반려동물 원격 진료 서비스를 이용해볼 의향이 3~7점 응답자만

주3) 전체 n=972, 1인가구 n=98, 부부가구 n=110, 부모자녀가구 n=712,

반려견 n=655, 반려묘 n=222, 둘 다 n=95

그림IV-16 | 원격 진료 서비스 비용 지불 수준 (단위:%)



주1) 유료 원격 진료 서비스를 이용해볼 의향이 3점~7점 응답자만

주2) 유료 원격 진료 서비스 이용 의향이 있는 경우만(3점 이상)

주3) 원격 진료 n=948, 원격 처방 n=953, 약 배달 n=9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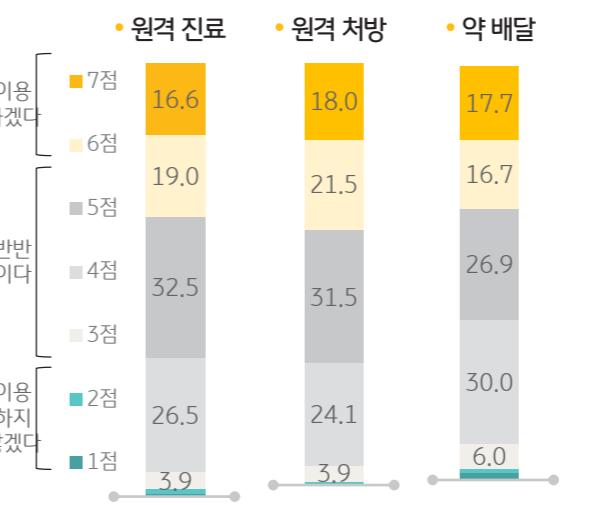
유료 원격 진료를 이용할 가능성(7점 리커트 척도 중 3점 이상)이 있는 반려가구를 대상으로 화상을 통한 ‘원격 진료’, ‘약 처방’, ‘약 배달’로 나누어 이용 의향을 알아보았다. 다만 단계별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먼저 화상을 통한 ‘원격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면 이용 의향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반려가구 35.6%가 ‘이용하겠다’고 응답했다. 이용 의향이 ‘반반이다’고 응답한 반려가구도 62.9%를 차지했고, ‘이용하지 않겠다’는 반려가구는 1.6%에 그쳤다.

다음으로 ‘원격 처방’ 서비스를 제공하면 이용 의향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반려가구 39.5%가 ‘이용하겠다’고 응답했다. 이용 의향이 ‘반반이다’고 응답한 반려가구도 59.6%를 차지했고, ‘이용하지 않겠다’는 반려가구는 1.0%로 미미했다.

마지막으로 원격으로 약 처방을 받은 후 ‘약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반려가구 34.4%가 ‘이용하겠다’고 응답했다. 이용 의향이 ‘반반이다’고 응답한 반려가구는 62.9%였고, ‘이용하지 않겠다’는 반려가구는 2.7%에 그쳤다.

설문 결과를 종합하면 반려가구는 원격 진료, 약 처방, 약 배달 서비스 이용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유형별로 보면 ‘반려견을 기르는 가구’에 비해 ‘반려묘를 기르는 가구’나 ‘반려견과 반려묘 둘 다 기르는 가구’에서 이용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반려묘를 기르는 가구’의 경우 원격 진료, 약 처방, 약 배달까지 높은 이용 의향을 보였다.

그림IV-17 | 원격 진료/약 처방/약 배달 이용 의향(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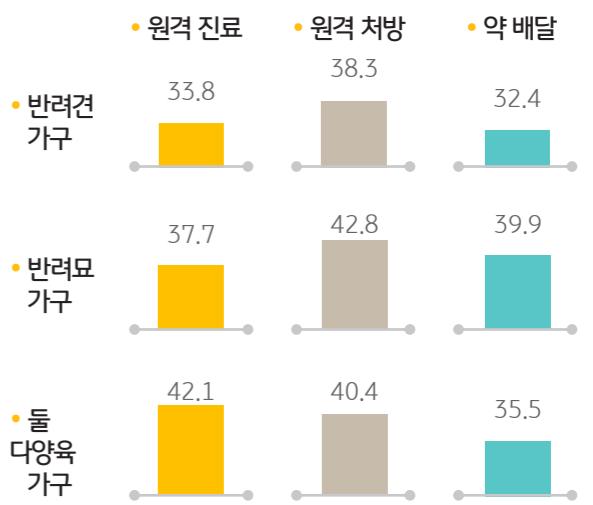


주1) 1점과 2점 의견은 비중이 낮아 그라프에 수치 표기 생략

주2) 유료 원격 진료 서비스 이용 의향이 있는 경우만(3점 이상)

주3) 원격 진료 n=948, 원격 처방 n=953, 약 배달 n=924

그림IV-18 | 반려동물 유형별 이용 의향 (단위:%)



주1) 각 서비스별 ‘이용하겠다(이용 의향 6점+7점)’는 경우만 상기 표시

주2) 유료 원격 진료 서비스 이용 의향이 있는 경우만

주3) 반려견 가구 n=623, 반려묘 가구 n=220, 둘 다 양육 가구 n=95



| 해외 반려동물 원격 상담 서비스 사례 |

[페트리지(Petriage)]

- 멤버십 등급에 따라 인공지능(AI) 기반의 무료 반려동물 원격 증상 감시부터 수의사와의 화상 상담까지 이용 가능
 - 멤버십의 '기본' 서비스는 반려동물의 증상을 입력하면 AI 기반 증상 검사를 통해 '안심', '주의', '위험', '응급' 4단계로 심각성을 표시해 동물병원 내원 필요 여부를 진단
 - '기본' 서비스 외 수의사가 상담 후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모니터링 기능이 추가된 '일반' 서비스와 수의사와 화상 상담이 가능한 '프리미엄'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
 - 비용은 수의사나 동물병원에 따라 상이

미국



출처 : Petriage

[퍼스트벳(FirstVet)]

- 영국의 반려동물 원격 상담 플랫폼으로, 연계된 보험사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무료 상담 제공
 - 수의사와의 화상 상담을 통해 반려동물 상태에 대해 조언을 얻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 질환에 대한 진단이나 약 처방은 불가
 - 1회 상담료는 24 파운드(약 4만 원)이며 저녁 6시 이후 상담료는 36 파운드(약 6만 원)
 - 퍼스트벳과 연계된 보험사의 고객의 경우 무료로 화상 상담을 받을 수 있음

영국

[팝(Pawp)]

- 수의사의 원격 상담과 의료비 지원 서비스를 결합한 플랫폼
 - 월 19 달러의 구독료를 지불하면 수의사와 실시간 채팅과 화상 상담이 가능하며, 반려동물 1마리당 3천 달러의 긴급 의료비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의료비 지원 서비스는 일반적인 검진이나 진료비는 해당되지 않으며 긴급 사고 발생 시 반려동물 나이와 무관하게 가입자 1인당 개, 고양이 6마리까지 지원 가능
 - 긴급 의료비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팝의 수의사와 화상 상담을 통해 반려동물의 상황이 긴급함을 확인받은 후 동물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고 청구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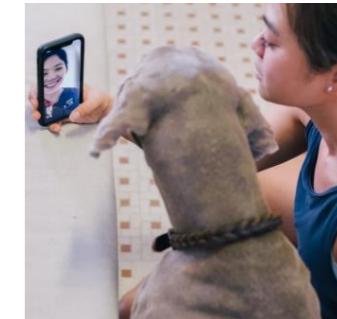
미국

| 해외 반려동물 원격 진료 서비스 사례 |

[줌벳(ZumVet)]

- 팬데믹 기간 동물병원 방문이 어려워진 틈을 타 급성장한 동남아 최대 반려동물 온라인 원격 진료 플랫폼
 - 수의사와 화상 상담과 진료가 가능하며 비용은 기본 35 달러부터 시작하고, 진료 후 필요한 약은 처방전과 함께 싱가포르 전역에 3시간 이내 배송
 - 줌벳이 아닌 다른 동물병원 처방전이 있다면 처방전을 확인한 후 약을 배송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하는데, 약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며 하루 만에 배송받을 수 있음

싱가포르



출처 : yahoofinance, Timothy Kang, <How CEO-doctor duo gave up stable jobs to build online vet service in Singapore>, 2023.3.8

[본드벳(BondV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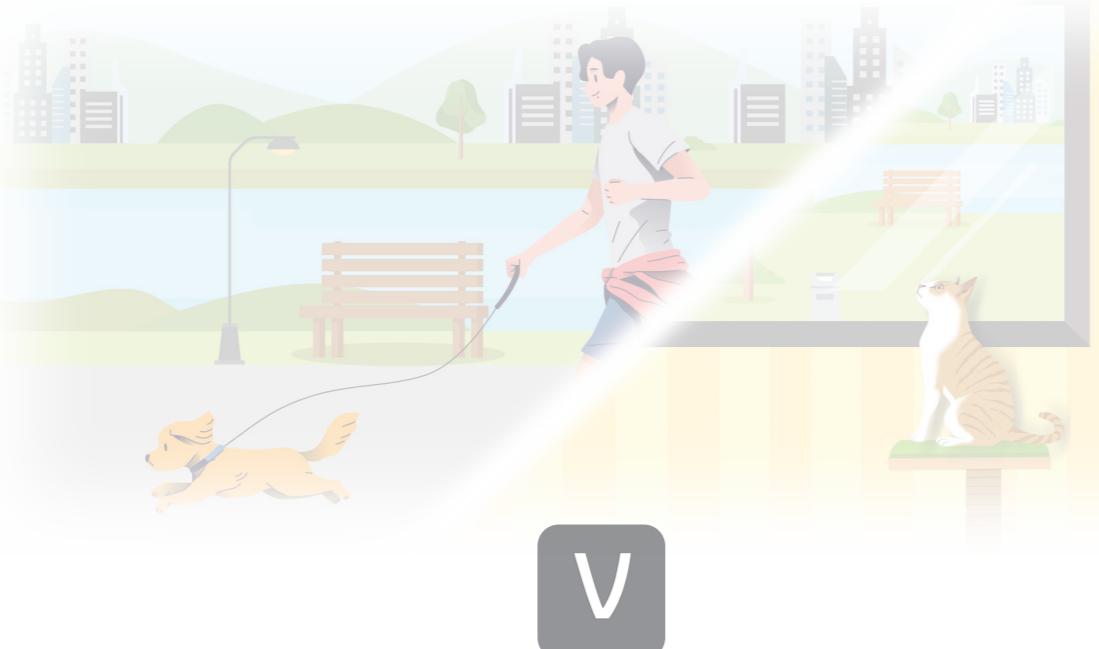
- 오프라인 동물병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온라인 원격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 본드벳은 48개 오프라인 지점을 보유한 동물병원 네트워크로 79 달러를 지불하면 20분간 화상으로 수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원격 진료 서비스를 제공
 - 진료를 통해 질병 진단과 약 처방이 가능하고, 배송 가능한 지역에 한해 처방약을 배송해줌
 - 화상으로 진료나 상담을 받은 기록은 오프라인 본드벳 체인과 공유되어 화상 진료 후 내원할 경우 연속성 있는 진료를 받을 수 있음

미국

[더치(Dutch)]

- 반려동물 원격 진료 전문 기업으로, 보험과 결합된 패키지 상품도 판매
 - 본드벳과 마찬가지로 수의사의 화상 진료를 통해 질병 진단과 약 처방, 약 배송 서비스를 제공
 - 월 21 달러 또는 연 100.80 달러를 내고 구독할 수 있는 서비스로, 횟수 제한 없이 일 년 내내 이용할 수 있고, 최대 5마리까지 진료받을 수 있음
- 원격 진료와 반려동물 사고 시 1만 달러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을 결합한 패키지 상품 제공
 - 개의 경우 월 21 달러, 고양이의 경우 월 20 달러를 내면 원격 진료와 반려동물 사고 시 1만 달러까지 보장해주는 보험 혜택을 제공

미국



[이슈2] 반려동물 맞이 준비

01 | 반려동물 맞이 시기

02 | 맞이 준비의 충분 정도

반려가구 18.3%는 현재 생애 처음으로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 그들은 동물을 좋아하거나, 또 하나님의 가족을 갖고 싶어서, 자녀가 기르자고 졸라서, 유기동물을 구하고 싶어서 등 다양한 이유로 반려동물을 입양했다. 가족을 맞는 마음으로 반려동물을 입양해 기르지만,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심각한 경우 양육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기도 했다. 반려동물 입양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을 때 행복한 반려가구가 존속 가능할 것이다.

본 장에서는 예비 반려인에게 보다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반려인이 반려동물 입양 전 준비 과정에서 경험한 일을 알아보았다. 최근 2년 이내 생애 첫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입양한 초보 반려인을 대상으로 표적집단심층면접(FGD, Focused Group Discussion)을 실시해 설문조사에서 알기 어려운 실제 양육 사례를 함께 실었다.

New Findings Top 6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반려동물 입양이 팬데믹 이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 ◎ 2019년 이전에는 입양률이 가장 높은 해에도 8.8%에 불과했으나 2020년 12.4%, 2021년 13.2%, 2022년 18.4%로 팬데믹 이전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
- ◎ 팬데믹 시기 입양은 반려견보다 반려묘가 많고, 생애 첫 반려인의 입양률이 높음
- ◎ 반려동물을 입양한 이유는 32.3%가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이나 '외로움' 해소 목적



반려가구의 3분의 1 정도가 1개월 이상을 입양 결정에 소요했고 이유는 책임감때문이다.

- ◎ 당일 바로 입양한 27.1%를 포함해 1개월 이내 입양을 결정한 반려가구가 65.5%였고, 반면 1개월 이상을 심사숙고한 반려가구가 34.5%
- ◎ 입양 결정에 1개월 이상 걸린 반려가구는 '책임감'과 '가족 반대 설득'으로 시간을 소요



반려가구 73.1%가 입양 전 정보를 찾지만, 유형별/품종별 세부 정보는 얻기 힘들다.

- ◎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전에 양육 정보를 찾아보는 반려가구는 73.1%
- ◎ 가장 많이 찾아본 정보는 '양육 시 주의사항'(53.2%), '먹이와 간식 정보'(51.4%), '반려동물 용품'(47.7%) 등이고 훈련 방법, 예방접종, 품종 특성과 같은 일반적인 정보 위주로 탐색



초보 반려인은 반려동물의 개별 특성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를 경험했다.

- ◎ 반려인 70% 이상이 반려동물 입양 전에 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고 만반의 준비를 함
- ◎ 그러나 소음으로 인한 공격적인 행동, 사료 적응의 어려움, 산책 시 돌발 행동, 반려인 부재 시 문제 행동 등 입양 초기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
- ◎ 반려동물의 개별 특성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대응이 쉽지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어려움



'친구, 친지 등 지인'을 통해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 가장 신뢰도가 높다.

- ◎ 반려동물 입양 채널은 '친구, 친지 등 지인', '애견센터', '유기 장소'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반려묘는 '유기 장소에서 직접', '친구, 친지 등 지인'을 통한 입양이 많음
- ◎ 반려인 66.7%는 '친구, 친지 등 지인'을 통한 입양을 가장 신뢰한다고 응답



반려동물 입양 전에 준비가 충분했다고 생각하는 반려인은 28.4%에 불과했다.

- ◎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 양육 준비가 '충분했다'고 응답한 반려가구는 반려가구 28.4%에 불과
- ◎ 반려가구 49.2%는 '반려인 자격시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
- ◎ 반려생활 실패를 방지하고 원활한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평가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

01 반려동물 맞이 시기

“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입양 크게 증가,
입양 이유는 ‘외로움’과 ‘우울감’을 달래기 위해서였다**

2020년에서 2022년 사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대면 접촉이 감소하면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반려동물을 입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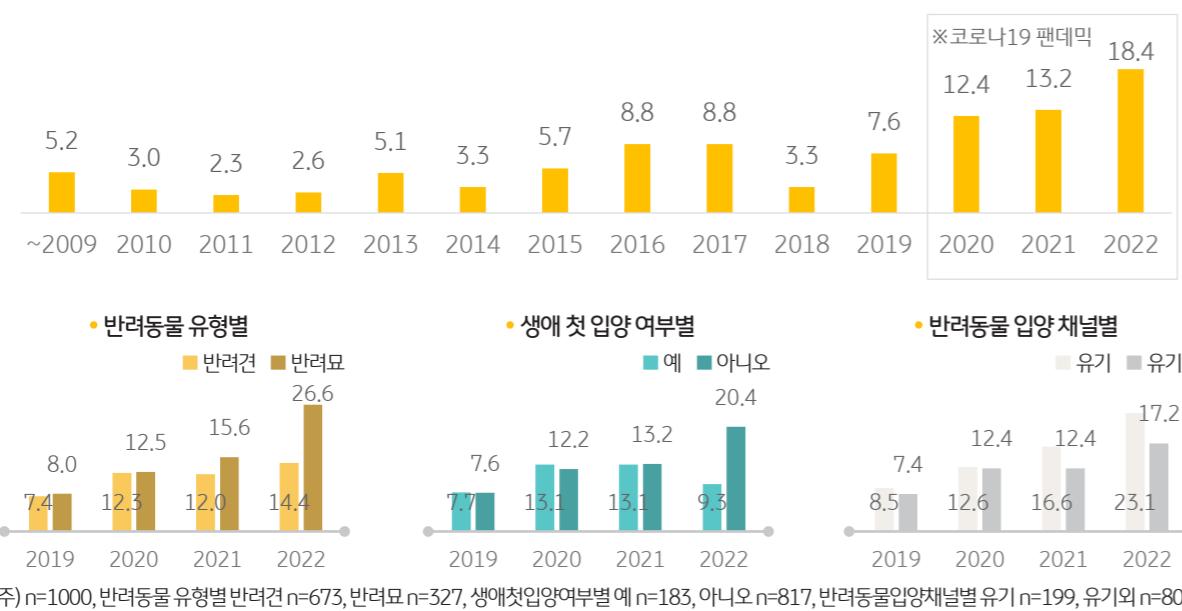
한 경우가 늘었다고 한다.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반려동물을 입양 시기를 알아보았다.

반려가구가 반려동물을 입양한 시기를 살펴보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입양한 가구가 2019년 이전에 입양한 가구에 비해 많았다. 2019년 이전에는 입양률이 가장 높은 해인 2017년에도 8.8%에 그쳤으나, 팬데믹 이후에는

2020년 12.4%, 2021년 13.2%, 2022년 18.4%로 팬데믹 이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팬데믹 시기에 입양한 반려동물은 반려견보다 반려묘가 많았고, 생애 처음으로 입양하는 반려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많았으며, 유기동물을 입양한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많았다. 유기동물 입양이 증가한 현상은 언론이나 사회적 분위기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림V-1 | 가장 최근 반려동물을 입양한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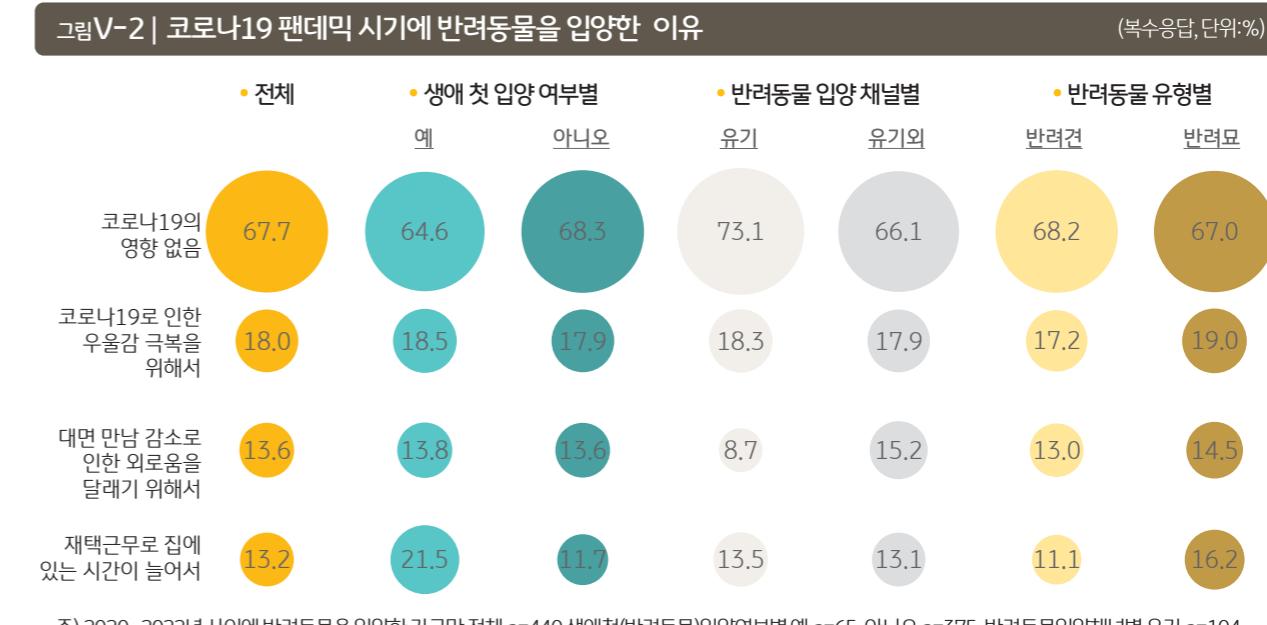
팬데믹 시기에 반려동물을 입양한 가구를 대상으로 입양 동기에 코로나19가 가져온 이슈를 해소하려는 목적이 반영된 것인지 알아보았다. 팬데믹 시기에 반려동물을 입양한 가구 32.3%가 코로나19 이슈 해소 목적으로 입양했다고 응답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반려동물을 입양했다는 반려가구는 생애 첫 입양을 결정한 가구가 35.4%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일반 채널을 통해 입양한 가구(33.9%), 반려묘가구(33.0%)의 순이었다. 팬데믹 시기에 유기동물 입양이 크게 늘었으나 입양 결정 동기에는 코로나19라는 시기적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입양 결정에 팬데믹 시기 영향이 있었다고 응답한 가구를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반려동물을 입양했는지 알아보았다.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18.0%)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다음으로 ‘대면 만남 감소로 인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13.6%), ‘주택근무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서’(13.2%)의 순이었다.

‘주택근무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서’ 입양을 결정한 경우는 생애 첫 입양을 결정한 반려가구의 21.5%, 반려묘 가구의 16.2%를 차지했다. ‘대면 만남 감소로 인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입양을 결정한 경우는 유기동물 보호소 등 유기 채널이 아닌 유기 외 채널을 통해 입양한 가구(15.2%)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림V-2 |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반려동물을 입양한 이유



”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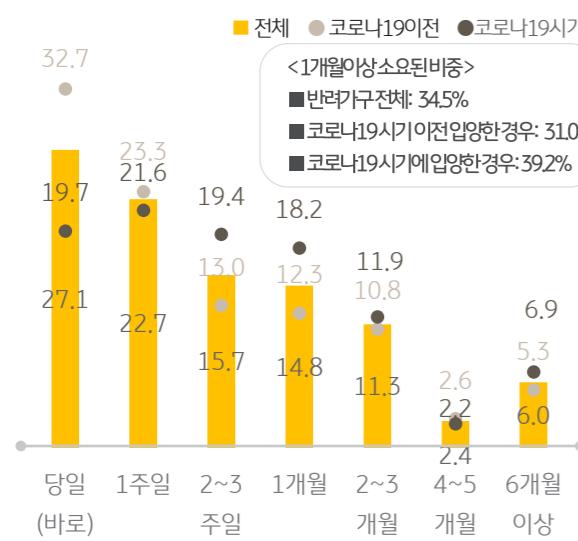
입양 결정에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

반려가구가 반려동물을 입양을 결정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알아보았다. 첫눈에 마음에 들어 ‘당일 바로’ 입양을 결정했다는 응답이 27.1%로 가장 많았고 ‘일주일 정도’ 생각했다는 응답은 22.7%, ‘2~3주일 정도’ 생각했다는 응답은 13.0%를 차지했다. ‘1개월 이상’ 생각했다는 응답이 34.5%를 기록해 반려가구 3분의 1 정도가 입양 결정을 하는데 1개월 이상 시간을 소요했다.

반려동물을 입양한 시기가 팬데믹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서도 입양 결정 시간의 차이를 보였다. 팬데믹 시기 입양을 결정한 반려가구가 입양을 결정하는 데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 ‘1개월 이상’ 생각했다는 경우가 팬데믹 이전에 입양한 반려가구는 31.0%인데 비해 팬데믹 시기에 입양한 반려가구는 39.2%를 차지했다.

반려가구는 입양을 결정하기 전 ‘1개월 이상’ 기간에 책임감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다. ‘책임지고 잘 키울 수 있을지 고민’했다는 경우가 61.0%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양육에 필요한 정보 검색’(32.7%), ‘원하는 품종의 입양처 탐색’(30.3%), ‘반려동물 품종 고민’(26.0%) 순이었다. 입양 시기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임시 보호나 봉사활동 등 입양 전 양육 경험’이었다. 입양 전 양육을 경험해 보았다는 응답은 팬데믹 시기에 입양한 반려가구가 13.6%를 차지하는 반면 팬데믹 이전에 입양한 반려가구는 2.3%에 그쳤다.

그림V-3 | 반려동물 입양을 고려한 기간 (단위:%)



그림V-4 | 1개월 이상 소요된 이유 (복수응답, 단위:%)

• 전체	• 입양 시기별		
	코로나19 이전	코로나19 시기	(n)
책임지고 잘 키울 수 있을지 고민	61.0	56.6	65.6
양육에 필요한 정보 검색	32.7	31.0	34.4
원하는 품종의 입양처 탐색	30.3	31.8	28.8
반려동물 종류(품종)을 고민	26.0	24.8	27.2
양육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	16.9	14.7	19.2
반려동물이 태어날 때까지 기다림	8.7	10.1	7.2
입양 전 양육 경험(봉사, 임보 등)	7.9	2.3	13.6
가족을 설득	5.5	7.0	4.0

주1) 가족이 데려오거나 유기동물을 대려오는 경우는 제외
주2) 전체 n=737, 코로나19 이전 n=416, 코로나19 시기 n=319
주) 반려동물 입양 전 1개월 이상 고려한 경우만

입양 고민 시작 시점부터 실제 입양까지 소요된 기간과 그 이유를 알아보고자 최근 2년 이내 생애 처음으로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입양한 반려인을 대상으로 표적집단심층면접을 진행했다. 반려인은 길게는 10년부터 짧게는 하루 만에 입양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양 고민 기간이 가장 긴 반려인은 반려동물 입양을 반대하는 가족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고 응답했다. 반려동물에 대해 충분히 공부할 시간을 갖고 임시 보호나 봉사 활동을 통해 반려동물과의 유대 관계를 형성한 후 입양을 결정한 반려인도 입양 고민 시작부터 실제 입양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었다. 반면 우연한 기회에 반려동물의 매력에 빠져 즉흥적으로 입양을 결정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들은 입양 고민 시작부터 실제 입양까지 시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V-5 | 반려동물 입양까지 소요 기간과 이유 (반려인별 반려견/반려묘 품종, 양육기간, 입양처를 표기함)



[보더콜리, 1년 8개월, 친구/지인]

저희는 아이가 원해서 키우게 됐는데 아파트에서 키운다는 건 너무 힘들 거란 생각에 계속(10년 정도) 반대를 했어요. 단독주택으로 이사 가지 않는 이상 안 키운다... 그런데 아이가 계속 키우고 싶어하는데 너무 안 된다고만 생각하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키우기로 했어요

[비글, 2년, 동물보호센터]



저는 2년 전쯤 아내가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고 했고 그 때문에 다투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점찍어둔 강아지를 3개월 정도 임시 보호를 하면서 키워도 괜찮을 것 같아서 입양했어요.



[몰티푸, 11개월, 인터넷 개인 간 거래]

저는 혼자 사는 1인가구이고 강아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6개월 정도 강아지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고 (전) 주인이랑 계속 얘기하면서 그 집에 두세 번 정도 가서 보고 오기도 했어요.

[셔틀랜드쉽독, 1년 5개월, 브리더]



저는 원래 강아지에 관심이 없었는데요. 브리더가 데려온 지인 강아지를 보고 미모에 반해서 두 시간 정도 상담하고 고민하다가 즉흥적으로 데리고 오게 됐어요.



[코리안숏헤어, 1년 1개월, 동물보호센터]

배우자가 고양이 봉사회를 다녔고 같이 가서 봉사하다 보니까.. 아파트 주차장에서 구조된 3형제한테 너무 정이 든 거예요. 그 중에 한 마리를 6개월 정도 봉사활동에서 보다가 정이 들어서 입양을 했어요.

주) 최근 2년 이내 생애 최초로 반려견 또는 반려묘를 입양한 반려인에 대한 표적집단심층면접 결과

02 맞이 준비의 충분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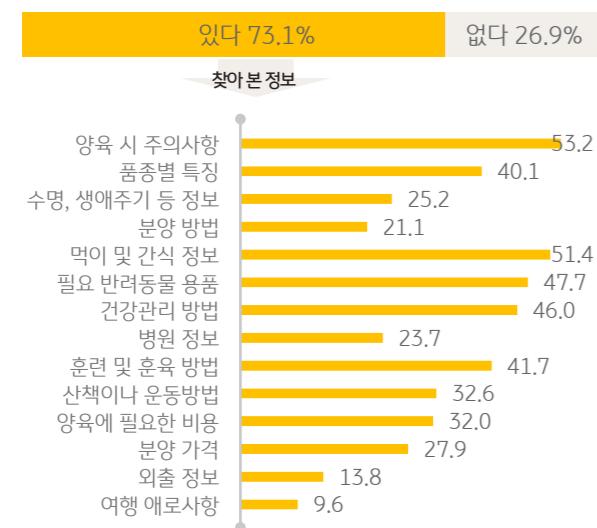
“

반려가구 73.1%는 입양 전 정보를 찾아보았으나 성향, 특성 등 구체적인 정보는 얻기 힘들었다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전에 구체적인 정보를 찾아보았는지, 찾아보았다면 어떤 정보인지 알아보았다. 반려가구 73.1%는 반려동물 입양 전에 정보를 찾아본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유형별로는 반려견가구 72.5%, 반려묘 가구 71.1%, 둘 다 기르는 가구 84.0%로 전체적으로 정보 탐색 경험이 많았다.

입양 전에 가장 많이 찾아본 정보는 ‘양육 시 주의사항’(53.2%)과 ‘먹이와 간식 정보’(51.4%)로 응답자 절반 이상이 해당되었다. 그 외 ‘필요한 반려동물 용품’(47.7%), ‘건강관리 방법’(46.0%), ‘훈련 및 훈육 방법’(41.7%), ‘품종별 특징’(40.1%) 정보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정보는 반려견가구의 경우 ‘훈련 및 훈육 방법’(45.5%), ‘품종별 특징’(44.9%), ‘산책이나 운동 방법’(39.1%)에 대해 많이 찾아보았고, 반려묘가구의 경우 ‘양육에 필요한 비용’(38.3%)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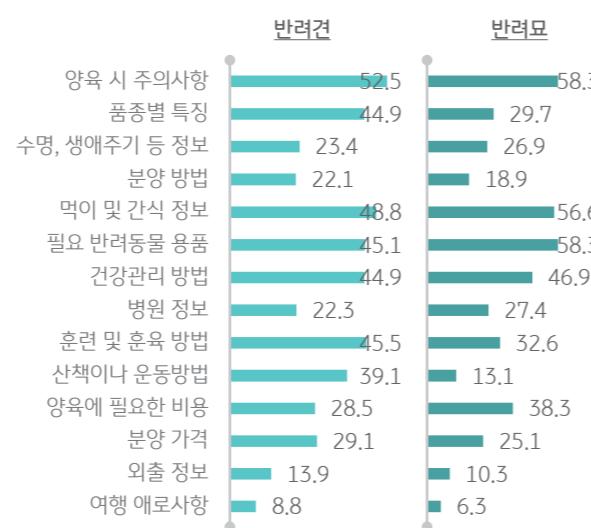
그림V-6 | 입양 전 탐색한 정보 내용 (복수응답, 단위:%)



주1) 전체 n=1000, '있다'는 경우 n=731

주2) 기타, 기억안남 등 응답은 상기에서 제외

그림V-7 | 반려동물 유형별 탐색 정보 (복수응답,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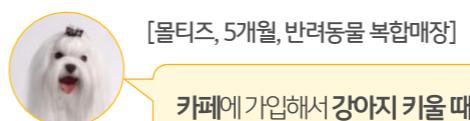
주1) 탐색한 정보가 있는 경우만 반려견 n=488, 반려묘 n=175

주2) 기타, 기억안남 등 응답은 상기에서 제외

표적집단심층면접을 통해 입양 전 반려인이 반려동물 양육 관련 정보를 탐색한 채널과 정보의 성격을 알아보았다. 대부분의 반려인은 유튜브나 인터넷 카페, 지인을 통해 필요 물품, 훈련 방법, 예방접종, 품종 특성과 같은 일반적인 정보를 위주로 알아본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의 개별 특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에 따른 준비 필요사항, 양육 시 주의사항 등의 정보를 얻은 반려인은 거의 없었으며, 이러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 결과 반려인 스스로는 충분히 준비하고 입양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입양 후 반려동물의 특성, 성향에 따른 특수한 상황이나 어려움에 부딪히면 해결 방법을 찾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V-8 | 반려동물 관련 이용 정보 채널과 탐색 정보 (반려인별 반려견/반려묘 품종, 양육기간, 입양처를 표기함)



[몰티즈, 5개월, 반려동물 복합매장]

카페에 가입해서 강아지 키울 때 주의해야 될 점, 준비물, 훈련하는 방법, 사회성 기르는 법 등을 찾아봤어요.



[몰티푸, 1년 9개월, 일반애견센터]

저는 주변에 강아지 키우는 분들한테 유의해야 될 점, 건강 문제(슬개골 문제), 아이가 얼마나 크는지, 사람과 잘 어울릴 만한 성격인지 등 이런 걸 많이 물어 봤어요.



[푸들, 5개월, 동물보호센터]

저는 유튜브를 제일 많이 봤고 네이버에 검색도 많이 했는데 지금 후회하는 부분은 아이를 키울 때 트레이닝이나 처음 아이가 도착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보다는 필요한 물건이 무엇이고 어떤 걸 갖춰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많이 봤던 거 같아요.



[믹스견, 11개월, 동물보호센터]

네이버 카페에 가입했는데, 내가 뭘 모르는지 몰라서 무슨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방접종이랑 건강 관리해서 많이 찾아봤어요.



[뱅갈, 1년 7개월, 브리더]

책을 찾아보고 유튜브도 많이 봤는데 저한테 큰 도움을 준건 브리더였어요. 제가 외부 채널을 통해 알아봤던 것보다 그분이 알려준 정보가 더 정확했어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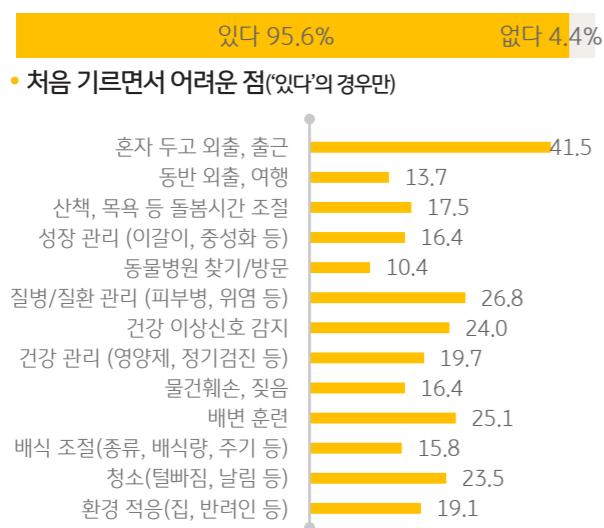
반려인은 입양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실제 양육하면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었다

실제로 반려동물 양육에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생애 최초로 반려동물을 맞이한 반려인에게 반려동물을 기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물었다.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처음 기르면서 직면한 어려움은 ‘반려동물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이나 출근해야 할 때’(41.5%)가 가장 많았다. 이는 반려견을 처음 기르는 가구(47.1%)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기도 했다. 그 다음으로 ‘피부병, 위염 등 질병, 질환 관리’(26.8%), ‘배변 훈련’(25.1%), ‘건강 이상 감지’(24.0%), ‘털 빠짐, 날림 등에 따른 청소’(23.5%)를 어려움으로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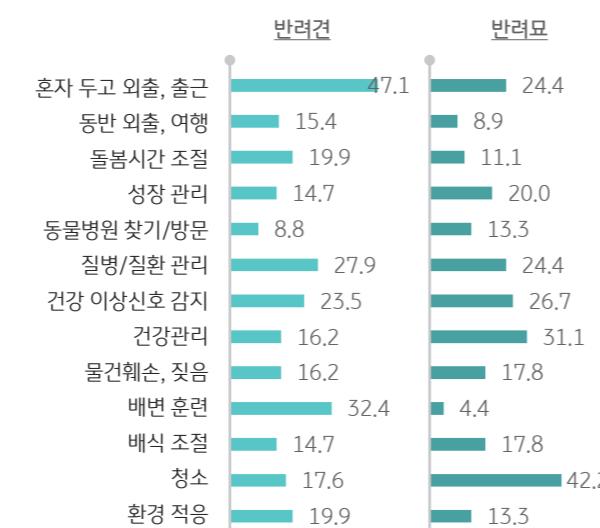
‘털 빠짐, 날림 등에 따른 청소’는 반려견을 처음 기르는 가구(17.6%)에 비해 반려묘를 처음 기르는 가구(42.2%)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건강관리’의 경우 반려묘가구는 31.1%로 두 번째로 큰 어려움인 반면 반려견가구는 16.2%로 큰 문제로 여기지 않았다.

그림V-9 | 입양 후 초기 어려움 (1+2+3순위, 단위:%)



주1) 현재 생애 첫 반려동물을 입양한 반려가구만
주2) 전체 n=183, '있다'는 경우 n=175

그림V-10 | 반려동물 유형별 어려움 (1+2+3, 단위:%)



주1) 현재 생애 첫 반려동물을 입양한 반려가구만
주2) 반려견 n=136, 반려묘 n=45

반려인이 입양 초기 겪은 어려움 중 입양 전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은 무엇일까? 외부 소리에 민감한 성향에 따른 공격적인 행동, 알레르기로 인한 사료 적응의 어려움, 유기 경험으로 인한 산책 시 돌발 행동, 애견숍 생활에 따른 식분증, 반려인 부재 시 문제 행동 등이 입양 초기 반려인을 당황하게 했다. 반려인은 반려동물 성향과 건강 상태, 입양 전 환경 등에 따라 다양한 어려움을 겪었으며, 특히 반려동물의 개별 특성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대응이 쉽지 않고 해결책 마련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인은 유튜브를 보거나, 전문 자료를 찾아 직접 문제 해결을 시도하거나, 전문 훈련사를 고용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많아 입양 전 반려동물의 성향, 특성, 건강 상태, 입양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사전에 탐색하여 입양 시 감당할 수 있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V-11 | 반려인이 양육 초기 경험한 예상치 못한 어려움 (반려인별 반려견/반려묘 품종, 양육 기간, 입양처를 표기함)



[비송 프리제, 1년, 일반애견센터]

아이가 짖었어요. 외부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아파트라서 민원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훈련사님한테 교육도 받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요즘에도 계속 유튜브로 보고 그대로 해봐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꼬뚱 드 틀레아, 10개월, 브리더]

사료가 안 맞으면 알레르기가 심한 편이예요. 그래서 사료 성분까지도 제가 논문을 찾아가면서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도 여전히 가려워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어요.



[미니핀, 1년 3개월, 동물보호센터]

저희 강아지가 유기 당시 습성인지 산책을 나가면 다 주워 먹는 버릇이 있는데 제가 진짜 생각지도 못한 문제여서 좀 걱정되고 당황스러웠는데 마땅히 해결 방법이 없어요.



[포메라니안, 1년 4개월, 일반애견센터]

식분증이라고 해서 애견숍에서 데리고 온 애들은 패드 위에서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때 (배변을) 치워주지 않으면 그걸 먹게 되잖아요. 놀잇감이라 생각한다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죠.



[코리안숏헤어, 1년 1개월, 동물보호센터]

(고양이를 입양하면 외출이나 여행을 못 할 거라고)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집에 스크래쳐가 있는데도 1박 2일 정도 집을 비웠는데 벽지랑 슬리퍼를 물어뜯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제가 집을 오래 비우면 조카나 아버지가 한두 번씩 와서 봐주세요.

주) 최근 2년 이내 생애 최초로 반려견 또는 반려묘를 입양한 반려인에 대한 표적집단심층면접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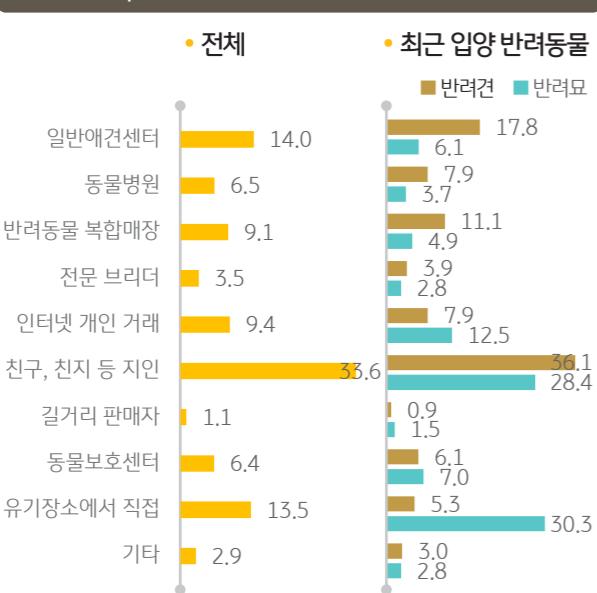
”

‘친구, 친지 등 지인’을 통한 입양이 가장 많았고, 가장 신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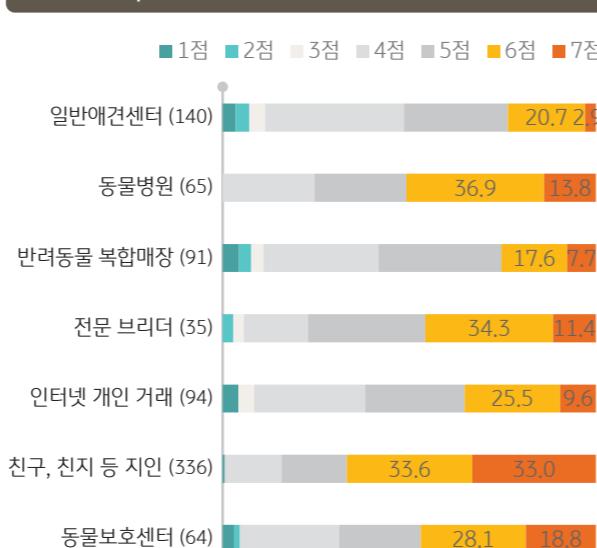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반려가구 3분의 1은 반려동물을 ‘친구, 친지 등 지인’을 통해 입양했고, 다음으로 ‘일반 애견센터’(14.0%), ‘유기 장소에서 직접’(13.5%) 데려왔다고 응답했다. 반려묘는 ‘유기 장소에서 직접’(30.3%) 데려온 경우와 ‘친구, 친지 등 지인’(28.4%)을 통해 데려오는 경우가 58.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반려견도 ‘친구, 친지 등 지인’(36.1%)을 통해 데려오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반 애견센터’(17.8%), ‘반려동물 복합장’(11.1%) 등의 순이었다. 반려묘는 반려견에 비해 입양 채널이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려가구는 지인, 일반 애견센터, 전문 브리더, 동물보호센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반려동물을 입양했다. 반려가구는 이들 입양 채널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는지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여 ‘신뢰한다(6점과 7점 합계)’는 응답 비중을 살펴보았다. 가장 비중이 높은 입양 채널인 ‘친구, 친지 등 지인’에 대해서는 66.7%가 신뢰한다고 응답해 매우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그다음으로 신뢰도가 높은 채널은 ‘동물병원’으로 절반에 가까운 50.8%가 신뢰했고, ‘동물보호센터’(46.9%), ‘전문 브리더’(45.7%), ‘인터넷 개인 간 거래’(35.1%)의 순이었다. ‘일반 애견센터’는 비중이 높은 입양 채널하지만 채널에 대한 신뢰도는 23.6%로 가장 낮았고, ‘반려동물 복합장’도 25.3%만이 ‘신뢰한다’고 응답했다.

그림V-12 | 최근 이용한 입양 채널 (단위:%)



그림V-13 | 입양처별 신뢰도 (1+2+3, 단위:%)



주) 전체 n=1000, 반려견 n=673, 반려묘 n=327

주) 유기 장소에서 직접 데려오거나, n=30 미만 응답된 길거리 판매자 제외

최근 2년 이내 생애 처음으로 반려동물을 입양한 반려인을 대상으로 표적집단심층면접을 진행한 결과, 입양 시 반려동물에 대한 지식 수준, 각자가 처한 상황 등에 따라 입양처에 차이를 보였다. 다양한 입양 채널에 대한 정보와 충분한 검토 기회가 없었던 반려인의 경우 접근성이 좋은 일반 애견센터, 동물병원 등을 이용했다. 원하는 품종이나 반려동물 특성이 명확한 반려인은 전문 브리더를 통해 입양하는 경우가 많았고, 지인의 반려동물이 새끼를 낳거나 기르기 어려워 입양한 경우도 있었다. 유기동물을 입양한 반려인의 경우 일반 애견센터나 반려동물 복합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거나, 유기동물 관련 봉사활동 등을 통해 평소 유기동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응답했다. 한편 유기동물 입양을 고려했으나 초보 반려인으로서 입양 후 직면하게 될 어려움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 다른 입양처를 선택한 반려인도 다수 있었다.

그림V-14 | 반려인의 입양처 선택 이유 (반려인별 반려견/반려묘 품종, 양육 기간, 입양처를 표기함)



[몰티푸, 1년 9개월, 일반애견센터]

친구가 유기견을 키우고 있고 애견센터에 대한 인식도 안 좋아서 **유기견 입양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친구네 강아지가 시간이 지나도 경계심을 풀지 않고 입질을 해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함께 키울 자신이 없어서 **(일반 애견센터를 이용했어요)**

[푸들, 1년 7개월, 동물병원]



저는 가정견을 알아봤는데 쉽지 않아서 **동물병원 쪽을 찾아보다가 의료 혜택 등이 있어 데려오게 됐어요**.



[비글, 2년, 동물보호센터]

아내가 **유기견 봉사활동**을 하는 곳에서 누군가 강아지를 버리고 갔는데 사람 말도 잘 듣고 해서 우리가 키워보자고 했어요.

[셀커크렉스, 2년, 친구/지인]



시동생이 키우는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는데 그집에 고양이가 네 마리 있어서 남한테 보내는 것보다 형 집에서 키웠으면 좋겠다고 제안해서 데려왔어요.



[뱅갈, 1년 7개월, 브리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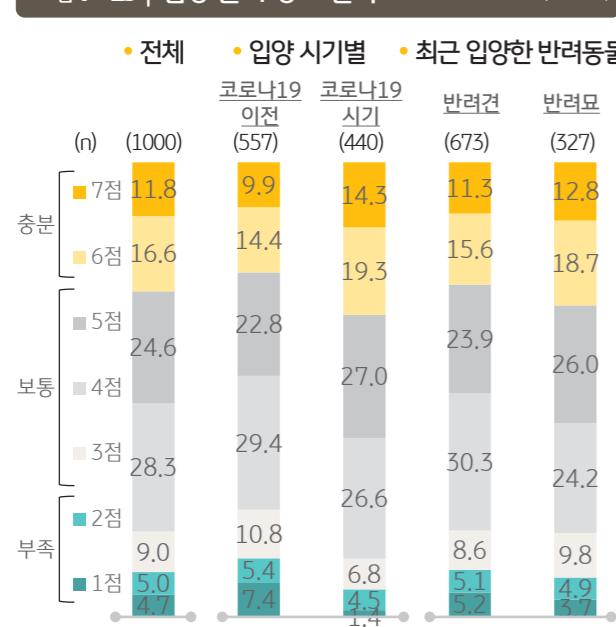
반려동물을 키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유기묘를 입양하기에는 부담이 커어요. 지인한테 **브리더 얘기를 듣고 찾아갔더니 저희가 원하는 조건에는 뱅갈이라는 품종이 맞을 거 같다고 권해주었어요**.

입양 전 준비가 충분했다고 생각하는 반려인은 28.4%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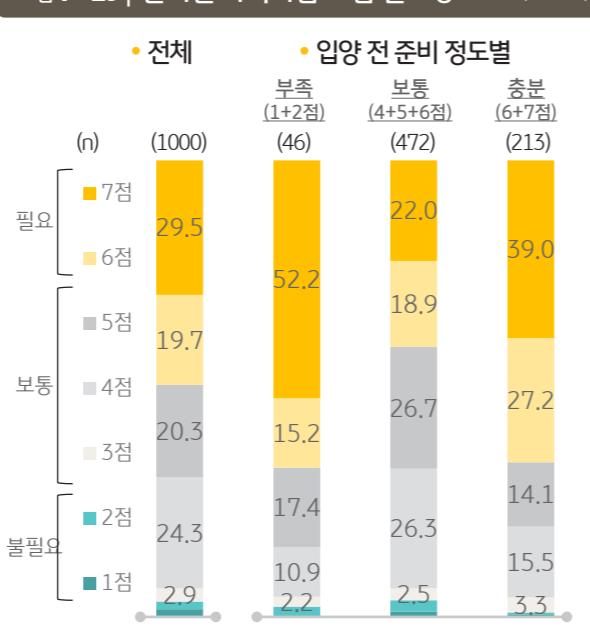
반려인은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 양육 준비가 ‘충분했다’(6점과 7점 합계)고 생각하는 반려가구는 전체의 28.4%에 불과했다. 대부분은 ‘보통이었다’(61.9%)고 생각했고,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9.7%를 차지했다. 입양 시기로 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입양한 반려인(24.2%)이 팬데믹 이후에 입양한 반려인(33.6%)보다 사전 준비가 ‘충분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었고, 반려견을 입양한 반려인(26.9%)이 반려묘를 입양한 반려인(31.5%)보다 사전 준비가 ‘충분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려인은 반려동물을 기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반려인 자격시험은 반려인이 반려동물의 행동 유형을 알고 돌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검증하는 제도다. 스위스나 독일에서는 이미 도입하고 있다. 반려인에게 국내에도 반려인 자격시험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반려인 49.2%가 시험 도입이 ‘필요하다’(6점과 7점 합계)고 응답했고, 47.5%는 ‘보통이다’(3점, 4점 5점 합계)고 응답했다. 입양 전 준비 정도에 따라 시험 도입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지 설문한 결과, 입양 전 준비 정도와 무관하게 전반적으로 시험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입양 전 준비가 ‘부족했다’고 응답한 반려인 67.4%, 입양 전 준비가 ‘충분했다’고 응답한 반려인 66.2%가 반려인 자격시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림V-15 | 입양 준비 정도 인식 (단위:%)



그림V-16 | 반려인 자격시험 도입 필요성 (단위:%)



심층면접 결과, 대다수 반려인이 반려인 자격시험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유기동물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고 파양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실제로 반려동물을 기르면서 필요한 지식이나 어려움이 많아 반려생활 실패를 방지하고 원활한 양육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시험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공인된 자격시험이 존재한다면 반려동물과 반려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장소가 확대되고 부가적인 혜택도 늘어나는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인프라가 확장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반려동물 자격시험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입양 시 필수 조건으로 지정하는 등의 법적 구속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반려인은 독일 등 해외의 까다로운 반려인 자격 심사 과정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를 참고해 입양 시 충분한 고려 과정과 검토 기간이 필요하며 입양 절차가 반려동물과의 유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현재 국내에도 반려인 자격시험과 유사한 시험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더 많은 반려인이 스스로 지원할 것으로 여겼다.

그림V-17 | 반려인 자격 시험 관련 반려인의 생각 (반려인별 반려견/반려묘 품종, 양육 기간, 입양처를 표기함)



[몰티즈, 5개월, 반려동물 복합매장]

강아지나 고양이를 너무 쉽게 데려올 수 있다 보니 유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키우다 보니 제가 몰랐던 것도 많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가끔 있는데 준비된 사람들만이 키울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푸들, 5개월, 동물보호센터]

공인된 자격시험이 존재한다면 그와 관련된 인프라가 발전할 거예요.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이 많아진다거나, 부가적인 혜택도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푸들, 1년 7개월, 동물병원]

유명무실한 자격증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제도여야 해요. 분양을 받을 때 필요하다거나 해야 될 거 같아요. 구속력이 없으면 있으나마나하게 될 거예요.



[믹스견, 11개월, 동물보호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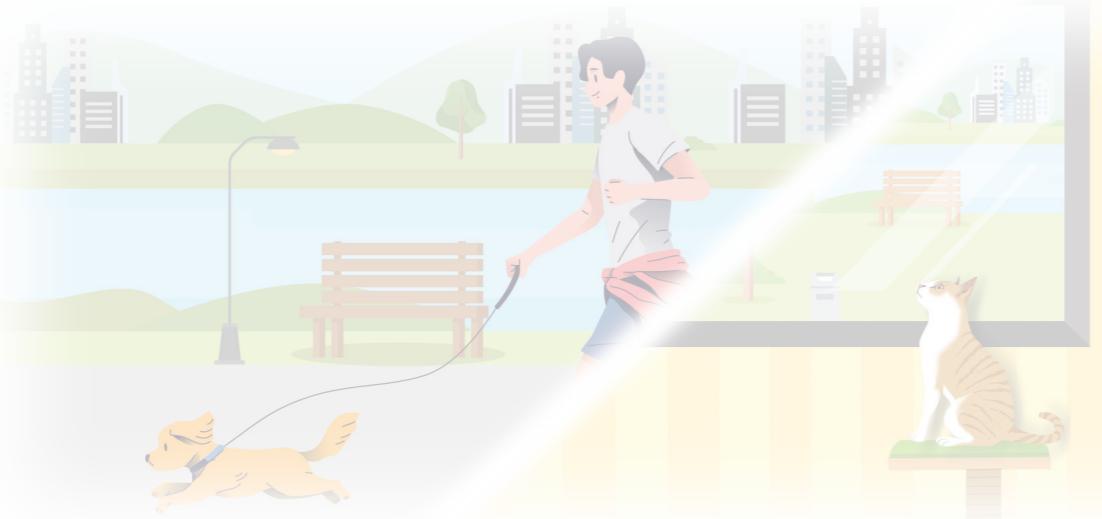
독일이 입양제도가 되게 까다롭다고 알고 있어요. 서류 작성해야 하는 것도 많고 신청 기간도 긴데 우리나라에는 서류가 ‘아이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는지’가 아니라 자동차 구입 신청서 같은 형식적인 서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가족으로 생각하고 데려오지 못하는 거 같아요.



[시바견, 1년 1개월, 친구/지인]

(기존에 있는 시험이) 제대로 시행되면 구속력이 없어도 반려인이 많이 응시할 거예요. 개를 사랑하는 만큼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느끼기 위해 공부를 하고 노력할 거예요.

주) 최근 2년 이내 생애 최초로 반려견 또는 반려묘를 입양한 반려인에 대한 표적집단심층면접 결과



VI

[이슈3] 반려묘 양육 스트레스 관리

01 | 반려묘 양육 정보

02 | 반려묘 스트레스 요인과 관리

반려동물로 고양이를 선호하는 가구가 늘었다. 반려묘를 기르는 가구는 전체 반려가구 27.1%, 한국 전체 가구 6.9%를 차지했다.

펫푸드 브랜드 로얄캐닌의 <2021 반려묘 건강관리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픔을 드러내지 않는 반려묘 특성을 알지 못하는 보호자가 10명 중 4명이고, 반려묘 생활 습관을 잘 파악하거나 정기적으로 동물병원에 방문하는 비중은 매우 낮다. 반려묘가구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데 비해, 이들을 위한 반려묘 생활 습관과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 건강관리 체크포인트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본 장에서는 반려묘에 대한 이해를 돋기 위해 반려묘가구에게 필요한 양육 정보, 반려묘 스트레스 점검 방법과 해소 방법, 건강 악화에 대응하는 방법 등을 알아본다.

New Findings Top 3

2022년 말 기준 한국 반려묘가구는 약 149만 가구이고, 반려묘 개체수는 239만 마리에 이른다. 2020년 말에 비해 반려견가구는 3.2%p 감소한데 비해, 반려묘가구는 1.9%p 증가해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선호하는 가구가 늘었다.



반려묘 양육 시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법, 가정에서의 건강 체크법 등의 정보가 중요했다.

- ◎ 반려묘가구에게 필요한 정보는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법’(28.4%), ‘가정에서 건강 체크 법’(27.8%), ‘연령별 주의 질병’(26.9%), ‘건강관리/식단/사료’(26.6%), ‘전문병원/수의사’(24.2%) 등
- ◎ 반려묘에게 건강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배변 공간, 숨는 공간, 수면 공간, 놀이 공간, 식사 공간 등 적절한 공간 조성이 중요
- ◎ 반려묘에게 가장 중요한 환경은 ‘배변 공간’으로서 화장실과 모래 상태는 반려묘의 건강에 매우 밀접한 영향을 미침
- ◎ 집합주택에 사는 경우 단독주택보다 반려묘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이 많음



반려가구는 반려묘의 식사량, 배변 횟수, 배변량 변화로 스트레스 정도를 체크했다.

- ◎ 반려묘가구 94.5%는 반려묘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이 ‘있다’고 응답
- ◎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주된 상황은 ‘시끄러운 소음이 날 때’(43.1%)나 ‘동물병원에 갈 때’(42.5%), ‘손님이 방문할 때’(41.3%), ‘미용/목욕할 때’(40.7%), ‘발톱 깎을 때’(40.1%) 등
- ◎ 반려묘의 스트레스 체크포인트는 ‘식사량 변화’(52.6%), ‘배변 횟수/배변량 변화’(42.8%), ‘활동량 변화’(35.5%), ‘몸무게 변화’(30.6%) 등



반려묘의 건강 상태를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가구는 28.5%에 불과했다.

- ◎ 반려묘가구 28.5%만이 반려묘의 ‘스트레스나 건강 악화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다’고 응답
- ◎ 반려묘가 아플 때 반려인 57.2%는 ‘동물병원에 데려간다’, 42.8%는 ‘집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거나, 약을 먹임’
- ◎ 반려인 65.8%는 집에서 스스로 진단하여 병원을 데려갈지, 집에서 처치할지를 결정
- ◎ 반려묘의 경우 병원에 데려가는 것도 집 밖으로 나가야 해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 집에서 반려묘의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함

01 반려묘 양육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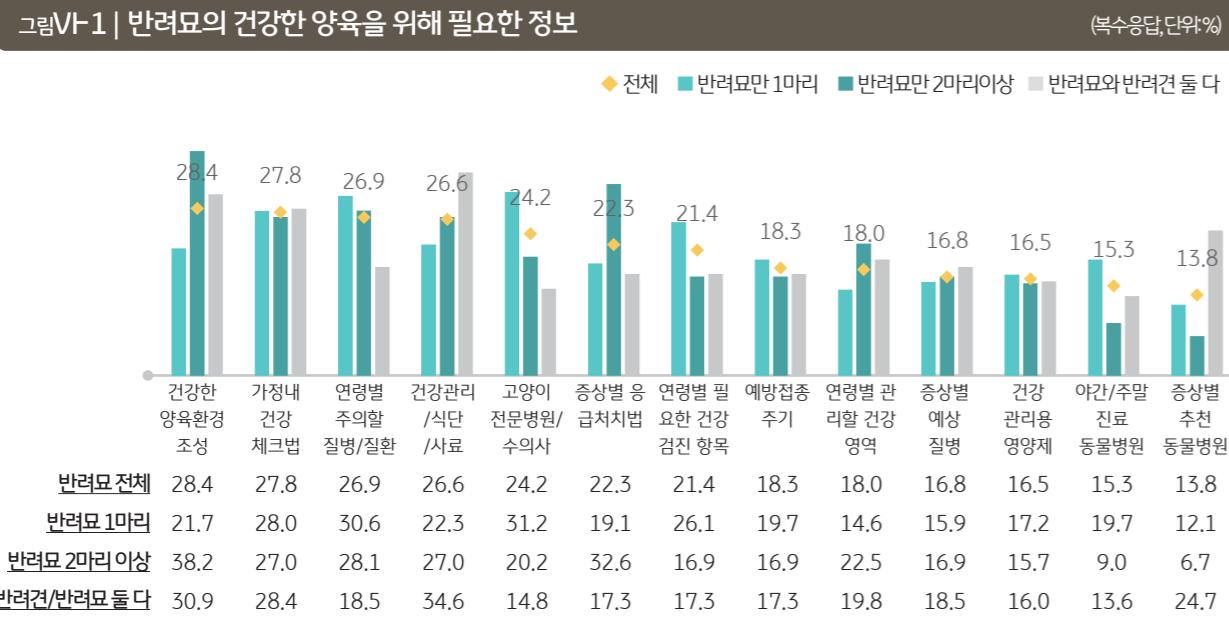
“

**반려묘 양육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정보는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법’이다**

반려묘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반려견가구의 절반 수준이다. 수적으로 우위인 반려견에 비해 반려묘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반려묘가구에게 반려묘의 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알아보았다. 반려묘가구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는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법’으로 28.4%를 차지했고, 그다음으로는 ‘가정에서 건강 체크법’(27.8%), ‘연령별 주의할 질병’(26.9%), ‘건강관리/식단/사료’(26.6%), ‘고양이 전문병원/수의사’(24.2%) 등의 순이었다. 반려묘만 2마리 이상 기르는 가구에서는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법’(38.2%)과 ‘증상별 응급처치법’(32.6%)에 대한 정보를 절실히 원했다. 반면 반려묘만 1마리 기르는 가구에서는 ‘고양이 전문병원/수의사’(31.2%)와 ‘연령별 필요한 건강검진 항목’(26.1%)에 대한 정보를 원했다.

그림VI-1 | 반려묘의 건강한 양육을 위해 필요한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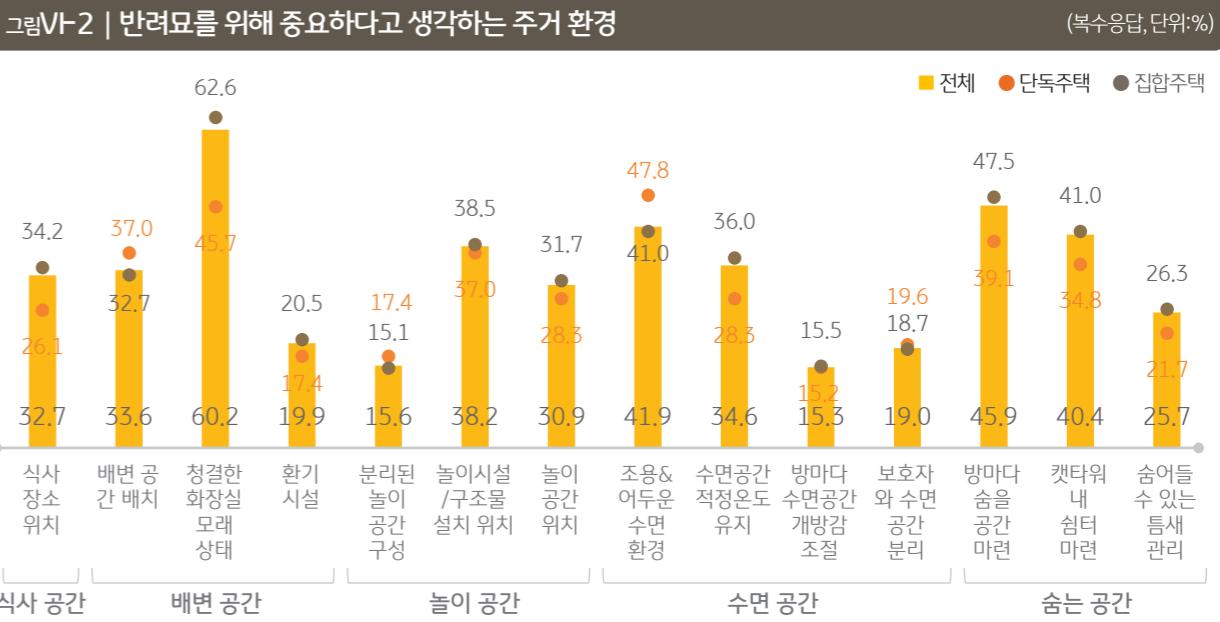
주) 반려묘가구 전체 n=327, 반려묘만 1마리 양육가구 n=157, 반려묘만 2마리 이상 양육가구 n=89, 반려견/반려묘 둘 다 양육가구 n=81

외출하지 않고 집에서 보내는 반려묘에게 건강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반려묘에게 건강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배변 공간, 숨는 공간, 수면 공간, 놀이 공간, 식사 공간 등 전반적으로 적절한 공간 조성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반려묘에게 가장 중요한 환경에 대해 반려묘가구 60.2%가 ‘청결한 화장실 모래 상태’를 꼽았다. 그다음으로 ‘방마다 배치된 숨을 공간’(45.9%), ‘조용하고 어두운 수면 환경’(41.9%), ‘캣타워 내 쉼터’(40.4%)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려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환경은 ‘배변 공간’으로서 반려묘의 건강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응답했다. 야생성이 있는 반려묘에게 ‘숨는 공간’은 수면 공간보다 중요했다.

반려묘를 기르는 주거 환경은 단독주택인지 집합주택인지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주택 유형에 따라 어떤 측면에서 주의가 필요한지 알아보았다. 전반적으로 집합주택이 단독주택보다 반려묘를 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 많았다. ‘청결한 화장실 모래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집합주택(62.6%)이 단독주택(45.7%)보다 16.9%p, ‘방마다 숨을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집합주택(47.5%)이 단독주택(39.1%)보다 8.4%p 중요도가 높았다. ‘식사 장소 위치’도 집합주택(34.2%)이 단독주택(26.1%)보다 8.1%p 중요도가 높았다. ‘수면 공간의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 역시 집합주택(36.0%)이 단독주택(28.3%)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반면 단독주택에서 집합주택보다 좀 더 주의해야 할 항목은 ‘배변 공간 배치’와 ‘놀이 공간 위치’였다. 배변 공간 배치에 대해서는 단독주택(37.0%)이 집합주택(32.7%)보다 4.3%p 중요도가 높았고, ‘놀이 공간 위치’에서도 단독주택(31.7%)이 집합주택(28.3%)보다 3.4%p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그림VI-2 | 반려묘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거 환경



주) n=327, 주택유형별 단독주택 n=46, 집합주택 n=278

02 반려묘 스트레스 요인과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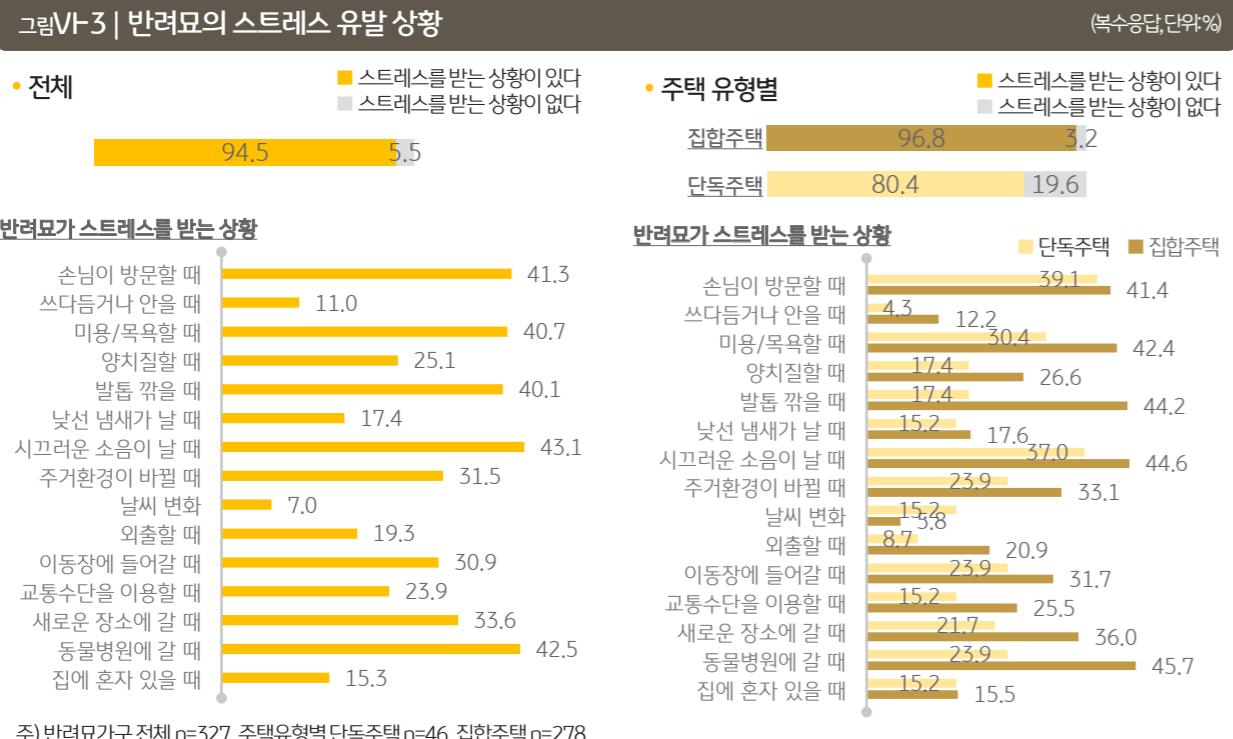
“

반려인은 식사량, 배변 횟수, 배변량 변화로

반려묘의 스트레스를 체크했다

반려인이 반려묘 양육을 위해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반려묘에게 스트레스가 유발되는 상황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다. 반려묘가구 94.5%가 반려묘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이 ‘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소리에 민감하여 ‘시끄러운 소음이 날 때’(43.1%)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거주 공간을 벗어나 ‘동물병원에 갈 때’(42.5%)였다. 외부에서 ‘손님이 방문할 때’(41.3%)나 ‘미용/목욕할 때’(40.7%), ‘발톱 깎을 때’(40.1%)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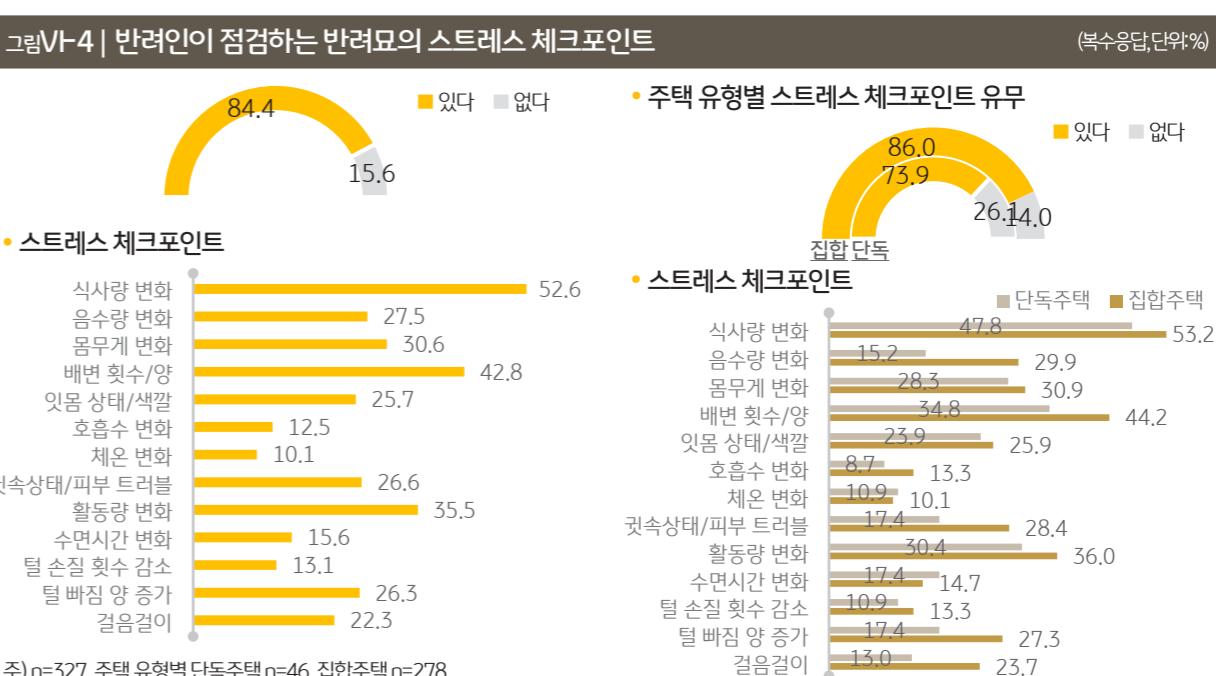
단독주택보다 집합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반려묘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많았다.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반려묘가구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있다는 응답률은 80.4%인데 비해 집합주택에 거주하는 반려묘가구는 96.8%를 차지해, 집합주택에 거주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더 많았다.



단독주택에 비해 집합주택에 사는 반려묘가 어떤 스트레스 상황을 더 자주 접하는지 알아보았다. 단독주택에 사는 반려묘보다 집합주택에 사는 반려묘는 ‘동물병원에 갈 때’(21.8%p)나 ‘양치질을 할 때’(9.2%p) 스트레스를 더 크게 받았고, 그 외 ‘새로운 장소에 갈 때’(14.3%p)나 ‘외출할 때’(12.2%p), ‘미용/목욕할 때’(12.0%p),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10.3%p) 등도 단독주택보다 집합주택에 사는 반려묘의 스트레스가 더 크게 나타났다.

반려묘가 받는 다양한 스트레스에 대해 반려인은 어떻게 체크하고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았다. 반려묘가구 84.4%가 반려묘의 스트레스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체크포인트를 가지고 있었고, 이는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반려가구(73.9%)보다 집합주택에 거주하는 반려가구(86.0%)가 12.1%p 많았다. 반려인이 반려묘의 스트레스 상황을 감지하는 방법은 ‘식사량 변화’가 52.6%로 가장 많았고, 그 외 ‘배변 횟수/배변량 변화’(42.8%), ‘활동량 변화’(35.5%), ‘몸무게 변화’(30.6%) 등의 순이었다.

주택 유형에 따라서도 반려묘의 스트레스 상황을 감지하는 방법에 차이를 보였다. 반려인의 반려동물 스트레스 체크포인트 중 집합주택에 거주하는 반려인이 단독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음수량 변화’로 14.6%p 많았다. 그 다음으로 ‘귓속 상태/피부 트러블’이 11.0%p 집합주택에 거주하는 반려인이 많았고, ‘걸음걸이’(10.7%p), ‘털 빠짐 양 증가’(9.9%p), ‘배변 횟수/배변량 변화’(9.5%p) 등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이는 실내 공간만 있는 집합주택에 비해 실외 공간도 있는 단독주택의 경우 음수량이나 배변 활동, 털 빠짐, 걸음걸이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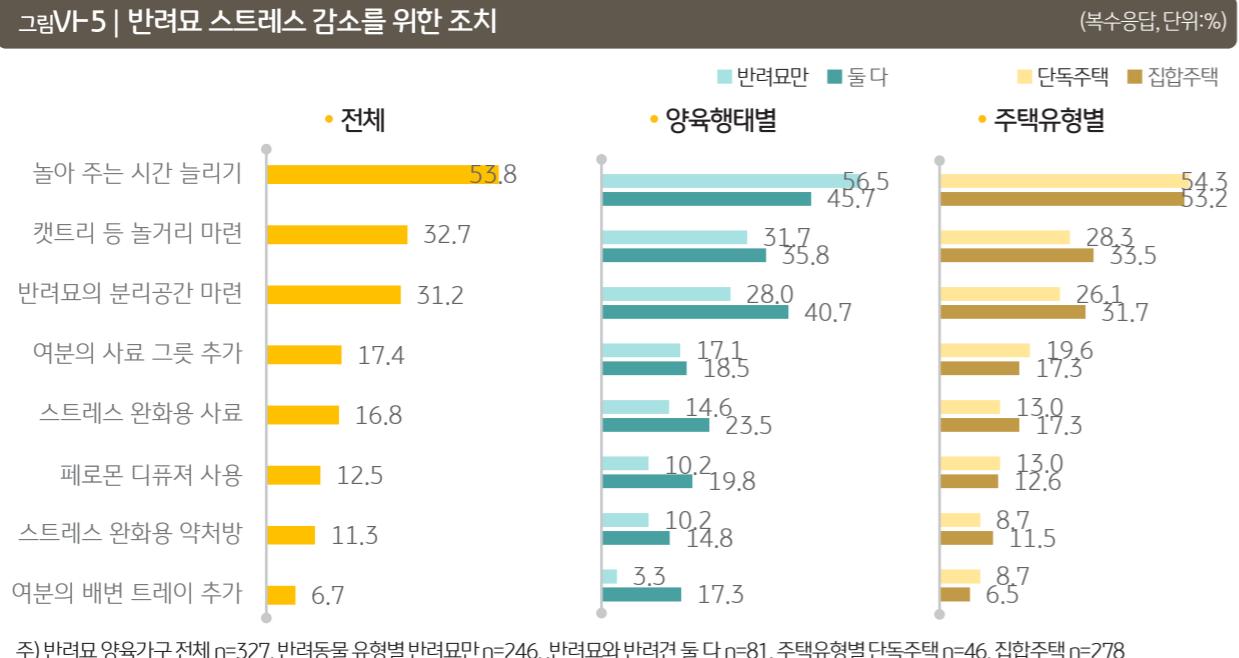


평소 반려묘의 건강 상태를 잘 파악하는 가구는 28.5%에 그쳤다

반려인 80%는 반려묘의 스트레스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나름의 체크포인트를 가지고 반려묘를 기르고 있었다. 반려묘의 스트레스를 파악하는데 그치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알아보았다.

반려묘가구 53.8%는 반려묘와 ‘놀아주는 시간 늘리기’를 통해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묘가구의 3분의 1은 ‘캣트리 등 놀거리 마련’(32.7%)이나 ‘반려묘의 분리 공간 마련’(31.2%)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어주었다. 그 외 여분의 사료나 스트레스 완화용 사료를 주는 등의 배려 행동과 컴퓨터 사용, 약 처방 등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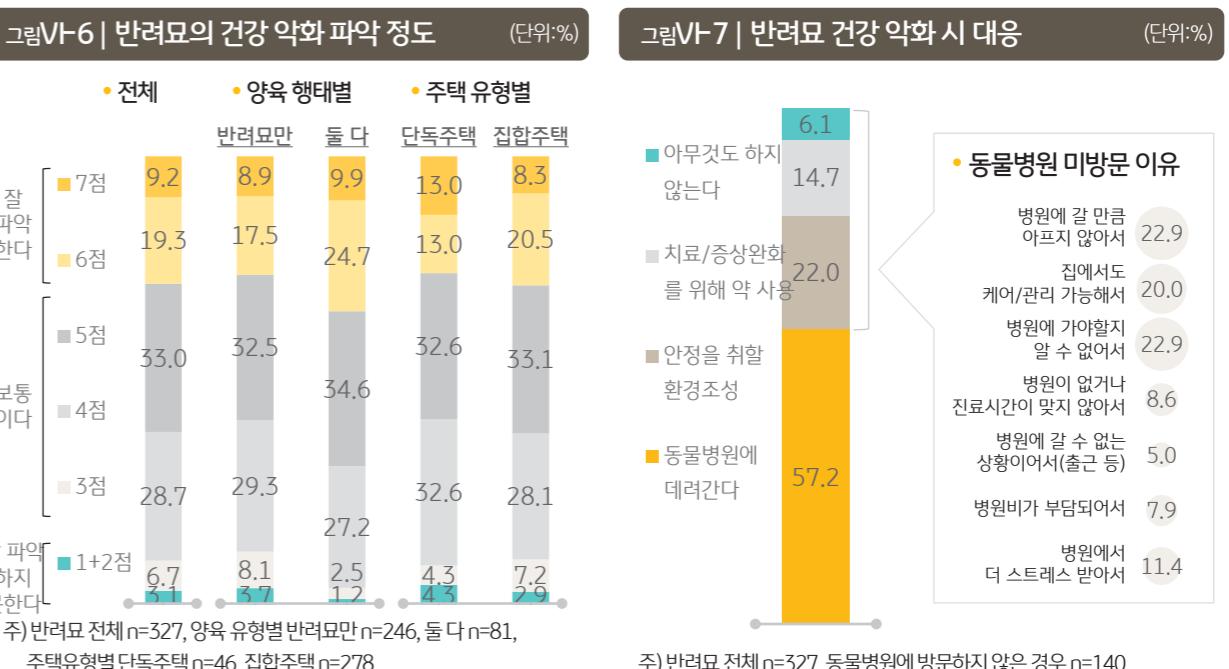
반려인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조치는 반려묘만 기르는지, 반려묘와 반려견 둘 다 기르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는 반면 주택 유형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양육 행태별로는 반려묘만 기르는 가구보다 반려견과 둘 다 기르는 가구에서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해소 조치를 더 많이 취하고 있었다. 특히 ‘여분의 배변 트레이 마련’(14.0%p)이나 ‘반려묘의 분리 공간 마련’(12.7%p) 등에서 차이를 보였다. ‘페로몬 디퓨저 사용’(9.6%p)이나 ‘스트레스 완화용 약 처방’(4.6%p) 등에서도 반려묘만 기르는 반려인보다 반려묘와 반려견 둘 다 기르는 반려인이 좀 더 적극적으로 스트레스 해소 조치를 취했다.



반려인에게 반려묘의 건강 상태를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자평하라고 요청했다. 반려묘가구 28.5%가 반려묘의 ‘스트레스나 건강 악화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68.5%는 ‘보통이다’고 응답했다. 반려묘만 기르는 가구(26.4%)보다 반려묘와 반려견 둘 다 기르는 가구(34.6%)에서 반려묘의 건강 상태를 잘 파악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반면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반려가구(26.0%)와 집합주택에 거주하는 반려가구(28.8%)의 응답률이 비슷하여 주택 유형에 따른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다.

반려묘가 아플 때 즉각적으로 취하는 조치로 반려인 57.2%는 ‘동물병원에 데려간다’고 응답했고, 42.8%가 자가 진단을 통해 ‘안정을 취할 환경을 조성’(22.0%)하거나, ‘치료/증상 완화를 위해 약을 사용’(14.7%),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6.1%)의 조치를 취했다. 반려묘를 곧바로 동물병원을 데려가지 않는 이유를 묻자 ‘병원에 갈 만큼 아프지 않아서’와 ‘병원에 가야 할지 알 수 없어서’가 각각 22.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집에서도 케어/관리가 가능해서’가 20.0%를 기록했다. 그 외 ‘병원에서 더 스트레스를 받아서’(11.4%), ‘병원이 없거나 진료 시간이 맞지 않아서’(8.6%), ‘병원비가 부담되어서’(7.9%) 등 이유가 있었다.

반려인 65.8%가 반려묘 건강 이상이 파악될 때 집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으며, 또 반려묘의 경우 집 밖으로 나가 병원에 데려가는 상황이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므로 집에서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

01 | 용어 정의

02 | 연구 방법



참고 1 | 용어 정의

• 반려동물

-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이라는 의미로, 1983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움에서 동물학자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콘라트 로렌츠(Konrad Lorenz)가 제안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부터 사용

• 반려가구

- 현재 거주지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며 함께 생활하는 가구

• 비반려가구

- 현재 거주지에서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가구

• 반려인

- 반려가구 구성원으로서 반려동물 양육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사람

• 반려견가구

- 반려동물로 개(반려견)만을 기르는 반려가구

• 반려묘가구

- 반려동물로 고양이(반려묘)만을 기르는 반려가구

• 부부가구

- 자녀를 낳지 않고 부부 2인이 생계를 영위하는 가구

• 부모자녀가구

- 부모와 미혼 자녀가 같은 거주지에서 함께 생계를 영위하는 가구

• 유기동물

- 주인의 실수 또는 의도적인 목적으로 버려진 반려동물

참고 2 | 연구 방법

■ (본조사) 정량조사 개요

▶ 조사대상	반려동물 전체 시장 현황 분석용	반려동물 양육 세부 현황 분석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에 거주하는 20세 ~ 69세 남녀▪ 가구 내 금융의사 결정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려동물을 양육 중인 전국에 거주하는 20세 ~ 69세 남녀▪ 가구 내 금융의사 결정자
▶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모바일 조사	
▶ 표본추출방법	지역/가구주연령/성별/가구구성을 고려한 할당표본추출법(Quota Sampling)	
▶ 표본구성	반려동물 전체 시장 분석 2천 명, 반려가구 양육 현황 분석 1천 명	
▶ 조사기간	2023년 2월 15일 ~ 2023년 2월 27일 (13일간)	

■ (이슈조사) 정량조사 개요

▶ 조사대상	반려동물 전체 시장 현황 분석용	반려동물 양육 세부 현황 분석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에 거주하는 20세 ~ 69세 남녀▪ 가구 내 금융의사 결정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려동물을 양육 중인 전국에 거주하는 20세 ~ 69세 남녀▪ 가구 내 금융의사 결정자
▶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모바일 조사	
▶ 표본추출방법	지역/가구주연령/성별/가구구성을 고려한 할당표본추출법	
▶ 표본구성	반려가구 양육 현황 분석 1천 명	
▶ 조사기간	2023년 4월 28일 ~ 2023년 5월 3일 (6일간)	

■ 정성조사 개요

▶ 조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2년 이내 생애 첫 반려견 또는 반려묘 입양자- 가구 자산관리 의사결정 관여자, 반려동물 양육 의사결정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적집단 심층면접 (FGD, Focused Group Discussion)
▶ 표본추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판단표본추출(Judgment Sampling)- 사전 전화면접/이메일 조사 등을 통해 적합성 확인 후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4그룹, 총 22명- 그룹 1 : 소형견 양육가구 (6명)- 그룹 2 : 중·대형견 양육가구 / 반려견 입양 전 정보 탐색자 (6명)- 그룹 3 : 유기견 양육가구 (5명)- 그룹 4 : 반려묘 양육가구 (5명)
▶ 표본구성	
▶ 조사기간	2023년 3월 21일 ~ 4월 5일

발행인 윤종규
편집인 한동환
발행처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연구자 부장 황원경(wk.hwang@kbfg.com), 책임연구원 이신애(shinai.lee@kbfg.com)
발행일 2023년 6월 5일
조사기관 (주)컨슈머인사이트
편집인쇄 신우씨앤피